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 옆) 종로구 수송동5번지 동일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 / 논설고문:고은 / 편집국장:최정희 / 인쇄인:김규석 / 등록번호: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737-8881 / 편집국:722-4162 FAX:737-0698 / 광고국:737-0692 / 구독신청: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1월 2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59 호

물가오르고 실업공포…불안한 나날의 연속

"불서로 마음안정 찾는다"

큰스님 법문서 등 판매 늘어나

사회가 어지럽고 불안하다. 연일 터지는 부도와 실직공포로 위기의식이 극대화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3%를 밑돌고, 실업자수가 사상 최대인 150만명을 웃돌 것이라는 보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없이 불안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공황 속에서 마음, 명상, 큰스님 법문 관련서 등이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책 읽기를 통해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지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이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마음 알기 나누기 다루기〉〈인간관계를 열어주는 108가지 따뜻한 이야기〉 등 지난해부터 봇물처럼 터져나온 이 책들은 IMF이후 시내 대형서점가의 매출이 10% 이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꾸준한 판매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을 비롯한 교계 서점가에서도 지난해 최고의 베스트셀러 〈생활 속의 기도법〉을 비롯 〈무소유〉〈삶은 고가 아니다〉〈파안으로 이끄는 사자후〉〈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등 인생에 대한 혜안을 열어주는 큰 스님들의 법문집이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우리출판사가 91년에 출간했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청찬끄)를 재출간 하는 등 올 한해도 마음찾기 관련서들이 꾸준히 나올 전망이다.

또 〈작은 이야기〉〈마음을 그리는 작은 철관〉〈씨뿌리는 사람의 씨앗〉 등 우리생활 속에 숨은 훈훈한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우는 책들도 삭막해진 현대인들의 마음 추스리기에 한 몫 하며 베스트셀러 자리에 오르고 있다.

출판 관계자들은 "불황기일수록 인간과 삶, 사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은 책들이 많이 읽힌다"면서 "올해 출판가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출판 불황속에서도 이들 마음, 명상 관련서를 비롯, 〈노자〉〈장자〉 등 고전읽기 붐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한다. 사회의 전반적인 긴축으로 레저·여행객이 극감하고, 대신 책읽는 가정이 늘어나는 현상도 이러한 기대에 힘을 더해준다.

퇴근후 책방 여시아문을 찾은 김상원씨(회사원, 강서구 화곡동)는 "얼마전 명예퇴직해 허전해 보이는 아버지께 책 한 권 사 드리려고 서점에 들렀다"면서 "요즘처럼 마음이 허하고 불안한 시대에는 큰스님의 가르침이 담긴 법문집이 최고의 해결사"라고 말한다.

〈이은자 기자〉



"위기의 나라 구하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김수환 추기경, 김영룡목사등 3대 종교지도자는 14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초청으로 김당선자의 일산 자택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김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정리해고제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대해 월주스님 등은 "김당선자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마련과 계층간의 화합, 진관스님 등 양심수 석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인골프장 행정적 해결 검토"

인수위 14일 밝혀

해인골프장 건립문제와 관련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워 해결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측은 14일 "문화유산 보호차원에서 해인골프장 건립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다"고 밝혔다.

사회문화분과위 간사 최재욱 의원은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각도로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며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보존을 위해 해인골프장문제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처리되도록 새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 요청으로 능관스님(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장) 최열(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도영환(지역주민대표)씨 등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범국민대책위 대표들과 대통령직 인수위측 최재욱, 김종학의원 신현택 문체부 환경국장 정홍식행정관 선우영준 인수위 부이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된 것.

이에앞서 9일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원장도 범국민대책위의 방문을 받고 "해인사가 현상태대로 보존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권이 인수되면 정부의 공식채널을 통해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인총림은 13일 경내 구광루앞에서 대구경북대책위(위원장 정학)등 지역의 4개 대책위가 참석한 가운데 해인골프장 전면백지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세계문화유산 보호특별법 제정 △김대중당선자의 백지화 공약이행 △(주)가야개발은 골프장을 포기할 것 등 6개항으로 된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대불교 명예기자 모집

현대불교신문은 보다 생활과 밀착된 살아있는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신심을 북돋우기 위해 명예기자제를 운용합니다. 각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활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실 활동력 강한 명예기자를 찾습니다.

- 자 격: 주부, 각 직장 및 불교단체종사자(지역 무관)
- 인 원: 00명
- 활동내용: 취재 및 제보
- 대 우: 채택된 기사 원고료 지급

97년도판 현대불교 합본집

1997년 한해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을 묶은 〈97년도판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제시해 온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에는 97년도 불교사의 흐름이 총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주 만나는 큰스님들의 법문,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등 삶의 지혜와 신행의 길잡이가 필요한 불자들에게 좋은 신행지침이 될 것입니다. 한 권씩 소장하시고 또 이웃에게 법보시하시기를 권합니다.

- 수록내용: 1997년 1년분(109호~156호)
- 가 격: 6만원(우송의 경우 별도의 발송비가 추가됩니다)
- 문 의: 현대불교신문사 기획관리부(02)737-8881
-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부처님 자비로 이웃과 함께"

조계종 올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확정

조계종봉축위원회(위원장 혜창)는 올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를 "부처님 자비로 이웃과 함께"로 확정했다.

봉축위는 표어 공모에 모두 37점이 응모했으며 심사결과 이석심씨의 작품을 1등에 전국불교운동연합 손상훈씨의 "배풍어 함께 맞고 진리에 하나되게"를 2등에, 조계종 교육원 박종현계장의 "지혜로운 이웃 함께 여는 정토"를 3등에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인골프장 반대"

교구본사 주지모임 결의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회장 설조)은 14일 전남 도갑사에서 14명의 본사 주지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모임을 갖고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히고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교구본사주지모임은 또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기도회를 본사단위로 열기로 하고 정부에 대한 실업대책과 기업에 대한 해고억제 국민과 승가에 대한 금검절약과 금모으기 동참등을 촉구했다. 교구본사 주지모임은 조계종에 대해 중앙종무기관 기구축소를 건의하기로 했다.

사찰화재보험 인식 확산 22면
심야전기 이용 사찰난방 22면
시방세계 회암사가 다시서면… 11면
열린마당 '포교사의 법복착용' 21면

비둘기 엄마

서울 월곡동에 사는 김여여심보살(56)은 11일 오후 2시 뒷동산 팔각정에 올라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다. 김보살은 손으로는 먹이를 주고, 입으로는 '구구구…' 소리를 내며 비둘기들을 부르더니 갑자기 "웅지 여기 있었구나"라며 비둘기 한마리를 안아올렸다.

"이런, 살속을 이렇게나 깊이 파고 들었는데 얼마나 아팠니." 김보살은 익숙한 솜씨로 비둘기 발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가락 사이로 파고 들어간 실을 한올 한올 벗겨냈다.

김 보살이 비둘기와 인연을 맺은 것은 5년전. 마음이 산란해 '산책이나 할까' 하고 뒷동산 팔각정에 오르면서부터 시작됐다. "비둘기들은 어린아이가 먹다버린 과자 부스러기를 향해 떼지어 날아들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조그만 모이를 놓고 저렇게 아귀다툼을 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후부터 좁쌀, 잔밥 등을 한 움큼씩 챙겨 팔각정에 오르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날, 다리에 실이 얽혀 뒤뚱거리



며 간신히 모이를 쪼아먹는 비둘기를 목격했다. 그 순간 김보살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울화가 치밀었다. "누가 저런 못된 짓을…" 그러나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그러한 비둘기가 한마리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발가락 속으로 실이 파고들어 피를 흘리는 비둘기, 발가락과 발목이 잘려진 비둘기, 심지어는 한쪽 발이 없는 비둘기까지 수두룩했다. 마치 자기 자식의 발에 실이 묶여 있는 것처럼 가슴이 저며왔다. 김보살은 '비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작은 서원을 세웠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둘기 엄마가 되어 다리에 감긴 실을 풀어주기 시작한 것이다.

한올 한올 비둘기 발가락에 얽혀 있는 실을 풀어줄 때마다 김보살은 "다시는 실이 많은 쓰레기장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나무에 앉을 때도 연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자식에게 말하듯 타이른다.

〈김중근기자〉

새로운 재테크로 각광 받는 불교신협예금
신협의 예금 전액 정부가 보장합니다.
확정 수익률! 1개월 연 20.0%
비과세 (세금 감안시 25.13% 효과)
동자님을 위한 은행— 부산불교신용협동조합
⊙상담전화 : 051)633-9120
법성동 지하철 현대백화점 맞은편 2층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4-20

문화사적 가치와 미술사적 가치가 하나로!



'97 문화유산의 해 기념

국보 제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한국전통미술의 백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이진형선생이 재현하여 문화재 가치의 작품으로 소장 보급합니다.





· 재질 : 청동 100%
· 종류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높이 : 大(40.5cm)

■ 보급문의 : 현대불교 (02)732-1522, 737-8881

한국전통미술의 백미를 현대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사 설

신도교육 성공하려면

한국불교 최대종단인 조계종이 98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 한해를 신도교육의 해로 선포했다.

사실 우리 불교계는 이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도들에 대한 교육이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념이 생명인 집단이 교육을 소홀히 할 때 그 집단은 자기 동일성이 형성될 수 없으니 자연 구심력을 상실하게 되고 만다. 따라서 종단의 발전을 위해서나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서 신도 교육은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불사의 1차적 의미는 교육을 통해 신도들을 불교 사상으로 정신무장을 해나가는 의식화 작업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 교계에서는 불사의 1차적 의미가 불상을 조성하고 건물을 짓는 외형적 불사로만 치중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전도현상은 어느 종단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본다.

조계종이 지금까지 신도 교육의 필요성을 천명해 왔었고 종법 등에도 신도 교육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근본원인은 무엇인지 신도교육의 해 설정과 사업진행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야할 사항이다. 특히 그 까닭이 교육의 목표와 방향설정에 차질이 있었던 때문은 아닌지 차제에 다시 한번 냉철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불교는 1천만명의 불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1천만명의 불자는 어느 특정 종단에 속한 불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불교계 모든 종단에 소속된 종도 모두를 말한다.

따라서 어느 종단에서 신도교육을 계획할 때는 자기 종단에 속한 종도에 대한 교육이지 전 불교계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약 1천만 불자가 모두 내 종단에 소속한 신도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종단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신도 교육의 목표는 1차적으로는 비불자나 유사불자를 의식화된 불자로 만드는 불교세의 확산이요, 2차적으로는 그들을 내가 속한 종단의 종지를 받드는 종도로 확보하는 작업이라고 본다.

만약 종단에서 시행되는 신도교육이 종지의 선양이란 핵심을 간과한다면 그런 신도 교육은 알맹이가 없는 교육이라 할 것이니 교육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종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난맥상은 종지를 선양하는데 집중되지 않고 전불교를 커버하려는 듯한 방향설정의 오류에서 빚어지지는 않았는지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조계종은 통합종단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것은 과거 정화의 와중을 수습하는 행정적인 문제이지 종지마저 통합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종단의 신도교육은 자종의 종지를 선양하려 할 때 종도들로서의 정체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종지의 교육은 수행 체계에 대한 교육이라 볼 때 과연 조계종이 그 점에 대해서 통일된 입장이 있는가를 돌아볼 일이다. 이제 종단의 신도교육이 성공을 거두자면 교육의 일차적인 주체인 승가 구성원이 교학에 대한 통일적 인식과 수행 체계에 대한 종단적 입지가 먼저 정립되지 않으면 안되리라 본다.

신도교육이 단순한 이론강의에 머물러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 부처님의 바른 법이 삶의 쓰름을 이기게 하는 생활속의 지혜로 다시 피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자들에게 다가가는 신도교육이 되도록 방향설정을 해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한국불교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신도교육의 해가 되길 기대한다.

"통일 기틀마련에 힘 보태자"

조계종·진각종 올 종무계획 발표

北 사찰복원 기초위 구성키로 [조계종]

통일이후 대비 매년 2억 조성 [진각종]

조계종과 진각종이 '통일기금 조성' 등 통일을 대비한 각종 사업을 골칠 계획이다.

조계종과 진각종은 13일과 14일 각각 발표한 금년 종무계획을 통해 통일을 대비한 종책을 발표해 주목 받았다. 두 종단의 통일대비 사업은 △통일 기금조성 △북한사찰복원 기초위원회 조직 △북한동포돕기운동의 지속화등으로 요약된다.

조계종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기금과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모금법회 등을 통해 조성되는 기금 중 일부를 통일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현재 운영중인 북녘동포돕기 불교추진위원회를 종단의 장기적 통일운동 체로 확대 개편, 통일운동과 북녘동포돕기, 북방포교의 거점조직으로 삼는다는 것이 조계종의 방침이다. 북한사찰복원을 위한 기초위원회를 조직해 북한지역의 전통사찰 현황을 파악하고 통일후 복원사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조계종의 대북종책중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와관련 조계종은 구호사업과 북지사업등을 매개로 북한불교와의 교류 활성화를 꾀하고 점차 남북교차 성지순례, 사찰복원지원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체적 방안을 세워두고 있다.

진각종은 올해부터 매년 2억원 규모의 통일 기금을 종단예산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매년 적립되는 통일기금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포교와 불사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

북한지역에 국수공장을 건립키로 하는등 북한지역 포교사업에 박차를 가해 온 진각종은 통일기금 조성과는 별개로 북동포돕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 대북포교의 기틀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IMF 체제 속에서 종단 살림을 긴축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 아래서 마련된 두 종단의 통일대비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북동포돕기 운동의 활성화와 통일 이후의 전법을 위한 장기적 포석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교계의 여론이다.

〈임연태·한명우 기자〉



◇경승과 경찰등 5백여명이 모여 나라 안정을 위한 기원법회를 열었다.

"나라와 시민 안정"

서울경승단 15일 법회

서울지방경찰청경승실(실장 동광)은 1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기내식당에서 5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와 시민의 안정을 위한 서울경승단 기원대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는 동광스님의 개회사에 이어 대한불교경승단 총재 월주스님의 법어, 노원경찰서경승실장 혜자스님의 기원문 봉청, 감사패(김진흥 서울경찰청 운영위원, 북부경찰서 신재열경승법사 등이 수상) 전달, 서울지방경찰청 이필우 청장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

월주스님은 법어에서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실천, 경제난국을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불교방송 사장에 성낙승씨

20일 취임…예산 등 운영공개 의지 밝혀



불교방송 신임사장에 성낙승씨(국제방송교류재단 이사장)가 선임, 20일 오전10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취임한다.

성이사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교방송의 안정과 진정한 종교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사장은 "경리예산문제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분기별 내지는 2개월에 한번씩 이사회에 재정상태와 운영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불자기업체 종립학교 신행단체 사찰 불교언론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등 불교세력 구축을 위해 발로 뛰는 사장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약 력

- 35년 청넝생
- 고대 법학과 졸
- 61~85 문공부
- 88~90 종무실장
- 90~93 공보처 기획관리실장
- 93~96 프레스센터·한국방송개발원·문예진흥원 이사
- 93~96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 현재 동국대 교수
- 한국국제방송교류재단이사장

불교대학 '법사' 명칭 "논란"

조계종, 등록취소 통보…법사대학, 등록증 반납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이 '법사' 명칭을 사용한 불교대학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했다. 이에따라 재가자에 대한 법사호칭 부여에 대한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포교원은 12일 회의를 열어 한국불교법사대학(대표 지일)이 '법사' 칭호를 사용해 신입생모집 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 '법사' 명칭을 사용치 말 것을 2~3차례 시정권고하되 시정되지 않을시 등록을 취소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한국불교법사대학측에 통보했다.

포교원은 등록취소 이유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한국불교법사대학'이라는 명칭 사용 △포교원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법사 품수와 '법사증'을 수여하며 △포교원 및 사찰 개원시 적극 지원을 밝히고 있어 신행상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법대학측은 "재가와 출가가 동등하게 불교지도자로서 포교활동을 하는 것이며, "명칭을 문제삼아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재가지도자 양성을 뒷받침해야 할 포교원의 설립취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14일 등록증을 반납했다.

법사 칭호와 관련, 승가에서는 스님들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이라며 재가포교사들을 법사로 부르는 일반적인 관행에 대해 마땅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이면 승속을 막론하고 법사가 될 수 있다는 경전적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본보 127호 참조> 〈운〉

조계종토지 5백만여평 증가

5년새…재무부 전통사찰 466곳 조사

지난 93년 이후 5년간 조계종 소속 사찰토지가 5백8만여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가 지난해 4월부터 전국 4백66개(전체의 34%)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재무부에 따르면 조사대상 4백66개 사찰중 235개 사찰에서 2천3백78필지 약 1천여만평의 토지가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관리미비로 유실된 토지가 적지않아 1백54개 사찰의 1천5백28필지 4백92만여평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은 내무부 지적전산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찰토지 소유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포교원에 사과

시카고지국 종교편향건

중앙일보사는 조계종포교원이 보낸 '중앙일보사 종교편향 사례에 대한 해명요구' 공문과 관련〈본보 14일자 23면〉, 12일 포교원에 사과의 뜻을 표하고 "이후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으며, 시카고지국장이 불타사주지 정묘스님을 방문해 사과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평불협 美동부지부 추진

北국수공장 운영금 모금

평불협 미주본부(회장 도안스님)는 9일 LA 관음사 내 한국불교문화원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뉴욕, 워싱턴, 시카고 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동부지부를 결성키로 했다.

보스톤 문수사 주지 도봉스님을 주축으로 3월말 발족 예정인 평불협 동부지부는 각 사찰과 교민들을 중심으로 금강국수공장 운영에 필요한 성금모금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법타스님은 "국수공장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대도시가 밀집해 있는 미국 동부지역의 지부를 시작으로 점차 지부결성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사찰 860곳

문체부, 97년 현황발표

경북지역 162곳 '최다'

97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사찰은 8백60개소이며 이중 8백37개소가 문체부에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문체부가 95년이후 전통사찰 지정 변동사항을 정리해 발간한 〈전통사찰현황〉에서 밝혀졌다.

〈전통사찰현황〉에 따르면 지정된 8백60개소의 전통사찰 중 미등록된 곳은 서울 봉원사 등 23개소. 대개 사찰분규나 해당 사찰의 사정에 따라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북이 가장 많은 1백62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북 1백2개소·경기 89개소·경남 87개소·전남 80개소·충북 79개소·충남 76개소·서울 55개소·강원 42개소 순.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부처님 마음도

대법원의 해인골프장 사업승인취소 처분 기각판결에 대한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모임의 입장

"해인골프장 건설은 민족의 성지 가야산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반문화적 반환경적 처사입니다."

팔만대장경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 모든 인류가 소중히 지키고 보존해 나가야 할 보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만대장경이 소장돼 있는 가야산 해인사 옆에 '해인'이라는 이름의 골프장이 건설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막힌 일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판결을 내려 뜻있는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대장경판이 8백여년간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장경각 주변의 기후, 온도, 습도, 통풍 등에 있어서 천연적인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인근에 48만평이라는 엄청난 면적의 골프장이 건설된다면 장경각 주변의 천연적인 기후 및 자연조건은 변화가 불가피하고 대장경판의 보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입니다.

가야산은 정부가 국민들이 영속적으로 자연의 혜택을 누리도록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특별히 보존하기로 지정을 한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 및 역사적 대상물과 그 안의 야생생물을 보전하고 현 세대의 국민들에게 자연의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자연경관을 훼손됨없이 물려주기 위한 생명의 최후 보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 모두를 위한 국립공원이 소수 특권층의 유락을 위한 골프장으로 훼손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골프장 건설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살생행위에 다름아닙니다. 가야산국립공원 해발 6백미터 고지대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보수력이 약화되어 비가 많이 올 경우 산사태 및 대형 홍수가 예상되며, 가야산 계곡의 물줄기도 상수원인 '노리저수지'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 집수구역이기 때문에 연간 75톤의 농약살포로 인한 상수원 오염 및 농업용수의 고갈을 초래해 마을공동체를 파괴할 것입니다.

해인골프장이 완공될 경우 인근에 온갖 위락시설이 들어설 것이 확실시 되어 해인사 및 가야산 국립공원의 수행 및 자연환경은 극도로 파괴될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해인골프장 백지화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유세당시 공약으로 약속을 했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따라서 해인골프장 건설을 막을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과 민족의 성지요, 휴식공간인 해인사와 가야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또 건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들은 해인골프장 건설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의 저지에 앞장서고 있는 해인사 대중스님을 비롯 가야산국립공원해인골프장건설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74개 환경·시민운동관련단체에 대한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1998년 1월 14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모임

1월 14일 대흥사 주관 본사주지모임 결의사항

1.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사주지모임은 해인골프장 백지화를 위해 노력을 하는 가야산국립공원해인골프장건설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해인골프장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성명서 별도 첨부)

2. 경제난국 타개 및 실직자 위안을 위한 기도를 봉행하고, 근검절약과 금모으기 운동, 자원재활용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또 정부는 실직자 구제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기업은 최대한 노동자의 해고를 억제하며, 국민은 난국타개를 위한 고통분담을 기꺼이 수용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실직자 가정을 방문, 위로법회를 봉행하고 직장알선에 최선을 다한다.

3. 북한 사리원에 세워지는 금강국수공장에 대한 범종단적 지원을 촉구하며 이에대한 본사주지모임 차원의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순불자들의 안정된 생활정착에 본사주지들이 힘을 모은다.

4. IMF한파에 따라 각 사찰의 재정이 극심히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나치게 비대한 총무원등 중앙종무기관의 기구축소를 집행부에 촉구 건의한다.

신도교육의 해… 바른신행 기대

조계종 올 중점사업은 무엇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범위 확대키로

'불교 21세기委' 구성 등 중장기계획 수립

조계종은 '전법의 해' 2년차인 올해를 신도교육의 해로 선포하고 신행의 질적 향상을 주도키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3일 5대 기조 5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금년 종무계획을 밝히며 신도교육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월주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통일된 신도 교육교재를 발간하고 지역 연합 교육기관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며 "단위 사찰별로도 신도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계종이 신도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종단 차원에서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간 종단 교육불사가 승가교육에 집중되어 있던 점에 비해 상당히 발전적인 종책 제시란 평을 받고 있다. 조계종의 신도교육사업전개는 신도재적사찰갖기운동의 지속화와 함께 신행의 새로운 모범 제시로 자리잡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도교육의 해와 관련 조계종 포교원은 보다 세부적인 지침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조만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올해 종단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망을 담은 종단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21세기를 향한 종단의 진로를 확립하는데 종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앙에 '불교21세기위원회'를 상설 기관으로 구성, 종단 행정의 체계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새로운 불교문화 창달을 위한 종단적 노력도 계속 될 전망이다. 사진영상의 해 관련사업도 불교전통문화의 부각에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이와함께 사찰환경 보존을 위한 종단적 노력은 사찰환경 보존관련 입법활동을 통한 제도적인 장치 확보로 풀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도 범위를 확대, 중앙본부의 구성과 지역별 계층별 조직체계를 다지며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영농법인 설립과 대안학교 설립,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불교적 동참, 사회복지 시설의 수탁 운영, 해외 사찰및 포교당의 실질적 관리와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등도 조계종의 위상제고와 대사회적 역할 강화 사업으로 주목 된다.

임연태 기자

◇조계종 '98 주요종무계획

종책기조	세부사항
종단비전제시 및 종무행정체계화	종단발전 5개년 계획수립, 불교21세기 위원회구성, 종무행정 민원안내책자발간, 본말사종무행정 프로그램개발, 종단 문장개발, 불교종합회관건립, 사찰부동산 환용방안 모색
포교전법활동강화와 신도교육체계화립	신도교육의해 선포, 포교사조직설립, 포교지침서 배포, 군포교활성화방안모색, 신행체계화 연구사업전개, 관광사찰포교사업 모색.
승풍진작과 승가교육 내실화	수계산림교재불임, 행지교육강화, 기본교육기관평가, 교육지도자회의 개최, 선원총람 발간, 화엄경현담 발간.
전통문화계승 및 새로운 불교문화창달	사지현황조사, 미륵사 황룡사지 복원, 성보보존관련법개정, 정부 문화예산 증액교섭, 무형문화재 실태조사, 민족문화교육 교과목 반영, 사진영상의 해 기념 사업, 불교방송지방망 확충.
풍원시대 대비및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지역불교환경회의 개최, 사찰환경 피해사례집 발간, 공원입장료폐지 추진, 깨사중앙본부 구성, 연번사무소 개설, 북한사찰복원 기초위원회 구성, 불일기금조성사업, 생활협동운동 전개, 경제위기극복방안실천, 국제교류활성화.

승가대 매년미달 '위상 흔들'

사미(니)들 동국대 · 강원등 선호

종단 의무교육기관 지정 '해결책'

중앙승가대가 96년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한 이후 또다시 미달사태를 빚음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91년 4년제 대학학력을 인정받는 각종학교로 인가받은 이래 계속된 미달사태는 승가교육의 중심도량을 표방했던 조계종단의 교육지표는 물론 자칫 중앙승가대의 위상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중앙승가대에는 각 30명정원인 4개학과에 불교 21명·역경 6명·포교사회 14명·사회복지 30명이 지원해 3개학과가 정원을 크게 밀돌았다.

이처럼 미달사태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조계종 교육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이다. 강원, 동국대 등과 함께 종단기본교육기관으로 돼있어 굳이 중앙승가대를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틀'의 문제만이 아닌 은사스님들의 강원선호경향, 중앙승가대 위상, 인원수급, 학비부담 등 복합적인 문제와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책을 쉽게 제시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중앙승가대의 신입생 유치와 학과 홍보에 따른 노력부족, 학문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학부과정으로는 부적절한 역경학과 설치, 건실한 학풍 결여, 상대적으로 동국대보다 낮은 위상 등 원인은 한 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원 교육부장 향적스님은 미달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육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이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이며, 우선 대학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과 은사스님들의 인식전환 등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수요 인터뷰

국제정보대학원 · 전자불전硏 개원

동국대 송석구 총장

"역동적인 대학 만들어야죠"

5월 일산캠퍼스 착공

21세기 정보화 주역 양성

작년 3.4대1에 비해 올해 6.65대1로 두 배가까이 늘어난 입시경쟁률. 96,97년 연속 교육부 교육개혁 추진 최우수대학 선정. 97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 선정. 여기에 국내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정보보호 및 국제해양정책의 전문가를 양성할 국제정보대학원 3월 개원.

동국대가 바뀌고 있다. 타대학과의 차별화, 특성화를 통해 이뤄낸 성과와 일산캠퍼스 건립 등 앞으로 진행될 '동국비전'에 대해 송석구 총장에게 들었다.

- 동국대가 변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95년 취임이래 '확 바뀌지 않으면 주저앉고 만다'고 끊임없이 강조해왔습니다. 학생들이 동국대를 선호하고, 세계속의 대학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백여년 가까이 이어온 역사위에 전혀다른 문화의 분위기를 접목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국대는 변했고 앞으로도 더욱 변할 것입니다. 불교건학이념의 정신적 바탕위에 발로 뛰는 역동적인 대학, 그것이 바로 오늘의 동국대라고 자부합니다.

- 국제정보대학원의 특성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설립취지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대변되는 21세기의 주역양성입니다. 이는 '참사람 열린 교육'을 모토로 한 동국대의 교육개혁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국제정보대학원은 석사과정의 국제해양정책학, 정보보호학, 국제관계학등 3개 학과로 구성됩니다. 국내 발전이 더딘 해양과 국제협상등의 전문가를 집중 육성하게 되며, IMF구제금융을 계기로 국제화 전문인력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해진 만큼 기대가 큽니다. 대학이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배출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 올해에도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5월중에 일산에 제3캠퍼스 건립을 위한 공사에 착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캠퍼스 건립이 아닌 이공관련대학을 통합한 '테크노 파크'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방과 양방을 통합한 협진체제의 1천병상 규모 불교종합병원도 들어서게 됩니다. 또 연극과 영상분야도 전문화하고 양질의 교육을 위한 훌륭한 교수초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3월에 개원하게 될 전자불전연구소(가칭)는 한국불교의 모든 정보를 전자문서화해 국내·외에 제공, 새로운 포교기지를 건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개인적인 계획이 있으실텐데요

▲남은 임기 1년여동안 중단없는 교육개혁을 통해 동국대를 세계속의 대학으로 만드는 것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동국대가 바뀌는 것은 곧 제가 바뀌고 발전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다만 3년동안 일에만 매달리다보니 수행할 여유가 없었는데 올해는 건강과 불법수행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우 기자

목어

돈쓰는 법

나라안이 뒤숭숭하다.

대담하게 천정을 뚫고 들어가 은행 금고와 금은방을 턴 도둑이 있는가하면 6개월된 아들 분유값을 마련하려고 고물상 물건을 훔치다 구속된 좀도둑도 생겼다. 은행빚에 쪼들린 어느회사 대리는 부잣집을 털려고 압구정동 H·O·파트를 오르내리다 붙잡혔다.

"죽어가는 중소기업이 통곡합니다."

어느 시계회사 직원들은 봇짐장사를 해서라도 회사를 살리겠다고 거리로 나섰다.

가슴아프고 눈물겨운 사건들이 연일 꼬리를 물고, 한편에선 나라를 살리려는 서민들의 '금모으기' 줄이 이어지고 있다.

나라가 위기를 맞게되니 국민은 애국심을 일으켜 나라사랑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그런데 부자들은 꿈쩍도 안하고 있다.

서울시내 각 구청의 '금모으기 운동'에 부자동네인 서초·강남·송파구는 미온적이고, 구로·동대문·영등포구등 서민층이 주로사는 지역은 참여열기가 높게 나타났다. IMF 한파속에 서민층은 휘청거리는 허리를 부여잡으면서 나라사랑 대열에 서고있다. 가진자들은 예금이자율 높아 좋고, 골프장·스키장 붐비지 않아 좋아한다니 한심하기만 하다.

IMF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자들이 나라 걱정을 뒤로하고 서민들의 생활고를 먼산 바라보듯하면 결국 빈부차로인한 계층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민화합은 커녕 부자들을 노리는 크고 작은 도둑이 자꾸 늘어나 사회는 불안해 질 것이다.

"가진 사람들이 먼저 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종교지도자들이 14일 김차기대통령에게 요청한 말이다.

옛날 재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한 장자가 있었다. 그 집은 대대로 재산을 상속해 오듯 선행도 대를 이어 멀리까지 명성이 자자했다. 그 장자는 재산을 넷으로 나누었다. 한 부분의 재산으로는 이자를 늘려 가업을 유족하게 했고 한부분으로는 일용품을 공급했다.

다른 한 부분은 고아와 의지할 곳 없는 노인에게 주어 복을 닦았다. 남은 한 부분으로는 친척과 나그네를 구제했다. 〈心地觀經〉

요즘같은때 가진사람들이 배워야 할 돈 쓰는 법이다.

파라미타 "회장중심 체제로"

비효율적 의사결정 개선 '재도약'

설치령 · 산하단체 규정법등 추진

파라미타 청소년협회(회장 현근, 조계사 주지)가 거듭난다. 파라미타는 12일 총재 성타스님, 회장 현근스님, 사무총장 성수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회장중심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새 출발했다. 조계종 포교원 전결 업무처리 방식에서 회장 책임중심체제로 전환하면서 그등안 지적돼 왔던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와 승가일색의 임원진, 회장·이사가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기형적 구조개선을 모색, 명실상부한 청소년단체로서 제2의 도약기를 마련한 것이다. 포교원은 이에따라 파라미타의 서면보고에 대한 검토와 감사기능만을 갖게 됐다. 또 포교원-파라미타간의 관계 정립을 위해 파라미타 설치령과 산하단체 관련 규정법 등을 통해 법적 기구화 한다는 복안이다.

96년 조계종단의 열망을 한몸에 안고 출범한 파라미타는 조직운영과 이를 둘러싼 재정의 취약성 등의 이유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2년여 동안 불교청소년의 전국조직망 구성을 지향했던 파라미타가 6백30개의 불교학생회와 3만명의 불교청소년 중 4개의 지부와 지회, 180개 분회 1만명의 청소년을 확보하는데 그친 점과 31명의 이사 중 96년 7명, 97년 5명만이 회비를 납부한 점 등은 그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계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갔고, 진화위복의 결단을 필요로 했다. 이 과정에서 총재 성타스님이 지난해 교또에서 열린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서 회장 현근스님에게 회장 중심체제로 구조조정을 간곡하게 권유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2(구 공인회계사 건물)로 사무실을 확장이전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한 현근스님은 "그동안 파라미타는 기획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궤도 정착을 못했을 뿐"이라며 "이사진의 폭넓은 영입과 적극적인 참여유도, 포교원과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으로 진일보하는 청소년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교화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적절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명실공히 불교계를 대표하는 청소년단체로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필〉

1998학년도 東邦佛教大學 신입생 모집요강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 있는 불자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 모집 과정 및 학과

가. 대학과정
1) 불교학과 (정규 및 통신생) : 00명(편입생 약간명)
2) 범패과 : 00명
3) 불교미술과 : 00명

나. 관리자과정 : 00명

● 응시자격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가. 대학과정
1) 신입생
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강원 사교과 이상의 구료자
다)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2) 2·3학년 편입생(기존의 과정이 4년제이므로 편입 가능)
가) 본 대학 2년 수료자 나) 강원 대교과 수료자
다) 정규대학 졸업자 라)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나. 관리자과정
1) 교임 및 사찰 관리인, 승력 권속 및 신도회 간부
2)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기타 자격이 인정되는 자

● 전형방법

가. 대학과정 :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나. 관리자과정 : 서류심사 및 면접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8년 1월 19일(月) ~ 2월 20일(金)
(평일은 10:00 ~17:00, 토요일은 12:00까지, 공휴일 휴무)

● 전형일자

: 1998년 2월 22일(日) 10:00~17:00

● 제출서류

가. 대학과정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4)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7) 반명함판 사진 6매

나. 관리자 과정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6매 포함)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자지증명서 1부

● 전 형 료 : ₩30,000 (불교 미술과는 ₩40,000)

● 참고사항

가. 본 대학 이수자는 태고종단 포교사자격증을 수여하고 태고종단 승려에겐 법계(2년제는 대선, 4년제는 중덕)를 품수케 함.
나. 강의시간
1) 대학과정은 주로 오후 1시~5시 사이이나, 전공과목은 오전(불교미술과)과 야간(범패과)에 개설함
2) 관리자과정은 매주 월·화요일 오후 5시~8시 30분 사이에 강의함
다. 기숙사 운영 (지방학생 문의 바람)
라. 제출서류 가운데 승적 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해도 됨
마. 편입생 응시자는 수학 경력에 따라 2·3학년에 편입토록 함
바. 통신생은 월 1회(1박 2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학처로 문의하기 바람

●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본 대학 교학처(☎ 763-0229, 8536)
나. 태고종 총무원 (☎ 745-2030~2)
다. 태고종단 각 교구 종무원
라. 경서원 (☎ 733-3345)

東邦佛教大學 (우:136-022) 서울 성북구 성북2동 292-1 전화 : 763-0229, 763-8536

"南美 포교할 스님 어디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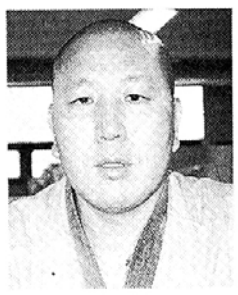
해외포교사 찾는 브라질 진각사 정오 스님

"남미불교 포교에 원력있는 스님이나 법사님 어디 없습니까?"

95년부터 남미지역 포교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오스님(브라질 진각사 주지)이 지난해 말 한국을 방문, 해외포교에 관심있는 스님과 법사들을 수소문하다 지쳐 9일 본사를 찾았다.

스님은 "출국일은 다가오는데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등 지도자가 없어 비어있는 절을 생각하니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포교할 대상이 뻔히 있으면서도 스님이 없어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죠"라며 "스님과 법사들이 해외포교에 관심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스님은 날로 늘어나는 신도와 브라질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지난해 말 대웅전 공사를 시작해 오는 4월 완공할 예정이다.



브라질 진각사 RUA SAO DANIAL 14-CEP: 04288 VELA ☎273-8487

도필선 기자

"南北불교 교류확대 보람"

美서 7년만에 귀국 진각종 지현정사

"돌아오자마자 이달말 인카방을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직을 맡게됐습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 아쉽긴 하지만 종단의 중요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진각종이 최초로 개설한 해외포교당인 미국 L.A 불광심인당의 주교로 90년 미국에 건너간지 7년반만인 지난해 11월 종단으로 돌아온 지현정사(41)는 복지법인 활동을 통해 종단교세의 사회화를 이루기 위한 구상으로 지난 7년 못지않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종단 해외포교의 기틀을 다지고 평불협 미주본부 활동을 통한 북한불교와의 교류를 확대했다는 것이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또 교포사회에서 종단의 이미지를 높였다는 점도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외포교에 대한 내실을 충실히 다지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큽니다.

진각종 불광심인당 주교보다는 미주 평불협 상임부회장으로 교계에 알려져 있을 정도로 남북불교교류에 많은 역할을 해 온 지현정사는 95년 북경 남북불교지도자 회동을 성사시키는데 일등공신의 역할을 해냈다. 또 미주불교방송 개국의 산파역할과 우리민족서로돕기 L.A본부 공동대표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한국불교의 위상을 한층 높이기도 했다.

"복지법인 일 외에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문학작품활동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또 종조일대기도 내용을 수정·보완해 완성할 계획입니다. 물론 평불협 활동은 아직까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할 생각이고요."

한명우 기자



교차로

평통자문위장 표창 받아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은 13일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민족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유공자문위원 의장묘창 전수식에서 평화통일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명동성당서 특별강연



법정 맑고 향기롭게모임 회주스님은 2월 24일 명동성당에서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구랍 14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 개원법회에 김수환추기경이 참석, 축사를 해준데 대한 보답이다.

예비역 군법사회장에



성광 조계종 사서실장(화계사 부주지)스님은 5일 예비역 군법사회 회장에 선임됐다.

'석왕사 가족의 밤' 행사



영담 석왕사 주지는 10일 부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설맞이 석왕사 가족의 밤' 행사를 펼쳤다.

나라와 구민위한 대법회



동광 강북구 불교협의회장스님(도선사 주지)은 17일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나라와 구민을 위한 신년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호국원광사 신년하례회



이협우 호국원광사 주지법사는 11일 국방부 원광사에서 신년하례법회 및 도량 현관 제막식을 봉행했다.

제주 정무부지사에

김승석 前 한라불교신문 사장(변호사)은 1일 제3대 제주도 정무부지사에 임명됐다.

청주불교단체협 신년하례

김현배 청주불교단체협의회장은 10일 청주불교방송국 10층 강당에서 신년하례식을 봉행했다.

MBC드라마 '6남매' 출연



장미희씨(영화배우)는 2월 4일부터 방영되는 MBC드라마 '6남매'에 출연, 여섯아이를 키우는 홀어머니역을 맡아 지혜롭고 강인한 여성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 취임



구윤회 동국대 불교대학원 제4대 총동창회장은 20일 오후7시 동국대 학술문화관 그릴에서 취임법회를 가졌다.

제13회 '선미술상' 수상

임효씨(한국화가)는 선화랑이 정하는 제13회 선미술상 수상작가로 선정됐다.

동국대서 석사학위 받아



신진욱 진흥원 불교문화센터 법사는 '불교방송 청취자의 수용자 특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한 논문으로 동국대 정보산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는다.



어린이법회 지도 이남숙씨

원력 있는 불자

"어린이법우 여러분! 오늘은 〈한글 천수경〉을 우리 다함께 끝까지 독송합시다. 조금 길지만 부처님 생각하면서 하면 할 수 있지요?" "네-에-!"

고운 고사리손을 합장한 어린이불자들의 모습에 자못 흐뭇해 하며 이남숙씨(46)는 손수 목탁을 들고 의식을 집전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상계동 사천왕사에서 꽃누리어린이법회를 지도해 온 지 올해로 6년째. 대부분 대학생들이 맡는 어린이지도교사자리를 주부가 맡아 이처럼 오래 지도해 온 것은 무척 드문일로 웬만한 원력이 없이는 힘들다.

"거창하지만 나자신을 포함해 우리가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현실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구제를 부처님전에 서원했습니다. 어린이법회지도는 그 시작에 불과하지만 사다리를 오르는 것처럼 하나하나 올라갈 생각입니다"

"미래의 부처님 육성에 보람"

거울보며 율동연습 · 레크리에이션도 만능

이씨는 처음 어린이법회를 시작했을때만 해도 의욕만 넘치고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무척이나 힘들었다. 그래서 법회가 있는 토요일이면 아침부터 찬불가 테이프를 틀어놓고 혼자 거울을 보며 율동연습을 하기도 했고, 2년여간 돈암포교원, 불교교육연구원 등에서 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과정을 마쳤다.

"1주일에 한 번 만나는 아이들의 맑은 눈에서 부처님을 봅니다. 나또한 아이들과 함께 맑아지고, 아이들과 함께 부처님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죠"라고 말하는 이씨.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찰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보다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법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얼마전 100일동안 108장의 탐다라니를 사경하는 연화기도를 행하며 중생구제의 서원을 마음속에 되새겼다는 이남숙씨는 "어린이법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한다.

이은자 기자

"국악 트롯 바람 일으킬터"

가요음반 낸 탤런트 선동혁



"국악인 신영희선생 밑에서 국악을 3년간 사사받았습니다. 국악인이 될까 하다가 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탤런트가 됐죠. 그러다 보니 노래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었습니다."

'용의 눈물'에서 이숙번 역으로 선굵은 남성의 이미지를 보기해온 탤런트 선동혁(42)씨가 트롯트 가요음반을 냈다. 타이틀 곡 '인생'을 비롯 총 8곡을 수록해 홍보용으로 먼저 나온 이 음반은 시중에도 곧 출시돼 일반인들도 들을 수 있게 된다. IMF한파에 어려움을 겪는 한 중년 남자의 비탄어린 인생회상이 줄거리인 '인생'은 정통 트롯가 아닌 국악적 창법을 도입해 신토불이 트롯의 향기를 풍긴다. '내 고향길'은 선씨가 직접 작사까지 했다.

선동혁씨는 "앞으로 2집을 낼 기회가 있다면 불교범패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백제가요 신라향가 등에서 보여진 가사들을 현대적 음악으로 재접목시킨 음반을 내고 싶습니다"며 포부를 밝혔다.

강지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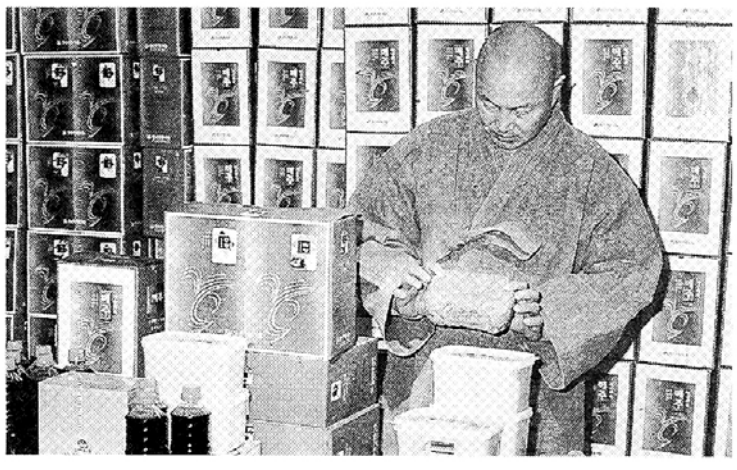
"내실있는 신행추구"

진각종 청년회장 선상신씨



지난해 말 총회에서 진각종 청년회 제22대 회장에 선출된 선상신씨(39, 불교방송 보도국 기자)는 연령상 올해가 청년회원으로서는 마지막인데 회장까지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별한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회원들의 신심을 고양시켜 충실한 신앙생활의 내실을 꾀하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우〉



Focus

겨레의 맛 토종된장 '불티'

전통된장이 안방을 두드리고 있다. 대구 예술마당 솔이 16일부터 21일까지 '우리전통음식 된장전'이라는 이색전시회를 열고 있는 것.

이 된장은 돈연스님과 '메주와 첼로리스트' 저자 도완녀씨가 강원도 정선의 해발 7백m고지 두타초암에서 만든 것. 우리콩으로 만든 메주와 맑은 계곡물로 담은 무공해 식품이다. "태아를 키우는 마음으로 만든다"며 자랑하는 이 된장은 옹기독속에서 첼로음을 들으며 숙성된다. 한편 조계사, 봉은사, 석왕사 등 도심포교당을 중심으로 시판되고 있는 메주는 IMF 한파에도 불구하고 우리것을 살리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이윤호 기자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재해지를 응원하는 히타모임 1,183,933원 △정토포교원 승만회 1,000,000원 △마산 정인사 354,000원 △연꽃마을 간병인회 200,000원 △김묘길 200,000원 △김석순 121,000원 △유성현 100,000원 △김지숙 50,000원 △조정숙 50,000원 △유수스님 50,000원 △네팔인 불자 바바라 40,000원 △이동석 40,000원 △윤남용 40,000원 △방명금 40,000원 △임효정 40,000원 △이은화 32,000원 △양애련 30,000원 △이상수 30,000원 △한 주 한끼굶기 864,000원 〈1월14일 현재 총 901,184,929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佛國寺 僧伽大學(舊 講院) 同門스님들께 알립니다

三寶에 歸依하옵고

제방의 수행도량에서 求道者의 길을 가시는 스님네와 포교의 일선에서 衆生과 아픔을 같이 나누시는 스님네들께 그동안의 수행에 祝願드립니다.

어느덧 불국사 승가대학도 짧으나마 20여년의 역사가 지났으며,또 150여분의 履歷宗匠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오나 서로 연락도 안되고 어려울때는 의지도 할수 없는 현실에 몇몇 동문스님들의 發願으로 모임을 갖고자합니다. 冬安居 解制를 하신후 훌훌 털으시고 따스한 봄날 先後輩 동문의 훈훈한 法談을 나누시지 않으시렵니까?

불국사 승가대학 동문스님들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1차 연락을 꼭 주시길 바랍니다.

불기 2542년 1월 일

—아 래—

연락처 : 불국사(경주) 정견스님 ☎0561-746-9912
불국사(경주) 성형스님 ☎0561-746-9913
오어사(포항) 학나스님 ☎ 0562-92-2083
칠보사(대구) 무상스님 ☎ 053-963-8975
대광사(진해) 지상스님 ☎0553-545-9597
수도사(영천) 하종스님 ☎ 0563-37-0730
노적사(서울) 종무소 ☎ 02-353-5016

불국사승가대학동문발기모임 합 장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모집

■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 ■야간 ■통신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 포교사(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한민족 불교진흥회 스님, 단체추천자.
	4년	■통신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 ■통신		
중국어과	2년	■주간 ■야간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동양화 (禪畵)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통신		
동양 풍수과	2년	■야간		

■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 야간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 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 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보교체결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취득
98 2 제 7회 졸업생 배출예정
98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8 2 동양화(선화)과, 동양 풍수과 개설

■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8년 1월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 5. 원서교부및문의처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511-2026~8)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탐방

충북예비역불자련

취업알선등 군불자 후원 '첨병'

'불서보내기' 역점 15만권 결실
군법회·지역불교행사도 지원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려운 불황에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면 전역을 눈앞에 둔 장병들일 것이다. 3년간의 군 복무로 사회적응이 어려운 데다가 IMF사태가 터져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것이 현실.

그런데 이들에게 취업을 상담·알선하고 있는 신행단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다름아닌 군포교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비역불자들 모임인 충북예비역불자연합회(회장 김방일 대동기업사장·54) 회원 120명. 사업가, 상인, 택시운전기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인연 닿는 전역불자들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주선하고 회원으로 가입시켜 포교활성화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김방일 회장은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져 전역불자들의 취업 상담과 알선을 올해 최우선 사업으로 확정했다"면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회원 배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93년 8월 24일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을 증명법사로 창립한 同회는 '군승단의 군불교 포교를 지원하고 지역 불교사업에 동참,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불교이념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다양한 신행을 펼쳐 왔다.

그중 창립과 동시에 시작한 '불서 보내기 운동'은 최대의 중점사업. 이미 경전 및 번역·해설서, 불교소설, 수필 등 불서를 기증받아 군부대(13만권) 교도소·경찰청(6천7백권) 신행단체(5천권) 복지단체(1만권) 등에 15만권 이상을 법보시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최근에는 전 회장인 이단호 사무국장(49)이 편저한 재가불자를 위한 법요집 〈만남〉을 정일스님의 감수로 제작 배포하기도 했다.

이밖에 50여 부대를 대상으로 군민합동법회와 위문을 실시하고, 공군사관학교 졸업법회를 지원하는 한편 피아노·방송시설 등 군법당 시설물을 지원해 왔다. 또 지역 봉축행사와 영규대선사 추모제 등 불교행사에 적극 동참하면서 청주시립양로원등 복지기관을 위문하고, 회원 가족을 대상으로 장학사업도 꾸리고 있다.

하지만 회원들이 한계를 느낄 때도 많다. 대대급 이하군부대에는 텐트로 만든 임시법당마저 없으며, 인근 사찰이나 신행단체가 대부분 사단급 이상 군법사가 있는 곳 위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

매주 수요일 공군사관학교 생도 법회와 일요일 사병법회를 지원하고 있는 이만호 사무국장은 "사병 불자들을 이끌게 되는 위관급이상 불자들의 교육이 중요하므로 각군 사관학교 군법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김재경 기자



◇지난해 정일스님을 증명법사로 육군 특전사령부 호국사자사 큰 법당에서 가진 물서전달식.



한국불교 종단협 신년하례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9일 신년하례회를 갖고 나라살리기 금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회장 월주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불교계가 위기극복의 지혜를 내놓아야 한다"며 금모으기운동에 적극 동참하자고 말했다.

신년하례회에는 인곡(태고종 총무원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스님 등 9개종단 대표 및 임원 29명이 참석했다.



해인사 성보유물전시관 상량

해인사 성보유물전시관 상량식이 12일 낮12시 舊해인초등학교 부지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견 송월 고봉 보광스님(해인사 주지)과 김혁규 경남도지사, 강석정 합천군수, 유을영 합천군의회의장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박물관의 설계를 맡은 아키반 설계사무소(대표 김석철)는 팔만대장경의 내용을 형상화한 백남준씨의 비디오아트를 설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천불교문화' 출판기념법회

이천불교연합회(회장 혜봉)는 13일 이천시민회관에서 '이천불교문화'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영원암주지 정무스님을 비롯 황규선의원, 유승우 이천시장, 심홍택 시의회의장, 이은주 이천문화원장 등 7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연합회장 혜봉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IMF 위기 극복은 경제력과 함께 정신력이 있어야 한다"며 "책 발간을 계기로 불교문화를 더욱 발전시키자"고 당부했다.



광주불교문화대학 제1기 졸업식

광주불교문화대학(학장 영조·증심사주지)은 13일 同대학 강당에서 제1회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윤명수씨(학생회장)를 비롯 41명이 수료했다. 특히 불교문화대학은 올해부터 불교문화대학원을 신설하고 28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불교학과 단일반으로 경전 및 문화과정이 있다. 불교문화대학도 28일까지 제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위기극복' 네티즌불자 한마음

나우불동·하불동 철야기도·저금통 판매

PC통신상의 사이버법당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신세대 네티즌불자들이 나라 경제살리기에 마음을 모으고 있다.

PC통신 불교동호회인 '나우누리 부처님마을'(대표시삽 박춘등) 대구·경북모임(지역장 김은호, ID eureka77)은 17~19일 2박3일간 양양 낙산사, 설악산 신흥사, 오대산 월정사 등을 참배하며 한 해를 설계하고 나라의 위기 극복을 발원하는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부처님마을(ID nowbud)은 또 '나우누리동호회 시삽협의체'와 공동으로 경제살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라 경제를 돕기 위한 저축 장려와 불우한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돼지저금통 판매행사'를 실시한 것. 돼지저금통의 판매가격인 1천원을 온라인(농협, 예금주 홍인철=150043-52-013395)으로 입금하고 동호회별로 저금통을 받게 된다.

하이텔불교동호회(대표시삽 김주서) 서울·경기모임(지역장 변인택·ID bit128)도 17~18일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에서 '새해맞이 철야정진 수련법회'를 개최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마음을 모았다. 17일 오후 7시 기초교리공부와 함께 진행된 법회에서 회원 각자가 근검 절약과 내핍생활을 다짐했으며, 철야 참선정진을 통해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의 의지를 다졌다.

하불동 소속 일부 회원들은 같은 시각 서울 길상사에서 한경혜(ID MO3333ON) 법우가 제안한 '위기 극복을 위한 철야기도 법회'에 동참했다. 〈재〉

불우아동 8명에 자비의 보시

불교사회봉사회 차판매금 7백만원 기탁

IMF한파로 더욱 얼어붙은 요즘, 불우한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이 펼쳐져 훈훈한 화제.

10여년 전부터 소년소녀 가장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심장병·백혈병 어린이 등 불우한 이웃을 조용히 도와온 한국불교사회봉사회(회장 송지연)는 16일 정오 서울 혜화동 원효정사(주지 증원)에서 불우아동돕기 성금전달식을 가졌다. 백혈병 심장병 등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불우아동 8명의 수술비로 전달된 성금은 총7백10만원. 3백여 회원들이 지난해 11월말 실시한 일일찻집 수익금과 도봉산 천축사 차 판매 수익금 등을 모은것.

지난 88년 12월 28일 발족한 불교사회봉사회는 자녀를 둔 주부회원이 대부분이라 서울대병원의 추천을 받아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려운 어린이·청소년을 집중적으로 돕고 있다.

이날 원효정사 신도들이 함께 한 성금 전달식에서 송지연회장(55)은 "그동안 많은 분들의 정성으로 웃음을 잃은 아이들이 병마를 이기고 새 생명을 되찾는 것을 보면서 한마음이 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02)744-3413

◇불교사회봉사회는 16일 백혈병·심장병 어린이 8명에게 7백10만원의 수술비를 전달했다.



"山 오르며 자연보호·수행"

부산불교산악회 새 회장 류동길씨

"산행을 통한 수행과 전법의 단체가 불교산악회입니다. 보다 내실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일 제4대 부산불교산악회 회장으로 취임한 류동길(50)회장의 소감이다. 부산불교교육대학 강당에서 열린 회장 이취임법회는 평소 산행을 통해 모아진 마음들을 반증하듯 회원들의 격려와 축하가 각별한 자리였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에도 한발 한발 같이하고자 하는 다짐이 함께 이루어진 행사였다. 조직의 활성화와 보다 내실있는 활동을 펴나가겠다는 류회장은 "산을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사(山寺)를 찾아 성불의 인연으로 삼고 자연의 귀함을 잊지 않고 살피는 것으로 수행을 삼아 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 모임에션

MBC 불교硏 해인사수련

문화방송불교연구회(회장 유희근)는 17~18일 1박2일간 해인사에서 부산·대구문화방송불교연구회와 합께 처음으로 합동 수련대회를 개최. 17일 저녁예불에 이은 주지 보광스님의 법문과 회원 상견례 겸 간담회, 이튿날 새벽예불과 팔만대장경·백련암 참배 등으로 진행. 원로회의 의장 히암스님과 방장 법전스님도 친견. (02)789-2221

국립의료원법우회 점안식

국립의료원법우회(회장 김복남)는 18일 오후 원내 법당에서 보광사 주지 효림스님을 법주로 부처님(개금) 점안 및 신년법회를 봉행. 이날 법회에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 자비의전화회장 정덕, 법동사회복지관장 도안스님과 자민련 주양자 부총재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 법우회는 이날 신임회장에 황영희 간호감독을 선출했다. (02)265-9131

외환은법우회 금강경 강좌

외환은행불교법우회(회장 이제민)는 21일 오후 7시 본점 강당에서 유마선원장 이제열법사를 초청, '금강경 강좌'를 개설한다. '금강경 사상'을 바탕으로 참선 수련을 곁들여 진행. 교재는 이제열법사가 쓴 〈금강경 대강좌〉(여시아문 刊). (02)729-8713

울산 법륜회 장병위문

울산개인택시법륜회(회장 이종완)는 10일 오전 시내 육군 OO부대 호국사에서 삼밀불원 지산스님을 법주로 군장병 위문법회 및 친선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날 법륜회 회원 1백명과 가족들은 손수 만든 떡과 과일, 음료수 등을 장병들에게 나눠주고 족구 배구 발야구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컴퓨터 컬러프린터 1대, 이발기기 2대, 전기다리미 5대 등 위문품도 전달. (052)265-8172

청주 금강회장에 김동훈씨

청주불교금강회는 21일 오후 7시 청주불교회관에서 97년도 결산보고 및 임원선출을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 신임회장에 내정된 김동훈씨(충북은행 영업부장)는 태고종 청주불교신도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0431)53-3882

진주 불교유적답사회 창립

서부 경남지역의 폐사지를 답사·관리·복원하게 될 신행모임인 진주불교유적답사회가 24일 오후 3시 진주시 계동 진주불교회관(이사장 박갑진)에서 첫 모임을 갖고 출범. 진주지역의 교수·교사와 문화재전문가 30명으로 창립되는 답사회는 이날 회칙을 확정하고 임원들을 선출한다. (0591)747-0108

전북불교대 보육원생 위문

전북불교대학 자원봉사회(회장 박인성)와 전주운전기사불자회(회장 최병익)는 8일 선덕보육원생을 초청, 순천 송광사 일대서 사찰나들이를 실시했다.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사찰나들이는 자원봉사회가 1년동안 실시한 참기름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후원금을 마련했으며 전주운전기사불자회는 개인택시 23대를 지원했다. (0652)86-3977

1998학년도 제7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 출강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불교교육·법사교육,
법사를 양성하는 도량,
한국불교법사대학!
선교방편으로 포교하는 법사(法師)

체계적인 불교공부로
믿음을 성취하고
지혜와 복덕이 무량광대한
부처님의 사절(使節)인 법사가 되도록
한국불교법사대학 도량에서 함께
육화(六和) 수행 정진합시다!!

특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품수와 소정의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8년 1월 5일 ~ 2월 25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韓國佛教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733-1959·737-5305
FAX : (02) 737-5305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5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OO명
  통신과정 OO명
- 지원자격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분
- 강의시간
  출강 / 통신 : 주5일 오후7시~8시30분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8년 2월 28일까지
- 교과목 : 주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불교복지론	불교학특강	의식실기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 원 불 교 대 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 전화 : (02)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법회안내

부산 선암사 (051)803-7573



◇주지 원타스님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숲속학교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정초기도 1월30~2월1일(3일간) 오전10시
※입춘기도 2월2일~4일(양) 오전10시

파주 도솔암 (0348)942-7703



◇주지 성조스님

안등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10분
영험산신재일 매월15일(음) 오전10시10분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10분
일요법회 매주 금요일 오전10시30분
산신재(국신재) 기도 매년 3월16일(음) 오전10시30분, 매년 10월15일(음) 오전10시30분

호국 자운사 (051)742-1171

신병교육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9시, 저녁7시
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 10시30분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군수종합학교 지원법회 매주 금요일 저녁7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도심속 산사생활 체험
길상사 직장인 수련법회

서울 성북동 길상사(주지 청학)는 2월14일부터 23일까지 2차로 나눠 직장인 수련법회를 갖는다.

주말을 이용 2박3일간 실시되는 이번 수련회는 '발우공양' '예불' '한글경전 독송' '108참회' '울력' 등의 프로그램으로 산사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 도심속에 위치한 청정 수행도량에서 자신과의 진실한 만남을 가져보자. 모집인원은 50명내외. (02)3672-5945

불교교리 영어로 익힌다
연등국제회관 '배움한마당'

영어와 불교교리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연등국제불교회관(관장 원명스님)은 21일부터 2월27일까지 모든 강좌를 영어로 진행하는 '불교 배움 한마당'을 마련한다.

이번 강좌는 △화요일 고대언어 팔리어 강좌 △수요일 교리강의 △목요일 참선교실 △금요일 경전공부 등의 일정으로 꾸며진다.

매일 오후7시에 일보스님(방글라데시)의 강의로 실시되는 이번 배움을 통해 국제 불교의 흐름을 알아 보자. (02)735-5347

'IMF' 사랑으로 녹이자
개금복지관 '가래떡 나누기'

한겨울 기온보다 싸늘한 경제한파. 이 한파를 녹이는 지혜는 이웃사랑의 실천에 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일까? 덩달아 움추려드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줄 행사가 열린다.

'사랑의 가래떡 나누기'가 바로 그것. 개금사회복지관(관장 정여스님)은 23일 설날을 앞두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50세대에게 가래떡을 나누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또한 복지관은 그동안 꾸준히 들어온 후원금으로 독거노인 85세대에게 내의를 나누어 주는 행사도 함께 가진다. (051)893-5034

외국학생과 고찰 탐방
민간외교클럽 경주답사

외화 낭비없이 여행을 통해 영어를 접하며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민간외교클럽(회장 최용호)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중학생을 둔 가족을 대상으로 24·25일 경주에서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문화유적 탐방을 실시한다.

불국사·석굴암, 기림사, 분황사 등 경주의 고찰을 둘러보는 이 행사에는 영어로 자기소개하기를 비롯 영어노래 배우기, 한국말 및 아리랑노래 가르치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외국학생들과의 합동여행을 통해 부담없이 뛰어노는 가운데 한국을 소개하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수 있다. (02)778-5736

내면탐구 책으로의 여행
전북불교대 '저자와의 대화'

부처님 법음을 가득 담은 불서의 저자와 함께 떠나는 불교 기행. 추위를 녹이는 불서들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도 닦아보고 책으로의 여행도 떠나보자.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은 소설 기행문 수행법 등의 다양한 불서들을 선정해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동계특강으로 마련한다.

24일 〈마음닦는 길〉 강건기교수, 31일 〈우담바라〉 남지심씨, 2월7일 〈암자로 가는 길〉 정찬주씨, 14일 〈새벽 산사에 가보세요〉 미영순씨를 만난다. 동계특강의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비가 내린 뒤의 사원의 숲은 참으로 해맑다〉의 여연스님(일지암 주지)이 불자들과 호흡을 나눈다.

이번 특강에서 강사로 초청된 저자들은 글을 쓰게 된 동기와 전하고자 하는 내용 사상 등을 직접 설명해 불자들이 생생한 저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 (0652)226-7878



◇개금복지관은 23일 노인들에게 가래떡 보시를 실시한다. 사진은 복지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이 돼 설날 노인들에게 나눠줄 가래떡과 밑반찬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국토사랑 배우는 기행
문빈정사 어린이답사

광주 문빈정사(주지 법일)는 25일 '남도답사 1번지-강진군'을 주제로 어린이 유적답사를 떠난다. 답사코스는 강진 무위사, 다산초당, 백련사.

구강포 바다에 뜬 푸른 섬과 갯벌, 산과 평야를 고루 담은 강진땅을 직접 돌아보며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에도 어려있는 우리 조상의 지혜와 슬기로움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될 듯하다.

아름다운 국토와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현장에서 조상들의 따뜻한 숨결을 느껴보자. 참가비 1만원. (062)222-2202

나의 수행일기



조기동 (용곡서예원장·금광사 신도회장)

욕심 버리니 '書道의 길' 보여
사찰 주련제작 '보람'…청소년 서예 지도원력

나는 사찰의 장엄함과 적막을 깨는 처마밑의 풍경소리를 어려서부터 유난히 좋아했다. 불심이 돈독한 어머님의 영향을 받아선지 초등학교 시절 사찰로 소풍가면 어린 나이에도 꼭 법당에 들어가 참배했다. 심지어 높고 깊으면서 정갈함이 풍기는 해우소(解憂所)마저 신기해하며 자주 방문(?)할 정도로 사찰의 엄숙한 분위기에 호감을 가졌다.

이렇게 맺어진 사찰과의 인연은 성장하면서 더욱더 지중해졌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교장선생님의 칠판글씨가 어린 눈에 멋져 보여 따라 쓴 것이 계기가 돼 평생 붓을 들게 된 나는 50세가 되어 여러 사찰의 현판 및 주련(柱聯) 제작에 참여했다. 광주 증심사와 금광사, 부산 삼광사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이처럼 나는 서예를 통해 불사에 동참했고 정진의 방편으로 삼았다. 특히 대한불교 천태종 부산 삼광사 범종각의 주련 53본 휘호는 부처님과의 인연공덕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1980년 주련 휘호 청탁을 받기 3일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도 서도정진에 몰두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당시까지 전혀 인연이 없던 부산 삼광사주지 춘광스님이 찾아오셨다.



생면부지(生面不知)이지만 명성을 듣고 왔다면서 삼광사 범종각의 주련에 휘호를 내려달라고 부탁하셨다. 처음에는 삼광사가 위치한 부산에도 유명한 명필들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정중히 거절했지만 멀리 광주까지 온 것은 불가와 내가 인연이 지중하기 때문이라는 스님의 설득에 결국 허락했다.

나는 어떤 휘호보다도 정성껏 기도하며 글씨를 완성했다. 불심으로 주련과 현판을 마친 범종각 낙성식은 7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뤄졌다. 그날의 벅찬 감동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쓰는 이의 마음가짐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서도에 평생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정신집중이 안될 때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준 불법의 영향이 컸다. 잡념으로 원하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때마다 '관세음보살'을 염송해 망상을 떨쳐버렸다. 또 주련이나 현판 휘호 작업을 시작할 때면 반드시 목욕정제 후 〈반야심경〉을 암송하는 과정을 마쳐야 붓을 들었다. 그래서인지 내 작품에는 '관세음보살'을 비롯한 경전의 글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글씨에는 욕심이 없어야 한다. 서도의 기본은 바로 불자의 입문과도 같다. 욕심과 분노를 버릴 때 성성한 글자가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철학을 응용했다.

몇 년 전부터는 광주지역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위촉받아 청소년 심성순화를 위한 서예·예절교육 등을 직접 지도하고 있다. 또 불우 청소년에게 가훈 제작을 지원해 탈선을 예방하고 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에는 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 계기였다.

지난날들을 회상해보니 특별히 용맹정진을 하거나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수행을 한 이력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사찰의 불사에 미력하나마 내가 받은 재능으로 일손을 거들 때마다 나는 이 일을 부처님께서 주신 업이라 생각하며 열중했다.

내가 새겨놓은 발원들이 부처님 가피속에서 불자들에게 읽혀진다는 생각을 하며 힘들 때마다 내 자신을 추스렸다.

이런 과정이 있어서인지 불사한 사찰을 둘러볼 때마다 붓을 들게 해준 인연에 감사하고 불제자로서 여러 불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시절 인연에도 또한번 고마움을 감출 수 없다. 앞으로도 이 일을 소중한 수행으로 삼고 붓을 들 수 있는 힘이 다하는 순간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매진할 것이다.

게 시 판

♣ 인사

불교TV △방송제작전문위원 이태행 △방송사업전문위원 강정기

불교방송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신창현(기술국 송출부) △부위원장 황승관(편성제작국 제작부)

♣ 법회

△정월 대방생 및 영산법회=한국계사신도회(회장 김미형)는 2월12일 경기도 양수리에서 방생 및 영산법회를 봉행한다. (02)732-2187

△종범스님초청=종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초청 1월 다보법회가 21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강당에서 열린다. (02)703-0108

♣ 강좌

△종이접기교실=대전 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종이접기 취미반 강좌를 마련한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전10시~오후4시. 대상은 주부반, 유치반, 초등반. (042)633-1141

△글짓기·미술교실=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2~5회 사고력 향상을 위한 글짓기 및 미술교실 등 방학특강을 실시한다. 참가비는 무료에서 2만5천원까지. (02)985-0161

△선무기공=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스님)은 선무기공 강좌를 개설한다. 인원은 13명. 강의는 화·목·토 오전6시~7시까지. (02)646-0183

△기초교리강좌=대불청 직할 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인택)는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만해교육관에서 '삼귀의' '사홍서원'에 대한 특강을 연다. 지도법사는 보각스님(중앙승가대교수). (02)730-9108

♣ 알림

△노인수발서비스=효손재가노인복지상담소(소장 정미영)는 거동이 불편하고 수발이 필요한 노인가정에 유료 홈페이지 파견서비스를 실시한다. 비용은 시간당 3천원. (02)508-8226

♣ 모집

△꽃꽂이 교육생=예당꽃꽂이 중앙회(회장 조양자)는 불단을 장엄할 제1기 꽃꽂이 교육생을 2월6일까지 모집한다. 교육비는 무료. 모집인원은 20명. 강의는 매주 토요일 11시. (02)595-3354

△사회복지사=자양사회복지관(관장 긍영애)은 24일까지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PC와 운전가능한 불자. 모집인원은 남녀 각 0명. (02)458-1664

△불교대학 신입생=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이학우)은 2월28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과정은 포교사과정, 경전연구과정, 교리반, 수화반 등이다. (051)818-8659

△불고문화대학 수강생=광주불교문화대학(학장 영조스님)은 2월28일까지 1학기 불교문화 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에는 '자연건강' '사찰음식문화' 등 실시. 수강료 20만원. (062)228-9098

△동산불교대학 제12기생=동산불교대학(이사장 김재일)은 31일까지 제1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02)732-1206

△사물후원자=구로종합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노인사물교실에 사용할 사물(꽹과리, 징, 북, 장구)을 기증해 줄 후원의 손길을 기다린다. (02)852-0525

♣ 답사

△백제 옛 수도=터사랑(대표 전숙희)은 23일 백제의 옛 수도 웅진(공주)과 사비(부여)로 답사를 떠난다. 이번 테마기행은 무녕왕릉, 공주박물관, 정림사지, 부여박물관 등을 둘러본다. 참가비는 3만5천원. (02)725-1284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현대인의 건강長壽쑥뜸기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완 3개 요혈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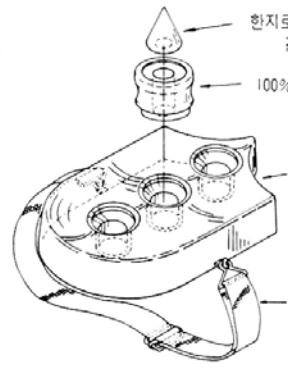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건강장수쑥뜸을 뜨게되면 유난히 많은 쑥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쑥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도 못열고 하다보니 쑥연기로 인해 쑥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 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쑥타는 흰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쑥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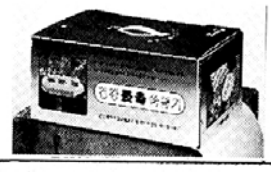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영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완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 보급가격 : ₩120,000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배꼽, 단전, 중완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왠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제조원 : 성지관음회(부설: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역문의 서울: 종로·서대문구(02)747-7033 송파구(02)417-8922 노원구 (02)942-6430 경남: 마산 (0551)23-9016 충북: 제천 (0443)46-3023 경기도: 광주(0347)64-3172 용인(0335)36-4294 강원도: 강릉 (0391)645-2117
부산: 연제구(보문포교원)(051)864-3740 부산진구(051)867-2926 충남: 예산(0458)33-3208 보령(0452)32-5288 경북: 울산 남구(0522)74-7536 울주구(0522)85-1284 포항(0562)75-1560 전북: 익산(0653)856-8659

올 불교소설 작품 수 줄지만 작품성 '볼만'

고 은 대하소설 '수미산' 단행본
남지심 일연스님 주인공 작품 집필
백금남 '명당' '유마' 등 장편 3편 준비


◇고 은


◇남지심


◇백금남

IMF의 거센 회오리 속에서 출판계의 불황을 이길 불자문인들의 작품이 대거 부화(?)를 기다리고 있다. 고은 남지심 한승원 백금남 이외수 윤대녕 정찬주씨 등 불자문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작품들은 소재와 주제도 구도 고승 선 등으로 다양해 읽는 재미를 배가시킬 듯하다.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스님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집필에 여념이 없는 남지심씨. 법향 그윽한 작품들로 불자들의 심금을 울려온 남지심씨는 이번 작품에 민족혼을 담아 또다른 대표작으로 삼을 작정이다. 올가을 출간예정인 이 작품은 대장경이야기를 중심으로 일연스님의 사상을 담고 있으며 제목은 아직 미정이다. 지난 3년여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여 준비해 왔으며 현재 절반정도 완성되어 있는 상태.

한승원씨는 96년부터 97년 초까지 주간불교에 연재했던 고승일화를 책으로 엮어내는 것 외에 또 하나의 구도소설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서있는 길이 바로 그길'이라는 의미 즉 정도(正道)를 제시하는 소설이 될 것이라고 밝힌다.

최근 연작소설 〈출가〉를 발표했던 백금남씨, 왕성한 창작의욕을 보이고 있는 그는 올 한해동안 세편의 작품을 발표한다. 우선 2월초순 〈명당〉이라는 풍수를 소재로 한 소설을 창해출판사에서 출간한다. 이 책에서는 풍수지리설의 개조를 도선스님으로 보고 풍수사상과 불맥과는 떨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역설한다. 또 인간의 굴곡진 삶을 통해 인연의 고리를 풀어갈 〈반지〉(가제)와 천축시대를 배경으로 석가모니와 10대제자 문수보살 등이 등장하는 〈유마〉(가제) 등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세편 모두 3~4권의 장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금비늘〉로 선소설의 새장을 열었고 최근 〈껄껄〉로 변신을 시도한 이외수씨는 요즘 또다른 선소설 구상에 여념이 없다. 불교적 세계관을 담은 〈소는 여관으로 들어온다 가끔〉의 작가 윤대녕씨는 현재 세계일보에 7월까지 연재할 〈달의 지평선〉을 9월에, 하이텔에 연재했던 소설 〈나는 카메라다〉를 내년초에 각각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또 불교를 소재로 한 중단편 세편도 올해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고은씨는 본지에 연재했던 대하소설 〈수미산〉을 5월경 대원출판사에서 책으로 묶어내며, 성철스님을 주인공으로 한 '산은산 물은물'을 법보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정찬주씨도 성철스님 열반 5주기가 되는 11월 연재를 마치고 단행본으로 독자들과 만난다.

올해 IMF 한파로 인한 불황으로 불교소설 출간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깊이있고 재미있는 소재의 작품들이 독자들의 시선을 끌 전망이다.

강지연 기자

불심시심 〈114〉

산에는 뼈대가 있다

白雲無定心 흰구름 일정한 마음 없고
(백운무정심)
靑山有奇骨 푸른 산에는 기특한 골격 있지
(청산유기골)
相看可樂飢 서로 마주보며 주림도 즐길만 하나
(상간가락기)
難與俗人說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
(난여속인설)
飯熟菜羹香 밥 익으면 나물국 향기롭고
(반숙채갱향)
石坐苔裀暖 바위 앉으면 이끼담요가 따뜻해
(석좌대인난)
含花鳥不來 꽃을 물어도 새 오지 않으니
(함화조불래)
已識融公懶 이미 봄 기운도 늦었음 알겠다
(이식융공라)
水流山谷響 물이 흐르면 산은 대답으로 울리고
(수류산곡향)
花發洞蔵春 꽃이 피면 고을에는 잠기는 봄
(화발동장춘)
紅塵飛不到 세속 먼지는 날아도 못 들어오지만
(홍진비불도)
미鹿近隨人 사슴들은 가까이 사람 따르네
(미록근수인)
忘情當事澹 정을 잊으면 문앞의 일도 담담하고
(망정당사담)
謀道得貧先 도를 꾀하려면 가난 터득이 우선해
(모도득빈선)
惟有好詩句 오직 좋은 시 구절 있어
(유유호시구)
春來滿眼前 봄이 오자 눈 앞에 가득히 펼쳐.
(춘래만안전)

'산거음(山居吟)'이라 제한 시이다. 스님들은 산에 거함이 일상의 삶이기에 '산거음'이란 시가 많다.

이 시는 조선후기 선과 교의 큰 그릇으로 일컬어진 연담(蓮潭·1720~1799)대사의 시이다.

산의 경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한 편의 서경시이기는 하지만, 스님의 안목으로 걸러낸 자연이기에 선정적 오도의 경지를 은연중에 담고 있다. 선어의 구사 없이도 저절로 선경을 느끼게 한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 상징적 대사와 절제된 연기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풀어내고 있는 불교연극 '첫날밤 보름달'의 한 장면.

불교연극 '첫날밤 보름달' 마로니에소극장 2월말까지 공연

"사랑찾기는 결국 구도심"

삼성문예상 동양문학상 월간문학상등 많은 문학상을 수상한 불자작가 우봉규씨(38)의 희곡 '첫날밤 노름달(연출 최강지)'이 2월 28일까지 동숭동 마로니에소극장에서 공연된다(평일 오후 7시30분, 금·토·일·공휴일 오후 3시, 7시 30분).

오랜 전통의 극단 신협(단장 전세권)의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공연되는 이번 작품은 절을 배경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구도심을 진실한 사랑찾기에 비유한 불교연극이다.

병에 걸려 부처님을 찾아와 의지하고 있는 남주인공 황강. 그는 배다른 누이동생 인경과의 사랑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그 절에는 음주운전으로 자식을 둘씩이나 죽이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노서방, 남다른 사연과 아픔을 갖고 있는 공양주 등 각기 사연을 지닌 인물들이 등장해 서로 갈등을 겪지만 결국 "모든 날은 첫날밤이요, 세상은 보름달처럼 원만구족"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 '日日又日新'이라는 말처럼 마음먹기에 따라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 될 수 있으며 달이 차면 기울고 그믐달은 또다시 보름달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상징적인 대사와 절제된 연기로 풀어내고 있다.

이번 연극의 특징은 작가와 출연배우 모두가 독실한 불자들이라는 것. 주인공 황강역을 맡은 배우 박재황씨는 '햄릿' '오이디푸스왕' 등에 출연했던 경력 15년의 베테랑 배우.

여주인공 인경역의 이효임씨는 '동승' '욕망의 샘' 등으로 호평을 받았던 배우로 출연진 모두는 연습기간중 백천사 등 절에서 참선 기도하며 연극연습에 몰두해 왔다. (02)762-8233 〈숙〉

통일신라 금동불 발견

진주 청곡사서…조탑신앙 연구자료

진주 청곡사 나한전 동편 3층석탑(경남 유형문화재 제5호)에서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 6구 등 다수의 유물이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도가 지난해 12월23일 청곡사 3층석탑의 보수작업을 하던 중 하층기단내에서 처음 발견한 이 유물들은 통일신라시대의 소형(높이 4~12㎝) 금동불상 2구, 청동불상 2구, 청동보살상 2구 등으로 이 가운데 거의 완전한 것은 1구이며 나머지는 일부가 파손된 상태다. 또 석조불두를 비롯 소조로 된 불두와 나한상두 등도 기단 내부를 가득히 채우고 있었으며, 기단 바닥에 안치된 가사차림의 머리없는 석좌상을 중심으로 시납된 소조사자 머리편, '주지OO'라고 씌여진 조선시대 명문숫막새편, 연꽃무늬 숫막새편 등도 수습됐다. 기단부내에서 이러한 다수의 유물들이 나온 예는 처음이며, 완형이 아닌 파불 등 파손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주목된다.

발굴현장을 둘러본 진홍섭박사(문화재 위원)는 "석탑 양식으로 보아 고려초기의 불탑으로 보이나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들이 나오고 1938년에 보수했다는 기록이 있어 조탑 당시부터 진단용(鎭壇用) 등으로 시납한 원형인지 아니면 후대에 추가 안치된 것인지 향후 정밀한 고찰이 필요하다"며 "신라불상과 고려 조탑 불교의식 등을 연구하는 중요한 학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 청곡사 3층석탑에서 나온 금동불입상.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문화소식

5천년 중국문화 눈길

3월29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문화대전. '그 광대한 중국을 만난다'라는 부제에 걸맞게 중국 5천년 역사를 총망라한 유물 1천2백여점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전시는 고대유물에서 티벳유물에 이르기까지 테마별로 6개의 전시실을 조성, 한·중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확인케 하고 있다. 테마전시실 중에는 불교문화와 유목문화가 빚어낸 티벳유물전이 단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부처님의 초전법륜을 상징하는 동질대법륜 및 사슴을 비롯 대소사 석가모니상·티벳대장경·스승과 제자 3인 조각상·불단 등을 통해 티벳 불교문화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이외에 원·명 양대에 걸쳐 조성된 넓이 1백80㎡의 초대형 청룡사벽화를 비롯 남북조시대에 조성된 철조관음보살상, 청대의 석가동상 등 다수의 불교미술품이 선보인다.

전통문화 공모 작품집

제6회 불교 및 한국전통문화사진 공모대전 작품집이 발간됐다. 대한불교신문사에서 펴낸 이 사진집에는 우수상을 받은 '기원'(박정석 작) '동자승의 피로'(이명남 작) '탈춤'(이영희 작) 등 149점의 입상작이 실려 있다.

사진자료집 '금강산'

새해초 금강산에 가고픈 마음과 통일의 염원을 담은 사진자료집 〈금강산〉(도서출판 호영 刊)이 나왔다.

'금강산은 부른다'로 시작되는 이 사진집은 현직교사 한관수씨가 15여년동안 수집한 금강산의 비경과 유점사·장안사 등 각종 문화재 사진 2백10컷을 담고 있다. 유탑기(해설)와 금강산을 예찬한 옛 시구등도 곁들여 마치 금강산을 유람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한다.



'사진 영상의 해' 선포

'98사진영상의 해 선포식이 14일 오전 11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레이져쇼로 문을 연 이날 선포식은 송태호 문체부장관의 선포문 낭독, 임응식 집행위원장의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비디오 '사진영상의 어제와 오늘' 상영, 조병화 시인의 축시낭송 등으로 진행됐다.

송장관은 선포문에서 "올 한해동안 사진영상이 21세기 문화예술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이세기 국회문체공위원장, 사진영상의 해 위원 등 관계인사, 시민, 학생 등 5백여명이 참가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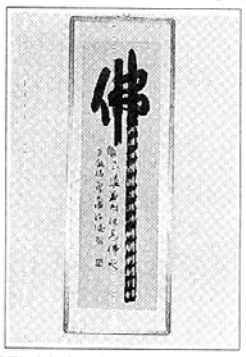
예문동양사상 아카데미
98년 겨울강좌!
예문동양사상아카데미는 동양사상의 연구와 대중화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인 예문 동양사상연구원이 개설하는 강좌입니다. 학술적 품격을 유지하면서 대중들이 동양사상을 쉽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화요강좌 : 주역강좌1-동양적 지혜의 근원을 찾아서…
김충열(본원 원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봄강좌로 이어져 완결되는 강좌의 제1부. 주역의 부호체계와 괘효구조를 이해하여 易理를 궁구함으로써 心身修養과 處世應變, 事業經營에 관한 차원 높은 동양의 지혜를 얻는다.
· 1월 6일 : 주역이란 무엇인가?
· 1월13일 : 주역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1월20일 :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자연사상
· 1월27일 :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생명사상
· 2월 3일 :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교육사상
· 2월10일 :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윤리사상
· 2월17일 :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정치사상
· 2월24일 :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사회사상

● 금요강좌 : 동양철학, 지금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현대인이 직면한 개인적·사회적 삶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동양적 대안을 찾아가는 강좌. 우리 사회에 충만한 '우리 것 찾기'의 열기를 수용하되, 차분한 시선으로 동양사상의 현대화를 향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한다.
· 1월 9일 : 왜 다시 동양사상인가 - 이승환(고려대 교수)
· 1월16일 : 동양의 이상적 삶 - 한흥섭(철학박사)
· 1월23일 : 동양의 性의식 - 윤천근(안동대 교수)
· 1월30일 : 동양의 여성관 - 이숙인(철학박사)
· 2월 6일 : 생태문제와 동양적 대안 - 윤천근(안동대 교수)
· 2월13일 : 동양의 눈에 비친 자유민주주의 - 박원재(철학박사)
· 2월20일 : 유학은 자본주의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 홍원식(계명대 교수)
· 2월27일 : 유가적 전통에서 본 동양의 정의관 - 이승환(고려대 교수)

◎ 매 회 100분(오후 7시 - 8시 40분) 강의로 진행
◎ 각 강좌별 수강료 : 100,000원
◎ 수강료 납입구좌 : 국민은행(093-24-0317-712 홍원식)
◎ 문의 및 접수 : 925-5914 (담당: 박진영)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禪筆(眞品)
佛子體의 神秘를 최초로 공개

금강경, 법구, 다라니, 각종 붙서,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정통으로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수강생 모집,사경한 책와 용이 있고 법과 태가 있습니다.(통신도 가능)
반야심경, 법화경 모든 경전 서예 수강생 특별지도
※반야심경 사경및 서예특별지도(초심자환영, 통신도 가능)
● 선착순 한정본(품)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 (02)242-0331 · 242-0255 (야)216-0307

歷史는 바뀔 수 있어도
傳統儀式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영 가 천 도
천도재 49재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사찰에 幸[연]은 필수품입니다."

시연(侍筵)은 각종 재(齋)를 베풀고 전통의식을 거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엄의식용구로써 전통적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수공예품으로 제작하였고 원목을 사용한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3단 조립형의 장엄한 예술적 작품으로 이동시 편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중립불사조성학사
藝暻佛美院
(주)예성기획
서울特別市 龍山區 文培洞 17-1 신화빌딩 3층
TEL:(02)704-5070(代)704-8850~1
부처님과 법은 인연 평생을 부처님을 위해 일하는 기업으로 남겠습니다.

● 체탈도첩 공고 ●
■ 성 명 : 남 기 수
■ 법 명 : 금 암
■ 주민등록번호 : 460903-1634714
■ 승 번 : 081-096
상기자는 태고총림 사규사법 제 35조 1항·동조 4항·동조 7항·동조 11항에 의거하여 1998년 1월 7일 긴급전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체탈을 결의하여 종단에 상신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함.
1998년 1월 11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 직인무효 공고 ●
하기 직인을 1997년 9월 1일부로 무효공고함.

향림사 주지 김 명 성



"체험담으로 쉽게 쓴 금강경"

8旬 윤을순교수의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부처님 행적은 모두 깨달음의 자료"
IMF 고통받는 이들에게 유익한 메시지

올해 82세인 윤을순교수(前 동국대)가 체험담을 엮어 펴낸 경전해설서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신우당 刊)은 이 어려운 IMF 시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알기쉽고 애정이 가득 찬 메시지다.

이책은 보편적인 여러 일화와 내용을 삽입해서 오늘날의 시점에서 매우 유익하고 흥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체험담 위주로 〈금강경〉을 해석하고 있다.

"성스러운 사람이나 죄많은 보통사람들이나 모두, 〈금강경〉에 제시된 수행법인 '금강경 수지독송(受持讀誦)'을 통해서 결국은 성불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간곡하신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라는 윤교수는 "부처님의 행적이 모두 의미가 있으며 깨달음의 자료이죠"라고 말한다.

윤교수는 금강경에 설해지고 있는 핵심의 가르침인 부처가 되는 방법, 윤회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여러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 설명하기도 하고, 또 여러 학자·문인들의 글속에서 읽어내기도 한다.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항복받는가?'에 대해 '먼저 깨치고(항복받고), 그뒤에 머무르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백성욱박사(前 동국대 총장)의 명쾌한 해석을 소개한다.

"중생이 어떻게 중생을 부처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 한방법으로 무슨 생각이든지 제도하시는 부처님께 바치자, 즉 맡기자는 것이다. 생각을 부처님께 바친다는 것은 어둑컴컴한 자기 생각을 부처님의 밝은 마음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그러면 자기 마음 속의 망념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었는지라 제 마음은 비었을 것이요, 제 마음이 비었다면 지혜가 날 것이다."

이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베스트셀러를 비롯한 여러 성인들의 말씀들이 모두 〈금강경〉에 근원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된다. 경전을 처음 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체로 쓰여진 이 책은 친숙한 옛날이야기를 듣듯 〈금강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윤교수는 또 먼저 깨치고 난 뒤에 그 깨침이 저 것이 되도록 하기위해서는 '응무소주 행어보시(내는 마음도 없이 보시를 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업보를 향하지 않고 하는 보시가, 바로 부처님을 향하는 보시이며 업보가 없는 곳이 부처님이 머무르는 자리'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의 핵심으로써 마음공부의 가장 중요한 테마임을 역설하고 있다.

경제학을 전공, 뒤늦은 나이에 불교에 입문 누구 못지않은 열성으로 공부에 매진해 온 윤교수가 80을 넘어선 나이에도 왕성한 기력으로 마음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금강경〉 공부 덕분이다. 현재 일산에서 불교실천수행법을 연구하는 '바른법 연구원'을 이끌어 오고 있는 윤교수는 3년전부터 〈금강경〉 제13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잠 해탈을 위해 하루 3시간만 자는 '자시가행정진기도'를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위타인설하는 공덕은 세상의 그 어떤 공덕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발심한 불자들은 집착하지 않고 여여하게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안다면 범부로부터 출발하더라도 성인에 이르는 깨달음의 길을 걸어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은자 기자



"유물관리 잘못 많다"

남천우박사 '유물의 재발견' 펴내
조계사종 행방·가치 등 논란 일듯

남천우박사(66·前 서울대 교수)가 최근 펴낸 〈유물의 재발견〉(학고재 刊)은 조계사종과 석굴암, 대왕암, 첨성대, 거북선 등 그간의 문화재보존과 학설에 대한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남박사는 이 책에서 일제시대때 국보로 지정됐다 해방후 지정해제된 조계사종에 대해 "조계사종은 삼국시대 구형 종의 형식(고대 중국종 또는 오늘의 일본종의 형식과 동일한 형식)으로부터 신라시대 신형 종의 형식(한국종의 형식)으로의 이행과정을 보여주는 국내 유일의 범종 유물이며, 이 종이 지니는 여러 특징들은 모두 이 종이 소위 한국종으로서의 신형식이 완성되기 직전의 작품임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조계사종은 봉덕사신종보다도 더 귀중한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잘못된 감식으로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소홀히 되어 현재 그 행방조차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조계사 종은 그동안 조계사에서 보관해 오다 지난해 11월부터 종이 없는 파주 보광사(주지 효림)에 임시 봉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같은 남박사의 견해에 대해 황수영박사(前 국립중앙박물관장)는 "일제시대때 남산의 일본인 사찰에 있었던 조계사종은 그 건조양식이 신라시대 종의 주조양식과는 전혀 다른 전형적인 일본종으로 당시 문화재관리국과 여러 관계학자들이 판명했다"라고 반박했다.

조계사측은 "일본종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일제시대나 해방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종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동안 초파일 제등행렬시에 조계사에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 조계사종의 원봉안처인 경기도 양평 상원사(주지 효산)가 조계사측에 종을 돌려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사실도 밝혀졌다.

남천우박사는 이 책에서 "내가 제기한 여러학설과 문제점들에 대해 활발한 반론이 일어나, 학설적 대립을 통해서 해당 문화유산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하루속히 정립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온〉

시현스님 추모문집
'주어서 비워지는 마음'
법문·수필·일기등 모아 구성



불교계 최초의 실버타운인 보리수마을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시현스님의 1주기를 맞아 스님의 일생과 불교사회복지사업의 유업을 기리기 위한 문집 〈주어서 비워지는 마음〉(불지사 刊)이 출간됐다.

"받아서 채워지는 마음보다 주어서 비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평소 늘 말했던 스님의 생활철학이 담긴 이 책은 교학편·법문편·논문편·수필편·복지사업편·일기초·추모편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720쪽에 달한다. 스님이 법수선원 주지로 있을 때 발행했던 사보(寺報)인 〈법보·法報〉와 〈법수법보〉에 실었던 글들과 녹음으로 남아있는 법문, 그리고 스님이 쓴 복지관계의 글들을 실었다.

스님은 해인사 강원과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하고, 해인강원의 학감을 지내며 후학들을 지도하는 등 학승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불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원력으로 88년 무의탁노인을 위한 복지법인 연꽃마을을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복지사업에 뛰어들었다.

"나의 삶, 이제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나? 성직자의 삶. 나는 불교복지에 발을 디뎠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종사를 할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망설이나, 정열을 바치자. 중생의 고통이 없다면 성인이 왜 필요할까."

특히 93년부터 입적 직전까지 거의 매일 써 온 일기형식의 메모속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스님의 견해와 수행자로서의 치열한 구도의식, 학승으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출판화제



시와 그림이 있는 엽편소설 '껄껄' "삶의 의미 되새겨"

'시와 그림이 있는 엽편소설'이라는 수식어가 딸린 〈껄껄〉(가서원 刊)은 독특한 형태의 책이다. 깨달음의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호탕한 조롱같기도 한 제목부터가 눈길을 끈다. 〈황금비늘〉의 소설가 이외수씨와 〈허무총〉으로 주목받은 바 있는 젊은 소설가 하창수씨가 함께 펴냈다.

하씨의 짧은소설(엽편소설)에 이씨가 시와 그림으로 화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사람과 세상을 보는 특유의 눈빛과 감성으로 세속에 찌든 우리들의 삶을 눈물겨울 만큼 맑은 빛깔로 그려내고 있다.

"부처를 잡으리/부처를 잡으리//한평생/맨발로 피흘리며/수미산 꼭대기에/올라와보니//아뿔사/부처는/수미산 밑/내가 출발한 바로 그 자리//가장 낮은 몸으로/앉아있었습니다" 어느 스님의 구도과정의 고뇌를 의미심장한 필체로 그려낸 하씨의 '하늘'이라는 이야기에 이어 화답한 이씨의 '하늘보다 높은 하늘은'이라는 이 시속에 〈껄껄〉의 깊은 주제를 그대로 감상할 수 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일상의 작은 단면들을 날카롭게 포착해 그속에서 깨달음의 의미를 전한다. 〈가서원 6천8백원〉



6·25 혼란속에 부산 美문화원장의 문화재 사랑 비화

'한 이방인의 한국사랑'

광복직후와 6·25의 혼란속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미국인 유진 크네즈박사(81)의 문화재관련 비화를 엮은 〈한 이방인의 한국사랑〉(국립중앙박물관 刊. 비매품)이 발간돼 화제.

1·4 후퇴당시 부산 미국문화원장이었던 그는 국립박물관의 유물을 부산으로 옮겨 보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가 없었다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상당수의 국보급 문화재가 북한으로 갔을것이라고 문화재전문가들은 말한다. 일제가 자국으로 옮겨가기 위해 해체한 뒤 가져가지 못한 채 현장에 오랫동안 방치됐던 국보2호 원각사지 10층석탑의 복원도 그가 해낸 것이다. 당시 국립박물관장이었던 김재원씨의 조언을 얻어 미국 공병대를 동원, 46년 2월 복원했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95년 한국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 책에는 한 미국인으로서 그가 전망한 '한국문화 중흥을 위한 시도'라는 제언과 문화재 사진, 당시 현장답사 과정의 자료사진 등이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소개되고 있다.

출판가소식

장애문인 36명의 詩

장애인문학을 대표하는 문예지 〈솟대문학〉을 통해 91년부터 3회 추천을 받은 장애문인 36명의 시를 한권에 엮은 〈슬픔마저 사랑하리〉(솟대 刊)가 출간됐다. 이책은 장애시인들을 대신해서 경원대 김삼주교수(문예창작과)가 묶었다.

사랑을 주제로 한 58편의 시가 요즘의 정신적 공황을 치유해 준다.

노사관리자의 참회記

한때 삼성그룹의 간부를 지낸 김형극씨가 간부직계해고 1호라는 불명예를 겪으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어느 삼성노사관리자의 참회〉(반도기획 刊)로 펴냈다.

인정받는 샐러리맨이 되기위해 노사관리 집행자로서 갖가지 불법과 탈법을 일삼았던 자신의 지난 과거를 참회하며 불보살에 의해 영혼을 구제받는 이야기를 실제 사건중심으로 법구경의 중요내용과 함께 담았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3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 타	효 림
4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5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	류 시 화	열 림 원
6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7	금강경강의	무 비	불 광
8	마음 알기 나누기 다루기	용 타	대원정사
9	사십구재란 무엇인가	효 림	행 원
10	팔만대장경에 숨겨있는 108가지 이야기	진 현 종	혜 음

구입문의:(02)737-0695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생활 속의 기도법

祈禱 기도 —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Ⅰ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

"중관·삼매로 얻는 대비심 현대사회 악요소 치유"


◇이영자교수


◇김상현교수

천태불교문화硏 '…천태사상' 주제 국제학술회의

"천태의 세계관인 삼천세계(三千世界)는 천태교의(天台敎義)에서 강조하는 실천적 수행법인 중관(中觀)·삼매(三昧) 등으로 채득될 수 있으며, 삼천세계의 동체대비심은 인공(人工)·정보(情報)·고령화(高齡化)로 대변되는 현대사회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대안이론이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도원)이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천태사상의 실천방향을 찾아보기 위해 20일 타워호텔에서 '현대사회와 천태사상'을 주제로 제1회 한중일 천태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이영자교수(동국대 불교학), 무라나까 유쇼박사(일본 대정대 학장) 등 4명의 국내외 천태석학은 이와같이 주장하며 보편·특수성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천태 수행법은 대중들에게 조화와 균형을 가르칠 수 있기에 천태도량을 대중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태불교의 실천적 다양성과 회통성'을 발표한 이영자교수는 "천태사상의 핵심은 중관(中觀)이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모든 사물의 참된 모습을 바로 보는 것(체관·諦觀)"이라고 말했다. 그릇된 현실에 집착하는 생활태도를 부정하고 진여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교수에 따르면 우리들의 마음이 타자와 더불어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할 때 동체대비심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나홀로'식의 독단은 남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도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교수는 "천태대사가 가르친 깨달음인 관득(觀得)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망심(妄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남과 더불어 산다는 생각을 한순간에도 놓지않고 행동하는 경지"라며 "이 경지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현대인이 배워야 할 덕목"이라고 말했다.

유쇼박사도 '참회·그 마음의 치유를 위하여'에서 "천태 수행관의 특징은 자기제어와 자기지향적 내면화의 끊임없는 성찰의 과정"이라며 "현대인들은 천태 수행관에서 스스로 결박한 마음을 풀고 치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태교의 중 사종삼매(四種三昧)에서 가르치는 지관(止觀)이야말로 신(身)·식(息)·심(心) 등의 조화를 통해 자기구제와 치유를 이룰 수 있는 원형이라는 것.

이를 위해 유쇼박사는 "천태사찰은 평생학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과 기관으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며 "대중들이 사찰에서 천태 수행법을 배우고, 자기구제와 치유법을 생활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립민박사(중국 불교문화연구소장)는 '천태법화 삼매의 삼삼삼(三三三)'에서 "천태교의중 삼법무차(三法無差)란 마음·부처·중생 등을 차별없이 바라보는 보살의 경지"라며 "이 경지에 도달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환경을 정화하고 타종교를 포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현교수(동국대 역사학)는 '의천의 교학연구와 그 현대적 의의'에서 "교장을 간행하고 천태종을 개창한 의천스님(1055~1101)의 교학연구 자세는 현대인의 귀감"이라며 "불교의 보편·특수성에 대한 균형있는 인식, 엄격한 비판 등은 대중들의 생활철학으로도 수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개원한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은 이영자교수등 10여명의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천태전적 역경, 년 2회 학술회의 개최등 한국천태학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학술단체. 이번 국제학술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3월중 〈현대사회와 천태사상〉(불지사 刊)으로 발간된다.

오종욱 기자

한국 무종교인 45%… '세계 1위'

한국의 무종교인 비율(전체인구의 45%)은 세계 1위이며 이들은 대부분 교육받은 청·장년층으로 기독교·불교 등 종교에 대해 비판적인 반면 신비주의와 민간신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인철교수(한신대 종교학)는 〈사회와 역사〉(52집·문학과 지성사 刊)에 발표한 '한국 무종교인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인이 상당한 종교성을 띠고있다는 일반적인 선입견을 뒤집어 주목받고 있다.

강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무종교 비율 45%는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 무종교인의 비율이 높은 네덜란드(36%) 프랑스(26%) 벨기에(15%)는 물론이고 일본(35%)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강교수는 "청·장년층과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종교가 없는 것이 현재의 추이"라고 지적했다. 1983년부터 10~30대 무종교인의 비율이 종교인의 비율을 앞지르고 있으며 남성·사무/전문직 종사자·대도시 거주자 중심으로 무종교인의 분포가 커지고 있다는 것.

강교수는 "무종교인 가운데 기존 종교로부터 이탈한 사람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무종교인이 종교를 갖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의 무종교 인구는 기독교·불교 등 제도권 종교를 거부하는 집단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기독교 사상적 통합 상호 차이점 존중서 출발"

심재룡교수 '통합가능성' 제언

대등한 교세를 유지하며 비슷한 시기에 민중불교·민중신학을 전개했던 한국의 불교와 기독교.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한국의 특수한 종교상황이야말로 오히려 21세기 종교간 대화와 사상적 통합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이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철학과 현실〉(겨울호)에 '불교와 기독교를 넘어서-대화를 통한 통합은 가능한가'를 발표한 심재룡교수(서울대 철학)는 이같이 불교와 기독교의 사상적 통합 가능성을 제언했다.

심교수에 따르면 한국에서 불교와 기독교는 동서양의 대표적인 종교로서 비슷한 교세를 보이고 있으며 범인류의 화해와 상호보완을 위해 때로는 실질적으로 경쟁하며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교수는 "불교를 개혁하려는 민중불교와 아시아 신학의 가능성을 제시한 민중신학이 한국에서 동일하게 태동한 사실은 불교와 기독교간의 적극적인 대화 가능성을 예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심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불교와 기독교는 서로 비슷한 겉모습을 역사적으로 점검하는 단계→서로의 교리와 기본 개념들을 이성적으로 따지는 단계→같은 종교인으로서 체험과 실존적 고뇌를 함께 나누는 단계로 진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심교수는 "진정한 종교간 대화와 통합을 위해 종교간의 공통점을 발견하기 보다는 차이점을 찾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종교간 대화와 통합은 한갓 절충이 아니라 대중을 초점으로 하여 두 종교가 고통의 현장에서 만나고 공동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욱〉

리처드 기어 '2년내 출가' 밝혀



헐리우드 스타 리처드 기어(50)가 2년내에 영화배우를 그만두고 불교 승려가 될 결심을 밝혔다고 대만의 민생보(民生報)가 10일 보도했다.

기어는 대만의 이등휘(李登輝) 총통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과거에 기독교인이었으나 항상 뭔가 잃어버린 느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선사(禪師)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며 "불교를 통해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할 용기를 갖게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어는 대만에서 '순례자'라는 사진전시회를 열고 티벳 망명자 거주지를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을 선보이고 있다.

그동안 기어는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추종자로 널리 알려져왔으며 티벳독립과 인권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미 ABC 방송의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에 출연, 불교에 관한 특별대담을 가져 미국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또 중국의 강택민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백악관 앞에서 벌어진 '티벳독립을 위한 집회'를 이끌기도 했다.

최근에는 중국의 비민주적인 법률제도를 꼬집은 영화 '레드 코너(Red Corner)'에서 핍박받는 주인공으로 열연해 중국의 인권문제를 국제여론의 심판대에 올려놓기도 했다.

유적·유물 소개…석굴벽화 80여점 볼거리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중국문화 · 돈황

중국의 조각·서예·도자기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이트 '중국문화'가 올해 초 북경대에서 문화사를 가르치는 준샨(Jun Shan) 교수에 의해 오픈됐다.

'중국문화'에서 제공하는 정보중 불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돈황(Dunhuang) 유적지와 유물의 상세한 소개.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해상 그래픽도 제공돼 실제감 마저 맛보게한다.

돈황은 366년부터 서하가 멸망할 때까지 중앙아시아의 여러 왕국에서 건너온 승려와 포교사들의 머문 거대한 불교 도시. 현재 남아있는 돈황 유적은 4~14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1천여개의 천불동(天佛洞)으로 불리는 수많은 석굴사원이다. 따라서 돈황의 예술적 가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석굴의 벽면에 그려진 다양한 불화에서 시작된다.

이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돈황석굴벽화는 총 80여점. 이중에서 보살의 얼굴이 둥근형으로 남아있는 수나라의 '보살상'(석굴 420호), 전생담중 부처님의 희생을 주제로 한 남북조시대의 '시비왕본생담'(석굴 275호), 부처님의 열반을 옮긴 북량기(北京期) 벽화 '열반도'(석굴 428호), '설법도'(석굴 272호) 등이 백미.

또 석굴 285, 196에 소장된 벽화들은 방문자가 석굴 입구에서부터 마우스를 이동해가며 석굴 깊숙한 곳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한 3D(3차원 그래픽) 환경에서 구경할 수 있다. 이 석굴에는 부처님이 사슴으로 태어났을 때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므리가 자타가'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에게 강론하는 '유마상', '천문도'(天文圖) 등이 있다.

이외에도 주산교수는 티벳 라사의 조캉사원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공하고 있다. 라사의 조캉사원은 달라이 라마 등 수많은 라마승이 수행하는 티벳불교의 심장부.

http://chineseculture.tqn.com/library/weekly/aa01098.htm

日 선광사서 동계올림픽 중계

미국의 CBS가 제18회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일본의 명찰인 선광사(善光寺·주지 슈에이 와카오미)에서 중계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나가노 동계올림픽의 미국 전역 방영권을 가진 CBS는 경기뿐만 아니라 일본의 문화와 역사도 소개하기 위해 나가노市를 대표하는 선광사를 중계지로 결정한 것.

슈에이 와카오미스님은 "세계의 평화를 도모하는 올림픽의 본질과 선광사가 추구하는 근본 목적이 일치해 CBS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CBS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월6~22일까지 주요 경기를 방송할 계획이다.

1300년 전통을 가진 선광사는 일본 최초로 부처님을 봉안했던 고찰로 매년 1백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日 나가노市의 선광사

'동대논총' 36집 발간

동국대학교 논문집 〈동국논총〉 제36집이 나왔다.

인문과학분야와 자연과학분야에 걸쳐 총 18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는 이 논총에는 계환스님(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의 '법장의 화엄공관에 대한 소고'를 비롯해 황태연씨의 '아시아 환경협력 관계의 형성과 발전' 등 다양한 논문이 실려 있다. (02)260-3027

학술단신

'불교와 사회복지' 2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연구소(소장 보각스님)는 〈불교와 사회복지〉 제2호를 발간했다.

청소년복지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집에는 류승무교수(중승대 사회복지학과)의 '불교 청소년복지의 방향모색' 등 10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02)921-5825

내달 28일 '선적연구' 모임

보조사상연구원이 2월28일 제1차 '선적(禪籍)연구' 모임을 갖는다.

보조스님의 선적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를 다룰 이번 모임에서는 이병욱 박사(고려대)의 '종밀의 사상과 비교', 최연식 박사(서울대)의 '보조의 삼종문의 성격에 관하여' 등 논문 6편이 발표된다. (02)733-5315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귀한 선물 - 광덕 스님, 무비 스님 저서 특판전

책방 여시아문 통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02)737-0695, 732-1521 /팩스:(02)737-0696

책방 여시아문에서 고객 여러분의 선물을,대신 보내 드립니다.
(97.12.1~98.1.31)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고객 여러분께서 선물하고 싶은 불서와 보내 드리고 싶은 분의 주소를 일러 주시면 전국 어느 곳이라도 직접 우송해 드립니다.
문의 전화:(02)737-0695, 732-1521

등기 우편료(평균 3,000원) 중 절반은 여시아문에서 부담해 드리므로 고객께서는 1,500원의 우편료만 더 내시면 됩니다.

찾아오시는 길
현대불교신문사 책방 여시아문
광화문 운주사 중앙청사 조계사 인사동 종각역 공평빌딩 종로3가

광덕 스님 저서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불광 / 5,500원
삶의 빛을 찾아 불광 / 4,500원
반야심경 강의 불광 / 3,500원
행복의 법칙 불광 / 6,000원
보현행원품 강의 불광 / 4,000원
우리말 축원문 불광 / 4,000원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불광 / 5,500원
육조단경 불광 / 12,000원
메아리 없는 골짜기 불광 / 5,000원
지송 금강경 불광 / 2,500원
법회요전 불광 / 7,000원
천수 관음경 불광 / 3,500원
지장경 불광 / 5,000원
부모은중경 관음경 불광 / 3,500원
불자 수행일과 요전 불광 / 5,500원
불광 연화의식문 불광 / 5,000원
금강반야바라밀경 불광 / 3,500원
빛의 목소리 불광 / 6,000원
지송보현행원품 불광 / 3,500원
지장 기도집 불광 / 6,500원
광덕 스님 명상 언어집(전4권) 불광 / 20,000원

무비 스님 저서
금강경 오가해 불광 / 15,000원
천수경 민족사 / 4,500원
예불문과 반야심경 불일 / 5,000원
나옹스님 어록 민족사 / 9,500원
백운스님 어록 민족사 / 10,000원
화엄경(현토 1~4) 민족사 / 130,000원
보현행원품 강의 민족사 / 6,500원
금강경 전서 민족사 / 25,000원
현수법장의 화엄학 개론 민족사 / 20,000원
금강경 강의 불광 / 5,500원
화엄경 강의 불광 / 9,000원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민족사 / 8,000원

그외 선물용 도서
한국사찰음식 김연식 / 우리출판사 / 12,000원
100문 100답 선불교 강좌편 상·하 일지 / 대원정사 / 각 8,000원
기도 일타 / 효림 / 5,000원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 / 효림 / 3,500원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사 / 여시아문 / 7,000원
금강경 대강좌 이제열 / 여시아문 / 8,0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혜원 / 여시아문 / 7,000원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 효림 / 7,000원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 가지 주제 정승석 / 대원정사 / 8,500원
삼국유사 1, 2 일연 / 솔 / 각 8,500원
법구경 김달진 / 현암사 / 8,000원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순용 / 세계사 / 6,000원
깨달음의 길 거해 / 담마간다 / 6,000원
석가와 크는 아이 어린이 철학연구소 / 산하 / 5,000원
붓다 - 꺼지지 않는 등불 장부아슬리에 / 시공사 / 6,000원
돼지 저금통 속의 부처님 권대웅/ 국민서관/ 5,000원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녹색평론사/ 5,000원
내 아들 딸들아 세상은 너의 것이다 율곡 이이 원, 안장환 엮음 / 큰산 / 5,500원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 청년사 / 6,500원
돌부처 이근후 / 여시아문 / 6,500원
작은 것이 아름답다 E.F.슈마허 지음, 김진욱 옮김 / 범우사 / 6,000원
세계의 공동체 마을들 윌리버 포피노·크리스 포피노 지음 / 정신세계사 / 6,000원
문화의 수수께끼 마빈 해리스 지음, 이종인 옮김 / 시공사 / 7,000원
진흙 속에 피는 연꽃 이슬기 지음 / 불광 / 3,500원
※달력: 산악 8,000원 / 한국의 사계 7,000원
※명상 노트:
와불 일어나시다 5,000원
날마다 크는 그리움 5,000원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37

육조의 의발 ⑥

5조는 혜능을 구강의 나루까지 전송했다. 늙은 스승은 손수 노를 저으려 했다. 혜능은 황망해 하며 자신이 노를 잡겠다고 나섰다. 스승이 "네가 너를 건네 주어야지 않겠느냐." 고 말하자 혜능은 "제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을 때는 응당 스승께서 저를 건네주셔야겠지만 깨닫고 난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말도 서툰 시골 무지랭이가 스승님의 가르침과 은덕을 입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본성으로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自性自度)." 스승은 대견해하며 말했다. "그렇고 말고. 그 뜻을 명심하라. 앞으로 이 가르침은 널리 퍼질 것이다. 잘 가거라. 곧바로 남쪽으로 내려가 5년간은 머리카락을 보이지 마라."

스승과 작별한 혜능은 두어달이 걸려 대유령에 이르렀다. 지금의 강서성과 광동성을 나누는 경계 부근이다. 그동안 가사를 가로채고 법통을 뺏으려는 무리들이 사방 그를 뒤쫓고 있었다. 대부분 지쳐서 돌아갔는데 오직 한 사람이 이곳 대유령에서 혜능을 따라붙었다. 성은 진씨(陳氏), 이름은 혜명(惠明)이라고 했다.



그림 · 이준석

지금 살펴볼 공안은 바로 이때의 일을 적고 있다. 진혜명은 한 대 이후의 명문가 집안이다. 어려서 불교에 입문하여 23세 때 구족계를 받고 5조의 문하에 있던 중에 의발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혜능을 뒤쫓아 온 것이다. 〈육조단경〉에는 이 대목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다. 다만, "혜능이 미련없이 의발을 던져주었지만 혜명은 교법을 위해 왔을 뿐이라면서 받지 않았다. 혜능은 그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그의 마음을 열어준 다음 북방의 교화를 맡게 했다"고만 적고 있다. 〈무문관〉의 공안은 두 사람의 만남을 보다 극적으로 보여준다. 강의가 길어지는 통에 처음의 공안을 잊은 사람들을 위해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짚어둔다.

혜명상좌가 자신을 쫓아 대유령에 이르른 것을 보고, 육조는 의발을 돌 위에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옷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니 힘으로 다툴 수 있겠는가. 그대에게 맡길테니 갖고 가거라." 혜명이 다가가 집어들었는데, 옷은 태산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혜명은 두려움에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는 진리를 구하러 왔지, 옷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원컨대 행자께서는 깨달음을 열어보여 주십시오." 육조가 말했다. "선(善)을 생각않고 악(惡)을 생각않을 때 바로 그때 너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은 어디 있는가." 이 말에 명상좌는 크게 깨닫고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 그가 울며 예를 올리면서 물었다. "조금 전의 비밀의 말씀, 비밀의 뜻 외에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까?" 육조가 말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니다. 네가 스스로 자신의 면목을 되돌이켜 본다면 비밀은 바로 너에게 있다!" 혜명은 말했다. "제가 황매산(黃梅山)에서 무리와 더불어 있을 때는 자신의 면목을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그 비밀의 입구에 대한 가르침을 입고 보니 흡사 물을 마셔 차고 뜨거움을 알듯 사태가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행자시아말로 제 스승이십니다." 육조가 말했다. "그렇다면 나와 너는 함께 황매를 스승으로 모신 셈이 된다. 그것을 잘 지켜가라."

혜명을 깨우치고 난 후 혜능의 종적은 문득 사라진다. 그것도 15년간. 아마도 깊은 산속에서 명상을 통해 정신을 가다듬고 포교를 위해 경전에 대한 지식을 깊이 다져갔을 것이다. 한동안 화전민이나 사냥꾼 무리에 섞여 지내기도 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그들에게도 부처와 본성의 가르침을 심어주려고 애썼다. 사냥꾼들이 맡긴 짐승을 몰래 풀어주기도 하고 식사때는 고기를 밀치고 푸성귀만을 먹었다고 한다. 오랜 은둔은 그의 나이 마흔이 가까워오는 676년까지 계속되었다. 15년의 은둔에도 불구하고 나이 마흔이라는 것이 의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혜능이 5조를 만난 것이 나이 스물 두엇이었다. 그리고 단지 8개월을 머물렀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혜능은 때가 왔음을 알고 산속을 나와 광주(廣州)의 법성사(法性寺)로 갔다. 그곳은 5조의 법맥을 이어받은 인종(印宗)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는 곳이었다. 때마침 바람이 불어 깃발이 울고 있었다. 한 승려가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자 다른 승려가 "아니, 바람이 움직인다"면서 다투었다. 혜능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움직이는 것은 당신들의 마음이다"고 하여 좌중을 소스라치게 했다. 인종은 혜능을 윗자리로 청하여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의 막힘없는 대답은 쉽고도 분명하며 이치에 맞았다. "내 설법은 깨진 기왓장같고 당신의 가르침은 마치 순금과 같습니다." 감동한 인종은 "5조 황매의 법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데 혹시 당신이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혜능은 이 질문에 겸연쩍은 웃음으로 답했다.

인종을 만난 이듬해 혜능은 조계(曹溪) 지방으로 가서 신도들과 함께 보림사(寶林寺)를 지었다. 그는 이곳에서 71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36년간을 머무르며 가르침을 폈다. 여기까지가 6조 혜능의 대강의 전기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움직이는 것은 당신들의 마음"

남으로 간 혜능 조계지방서 36년간 포교

法數로 배우는 불교

〈47〉

염주는 불자들이 소중히 여기고 널리 애용하는 성스러운 신앙 도구이다. 가정에 모셔두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요즈음엔 안전을 염려하는 탓인지 너나 없이 차안에까지 정성껏 매달고 다닌다. 신심과 수행을 기르는 성구(聖具)가 일종의 액운을 방지해 주는 부적 역할도 해주는 셈이다.

108번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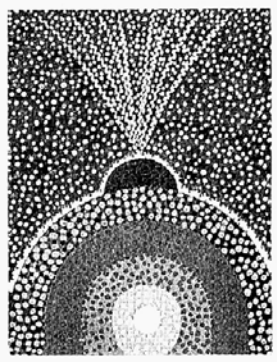
생로병사·우비고뇌 등 미혹된 마음
백팔염주는 108번뇌 소멸 법구

염주를 지니고 다니는 이유야 어떻든간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상징물을 생활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염주를 지닌 사람들이 간혹 불자된 도리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남의 눈을 거슬리게 하는 경우어는 속상한 점도 없지않다. 염주를 늘어뜨린 차가 과속을 하고 새치기를 하는 등 난폭운전 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된다. 이런 경우 그 사람 자신도 자신이지만 그로 인해 전체 불자가 비난을 들게 되거나 부처님을 욕되게 한다.

염주를 다른 말로 수주(數珠)라고도 하는데 그 알의 수효가 천팔십개, 오백사십개, 이십칠개 등 수효가 일정치 않지만 백여덟개로 이루어진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목환자경〉에 의하면 목환자 백여덟개를 실로 꿰어 수주를 만들어 돌리면서 불·법·승 삼보를 항상 염(念)하면 중생마음속의 백여덟가지의 번뇌가 소멸되고 수승한 과위를 얻는다고 설해져 있다. 목환자는 무환자과에 속한 중국 원산지의 모감주나무를 말한다. 근간에는 종류도 많아서 보리수염주, 율무염주, 산호염주, 수정염주, 금강염주 등 매우 다양하지만 애초에는 경전에 의거해 모감주나무열매를 가지고 염주를 만들었던 것이다. 백팔염주는 〈목환자경〉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백팔번뇌를 상징해서 지어진 숫자이다. 중생의 마음에서 일으키는 번뇌의 종류가 어찌 백팔가지만 되겠으랴마는 백팔이라는 숫자를 산출한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중생은 안(眼: 눈) 이(耳: 귀) 비(鼻: 코) 설(舌:혀) 신(身: 몸) 의(意: 뜻) 인 육근(六根)을 가지고 색(色: 물질) 성(聲: 소리) 향(香: 냄새) 미(味: 맛) 촉(觸: 감촉) 법(法: 대상) 인 육경(六境)속에서 산다. 즉, 눈은 물질과 만나고 귀는 소리와 만나며 코는 냄새와 만나고 혀는 맛과 만나며 몸은 감촉과 만나고 마음은 대상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만난 육근과 육경은 손바닥이 서로 마주치면 소리가 나듯 좋다(好:호) 나쁘다(惡:오) 그저그렇다(不等: 평등)는 세가지 분별을 일으켜 열여덟가지 번뇌를 생기게 하는가 하면 (6×3=18), 즐거운 느낌(樂受: 낙수) 괴로운 느낌(苦受: 고수) 무덤덤한 느낌(捨受: 사수)을 일으켜 열여덟 번뇌를 생기게도 하여(6×3=18)도합 36번뇌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파생된 36번뇌는 이제 시간적으로 작용하여 과거 현재 미래 삼세(三世)에 걸쳐 이미 지어놓거나 지금 짓고 앞으로 지을 것으로 소급되어(36번뇌×3세) 백팔가지의 번뇌의 숫자가 나오게 된 것이다. 혹자들 중에는 번뇌를 자기를 괴롭히는 잡념이나 고민거리를 가리키는 줄 잘못 알고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는 자못 그 범주가 넓다. 여기서는 이록 번뇌의 종류를 108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번뇌의 수효는 한량이 없다. 법을 깨쳐 부처가 되기전까지 일으키는 생각은 모두 번뇌 아님이 없다는 것이 아마 옳은 말일 것이다. 그것이 고통스런 마음이 되었건 즐거운 마음이 되었건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건 미워하는 마음이 되었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일으키는 일체 마음작용은 모두 번뇌가 되는 셈이다.



◇현정 作 '선(禪)'

범어 클레사(Klesa)에서 비롯된 번뇌는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근본으로 미혹, 오염, 새어나감, 맺힘, 폭류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염주를 굴리는 까닭은 바로 이같은 번뇌를 부처로 만들어 생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함이다. 한 구슬마다에 한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번뇌인가 부처인가는 염주를 소유한 사람에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45

불교와 수학 ㊵

무한비교

김 용 운

깨달은 두 眞人의 경지 비교 불가능
수학의 무한론 대소·우열 차이 없어

대오의 경지를 수학의 무한에 빗대면 매우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학에서는 두 개의 양에 대한 비교를 1대 1로 설명한다.

어느 강연회를 개최한 강당에는 일정한 수의 의자가 있으며 한 자리에 꼭 한 사람이 앉는 것으로 가정해 보자(의자는 100개로 가정한다). 수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그 많은 사람의 수를 정하는 척도는 강당 안에 있는 의자의 갯수이다. 이때 3가지 경우가 있다.

①빈 의자가 있다면 참석가 수는 그 의자의 수인 100보다 적다.

②빈자리와 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참석자 수는 꼭 100이다.

③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수에 100을 합친 것 만큼의 참석자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정을 내리는 데는 1대 1 대응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즉 두 집합 A,B 사이에 하나도 빠짐없이 1대 1 대응이 성립할 때는 A와 B의 수가 같으며 과부족이 생길 때는 그 수만큼의 차이가 있다. 얼핏 유치하기조차 한 이 생각이 무한을 셈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한을 셈할 때 기본적인 척(尺) 역할을 하는 것이 {1, 2, 3, …… n, …}라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다. '1, 2, 3, … n, …'은 가장 기본적인 수이며 얼마든지 늘어가는 '무한'이다.

지금 집합 A를 '1, 2, 3, …… n, ……'로 하고 B를 '2, 4, 6, …… 2n, ……'으로 된 짝수 전체를 집합이라고 하자. 분명히 짝수의 집합인 'B=2, 4, 6, …… 2n, ……'는 자연수 전체 집합 'A=1, 2, 3, …… n, ……'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하나의 빈틈도 없는 1대 1 대응이 이루어진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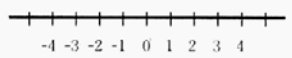
1, 2, 3, …… k, ……
↕ ↕ ↕ ↕
2, 4, 6, …… 2k, ……

다시 말해서 짝수 2k에 k를 대응시킴으로써 전혀 빈틈없이 1대 1 대응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짝수 전체와 자연수 전체가 같은 정도의 수를 갖는다고 단정지을 수 있다. 짝수의 집합뿐만 아니라

10배수의 집합 C={10, 20, 30, ……}

100배수의 집합 D={100, 200, 300 ……}

등과 자연수 전체의 집합은 같은 정도의 무한인 것이다. 또 n에 1/n을 대응시키면 {1/1, 1/2, 1/3, ……, 1/n, ……}라는 1보다 작은 1을 분자로 갖는 분수 전체의 집합과도 같은 정도의 무한이다. 한편 자연수보다 큰 집합인 0과 마이너스의 수를 포함한 수들의 집합을 생각해 본다. 알기 쉽게 이들을 수직선 상에 나열해 보자.



1, 2, 3, 4, 5 …… 자연수는 0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뻗어 있고 -1, -2, -3, -4, -5 …… 음의 정수는 0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뻗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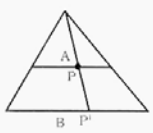
분명히 눈으로 보기에는 좌우 양쪽에 걸쳐 뻗어 있는 음수를 포함한 정수 전체의 집합은 양(플러스)만으로 되어 있는 자연수 1, 2, 3, 4, 5 …… n, …… 의 집합보다 크다.

그러나 정수 전체를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붙여 갈 때, 이들 사이에 1대 1대응이 빈틈없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의 자연수 k에는 2k, 마이너스의 정수 -k에는 2k+1을 대응시키면 이들 사이에는 어김없이 1대 1 대응이 성립한다. 이와 같이 1대 1 대응으로 수들 사이의 크기를 비교하면 미처 상상하지 못한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짧은 선분이라도, 가령 0과 1 사이의 '0 ---------- 1'과 어떤 길이를 갖는 직선 사이에도 1대 1의 대응이 가능하다. (P와 P'로 대응시킨다)



옆 그림은 선분 A와 선분 B 사이에 1대 1 대응이 성립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입장에서 보면 무한개의 점을 갖는 선분 사이에도 큰 것, 작은 것의 구별이 없어짐을 알 수 있다.

수학적인 무한논의 입장에서도 대소, 우열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물며 마음의 세계에서 대오(大悟)의 경지를 얻은 두 진인(眞人) 사이에 비교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 來 健 康 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돕화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무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 (02)738-8447~8

"회암사 다시서는 날 나라 흥한다"



◇회암사지 북측 담장지를 시굴하는 경기도박물관 연구원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회암사지에는 보물급 문화재로 선각왕사비(나옹선사비)와 무학대사부도 등 10여점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회암사 다시 서는 날, 불법과 나라가 크게 흥하리라."

IMF 국난에 처한 우리 국민들에게 눈이 번쩍 뜨이고 가슴 뭉클해지는 말이다. 일찍이 양주 회암사를 둘러 본 인도의 고승 지공스님은 원나라에서 귀국길에 오르는 나옹선사에게 이 말을 전했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양주목 불우조). 이러한 인연으로 회암사는 고려를 거쳐 억불정책을 펴왔던 조선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국운과 불법을 펼 수 있었다. 바로 그 회암사가 현재 천보산 자락의 빈 절터 회암사지(사적 제128호)로 남아 있다. 한때 고려와 조선의 흥국사찰로 전국사찰의 총본산이었지만 근대에 와서 만신창이가 됐다. 2백62칸이라던 건물은 흔적없이 사라지고 무성한 잡초사이에 주춧돌만이 남았다. 옛 사지 한켠에는 사사로이 거대한 무덤이 들어섰고 울창한 소나무숲은 옛 자취를 뒤덮고 말았다. 누구하나 돌보는 사람없어 옛 절터인지도 몰랐다. 안내판만이 외로이 회암사지의 옛 영화를 말해주고 있다. 과거 천보산 기슭에 남향해 앉은 회암사는 3면이 숲으로 둘러싸여 아늑하고 전망이 탁 트여 시원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거대한 레미콘공장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말 회암사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허허로운 벌판과 산중에 주춧돌만으로 명맥을 유지해 오던 회암사지의 발굴복원이 양주군과 회천읍청년회 등의 손에 의해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IMF의 한파에도 시퍼런 겨울날씨에도 아랑곳없이….

경기도박물관(관장 장경호)은 2002년까지 6차에 걸쳐 발굴작업을 실시한다. 현재 진행중인 시굴조사를 토대로 본격적인 발굴이 문헌조사와 병행해 올 3월부터 시작된다. 발굴이 완료되면 사유지를 매입, 연차적 복원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간다. 양주군은 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 회암사지에 대한 포럼 및 캠페인 활동을 펼쳐 회암사지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복원불가피성을 역설할 방침이다.

국가전체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이때 착수된 발굴조사는 불자들보다도 경기도와 양주군민들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발굴에 필요한 예산만해도 7억3천여만원이 소요되는 대불사를 왜 하필 이때 시작하게 되었나. 그 해답은 우리 민족사를 보면 나온다. 신라나 백제의 경우 주변 세력들의 잦은 침략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당시 최대의 거찰 황룡사와 미륵사를 창건했다. 신라는 미륵신앙과 화엄신앙을 수용해 전통문화의 포용과 불교의 대중화로 삼국통일의 기틀을 다졌고, 백제는 귀족적인 미륵상생신앙을 하생신앙화해 미륵사의 대중적 전개를 이뤄 백제중흥의 기치를 들었다. 우리 민족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대찰을 세워 정신적 귀의처로 삼았으며, 이를 계기로 다시 일어섰다.

회암사 역시 원의 간섭으로 민족의 얼이 사라지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고려말에 부처님의 가피로 또한번 역동적인 변화를 꿈꾸던 고승 나옹선사가 중창했다. 나옹선사는 스승 지공화상이 '삼산양수간(三山兩水間)'에 머물도록 한 유언에 따라 이 회암사에 주석하면서 불사를 크게 일으켰다. 외국자본에 의해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회암사의 시절인연은 도래한 것이다.

무엇보다 하계에서는 회암사가 나옹선사 중창 당시의 가람규모와 배치를 알 수 있는 문헌자료와 실제 건물이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나옹의 비문을 지은 바 있는 고려말의 유학자 목은 이색은 〈천보산회암사수조기〉에서 "절의 크기가 모두 2백62칸이며, 15척이나 되는 불상과 10척 크기의 관음상이 7구나 모셔져 있다", "남향한 5칸짜리 보광전을 중심으로 동서 좌우로 여러 전각이 우뚝 솟아나고 여러 요사가 얽혀 있으며…집과 지붕들이 연달아 괄쳐지며 회랑과 월랑들을 넘을처럼 두르고 높고 낮은 것이 아득하여 동서를 알지 못한다", "굉장하고 미려해서 동국에서 첫째다. 감호를 유람한 자들이 모두 일컫기를 중국에서도 많이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과장이 아니다"고 했다.

현재 남아있는 석축과 당간지주, 주춧돌 등도 비교적 잘 보존돼 과거의 웅장한 모습을 찾기에 충분하다. 특히 목은선생의 문헌기록과 90년 기초조사를 토대로 김홍식씨(문화재 전문위원)가 추정한 '회암사지 가람배치도'는 이번 발굴조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회암사지 발굴 복원사업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 사적지로 지정돼 있는 회암사지내 토지 3만4천4백28㎡ 가운데 약 60%인 1만9천5백62㎡이 사유지로 돼 있다. 개인의 묘소도 사적지내에 자리하고 있다. 사적지내 개인사유지의 토지매입이 시급하다.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정부와 불교계가 적극 나서 사적지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장기복원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복원에 앞서 회암사지의 시야를 방해하는 레미콘공장과 채석장을 철거하는 사적지 정비도 회암사지 존재를 알리는 데 한 몫을 할 것이다.

인도의 최대사찰 나란타사와 지형이 비슷하다고 하여 세워진 회암사지. 황화가 꺼진 이후 오랜 세월 거친 풍파를 이겨낸 석조물만이 오늘에 남아 그 옛날 삭어버린 온기를 전하고 있다. 분명 회암사는 길지다. 가까이는 삼각산을 마주하였고, 남쪽에는 한강이 있으며 북쪽에는 장단이 있으니 '삼산양수'라는 말을 환히 볼 수 있다. '회암사를 일으키면 나라와 불법이 자연히 흥한다'는 말이 정녕 사실이 아닐까.

글=윤기석 사진=고영배 기자



◇지공화상



◇나옹선사



◇무학대사

석축 · 3화상부도 · 주춧돌 등 보존 '262칸 가람'
이색의 '천보산…' 에 가람배치 자세히 설명
경기도박물관 2002년까지 6차례 발굴작업
양주군 복원추진위 구성 역사적 가치 조명
사적지 60% 사유지 · 인근 레미콘공장 '걸림돌'



◇262칸 대가람이었던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회암리소재 회암사지 전경. 전면에 당간지주가 보인다.

복원에 앞장서는 사람들



장 경 호
경기도박물관 관장

"유교를 국교화했던 조선시대에도 회암사는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국찰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회암사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사적지내 사유지 매입, 레미콘 공장의 이전 등 주위환경의 정비가 우선돼야 합니다."

회암사지 발굴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장경호관장(경기도박물관). 미륵사지 등 숱한 발굴조사를 통해 학계에 방대한 연구자료를 제공한 그가 회암사지에 갖는 관심은 남다르다. 회암사지는 자연지세를 따라 조성된 고려의 마지막 사찰로 고려후기에서 조선초기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사원의 면모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장관장은 회암사의 발굴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사적지 외곽에서도 유구들이 나오고 있어 주변지역도 사역(寺域)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천보산 자락에 숨어있는 17개의 암자를 찾아내는 일도 앞으로의 과제다.

장경호관장은 "온 나라가 경제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회암사 제모습 찾기는 21세기 문화대국으로 향하는 힘찬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강한 의욕을 표시했다.

"회암사 복원에 국민의지 결집하자"

이 상 원
양주군의회 부의장



"회암사지에 모셔진 지공·나옹·무학대사는 고려·조선 양대를 거치면서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지만 교단을 도와 외풍을 막고 내실을 기해 교세진작은 물론 국가를 일으키신 분들입니다. 이같은 회암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정신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회암사지를 지척에 두고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현실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이상원의원(양주군의회·회천읍청년회 초대회장). 95년 자신이 초대회장을 역임한 회천읍청년회를 중심으로 회암사지 복원의 원력을 세웠다.

의회에 들어가서도 회암사 복원의 당위성을 누차 강조했다. 발굴을 시작으로 복원의 첫발을 내딛었지만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 우회도로 개설, 사적지 발굴 및 정비 등 보존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예산부족, 토지매입 등 난관에 봉착했다.

이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불교계가 협조해 하루바삐 사적지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장기복원계획을 수립한다면 회암사지는 전국민의 정신적인 귀의처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정신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야"

회암사 어떤 절이었나

지공·나옹·무학 등 선승 주석
조선 최대사찰…명종이후 쇠퇴

한국인이라면 황룡사나 미륵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반면 고려·조선의 최대사찰 회암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최근 KBS대하역사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함흥에서 돌아온 태조 이성계가 태종에게 옥새를 넘겨주고 무학대사의 지도아래 수행을 하던 곳으로 알려지면서 겨우 그 존재를 세상에 알리게 됐다.

회암사는 지공화상·나옹선사·무학대사로 이어지는 걸출한 선승들이 주석하면서 명성을 드날렸다. 고려 충숙왕 15년(1328) 인도에서 들어온 지공화상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그 훨씬 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주목 불우조'에 1174년 금나라 사신을 여기서 맞이했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 태고 보우스님이 13세에 회암사 광지선사께 출가했다는 내력이 그의 비문에 적혀있다. 지공화상은 이곳의 형세가 천축(인도)의 나란타사와 같아 큰 절을 지을 만하다고 생각해 크게 재창건하고, 나옹선사도 스승의 뜻에 따라 오늘날의 규모로 중창했던 것이다.

조선에 와서도 회암사는 태조 이성계의 각별한 관심으로 번창했다. 무학대사를 머물게 하고 7차례나 친히 다녀갔으며 많은 전답을 내렸다. 조선 명종때는 불심이 두터운 문정황후의 신임을 얻은 허응당 보우대사가 이곳에 머물며 기울어져가는 불교를 중흥하는데 힘써 회암사는 나옹선사 이후 2백여 년간 전국 제일의 수행도량이 됐다.

그러나 문정황후 사후 보우대사는 제주도로 유배돼 처형당하고 회암사의 운명도 불길에 휩싸여 점차 쇠퇴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회암사지에는 지난해 산불로 훼손된 선각왕사비(보물 제378호), 무학대사부도(보물 제388호)와 쌍사자석등(보물 제398호)를 비롯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지공화상의 부도와 석등(제49호), 나옹선사의 부도와 석등(제50호), 무학대사부도비(제51호), 회암사지부도(제52호), 민속자료 1호 회암사지 맷돌 등 다수의 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진구품(塵垢品) ①

生無善行 생무선행
死墮惡道 사타악도
往疾無聞 왕질무간
到無資用 도무자용

살아서 선한 행을 하지 않으면
죽어서 악도에 떨어진다
쉴틈 없이 악도로 달려가지만
가서는 노자 돈 한푼이 없다

當求智慧 당구지혜
以然意定 이연의정
去垢勿汚 거구물오
可離苦形 가이고형

그러므로 마땅히 지혜를 구하여
그로써 마음이 선정에 들게하고
번뇌의 때를 씻어 더럽히지 않으면
형상계의 괴로움을 여읠수 있게 된다

慧人以漸 혜인이점
安徐稍進 안서초진
洗除心垢 세제심구
如工鍊金 여공연금

지혜로운 이는 차츰차츰 닦아
인색함은 베푸는 일의 때가되고
선하지 않은 것은 행실의 허물이 되며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나쁜 법은 언제나 때가 된다

垢中之垢 구중지구
莫甚於癡 막심어치
學當捨惡 학당사악
比丘無垢 비구무구

허물 중의 허물로서
어리석음보다 더 한 것은 없다
공부하는 이 마땅히 악을 버려라
비구들이여, 때가 끼지 않게하라

苟生無恥 구생무치
如烏長喙 여조장훼
强顏而搏 강안내욕
名曰穢生 명왈예생

구차히 살면서도 부끄럼이 없으면
마치 탐욕스런 새 부리 긴 것 같고
낯두껍게 욕됨을 이겨내는 것
그것을 더러운 삶이라 한다

廉而雖苦 염치수고
義取清白 의취청백

"인색함은 베푸는 일의 때가 되고 선하지 않음은 행실의 허물된다"

서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서
마음의 때를 말끔히 씻는다
마치 숙련공이 쇠를 불림과 같이

惡生於心 악생어심
還自壞形 환자괴형
如鐵生垢 여철생구
反食其身 반식기신

악이 마음에서 생겨나
도리어 제 몸을 허무는 것은
마치 저 쇠붙이에 녹이 생겨서
도리어 제 살을 깍아먹는것과 같다

不誦爲言垢 불통위언구
不勤爲家垢 불근위가구
不嚴爲色垢 불엄위색구
放逸爲事垢 방일위사구

글을 읽지 않음은 입의 때요
부지런하지 않음은 집의 허물이고
근엄치 않으면 몸의 때가 되고
방일하는 것은 일의 허물이 된다

慳爲惠施垢 간위혜시구
不善爲行垢 불선위행구
今世亦後世 금세역후세
惡法爲常垢 악법위상구

避辱不妄 피욕불망
名曰潔生 명왈결생

염치를 차리기란 비록 괴롭지만
뜻으로 맑고 깨끗함을 취하고
욕을 피하되 망념되지 않으면
그것을 깨끗한 삶이라 한다

愚人好殺 우인호살
言無誠實 언무성실
不與而取 불여이취
好犯人婦 호범인부

어리석은 이는 살생을 좋아하고
말에는 진실함이 없으며
주지 않는데도 취하려하고
남의 부인 범하기를 좋아한다

逞心犯戒 정심범계
迷惑於酒 미혹어주
斯人世世 사인세세
自掘身本 자굴신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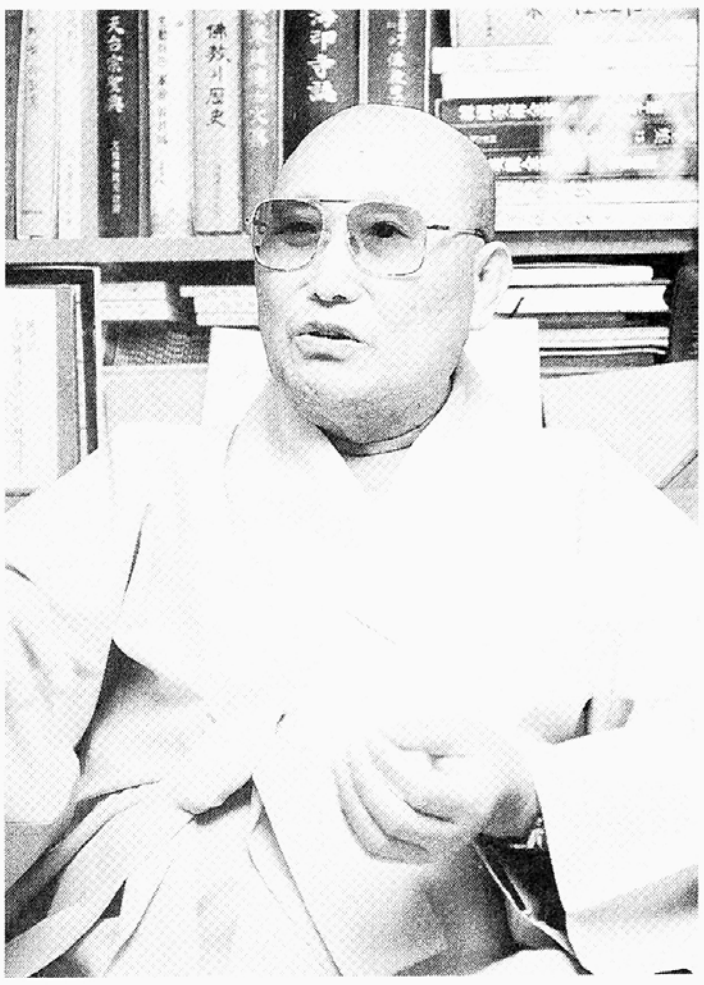
욕심 나는대로 계를 범하고
술에 빠져 미혹하면
이런 사람은 세세생생에
스스로 제 뿌리를 캐내는 것이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참모습 못보는데서 땅에 넘어진 사람 땅 딛고 일어나야 하듯 IMF시대 나랏살림 거품빼고 과욕버려야 회생할 수 있습니다

숭산스님 〈화계사 조실〉



· 1927년 평안남도 순천 生
· 순천 공립학교, 평안 공업학교, 동국대 불교과 졸업
· 47년 고봉스님 은사로 득도
· 50년 수덕사에서 하안거 이후 10안거 성만
· 마곡사 대교과 졸업
· 66년 일본 동경에 홍법원 건립 이후 대만 미국 홍콩 브라질 프랑스 등 세계각국에 홍법원 설립 선수행 지도
· 〈천강에 비친달〉등 법어집 다수 간행
· 現 조계종 원로의원

"한국화도 못한채 '세계화' 찾다 남에게 도움 청하는 신세됐어요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성한법"

온 나라가 어수선 합니다. 누구든 입만 열면 경제 얘기를 합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목표를 잘못 세웠던 탓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가다듬지 못한채 너무 거창하게 세계화라는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을 잘못 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미궁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좀 풍요로와 지니까 우리도 서구 선진국의 흉내를 내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과욕이 생겼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이라는 수치가 과욕의 도화선이 되었고 거기서 붙은 불은 소비와 향락의 잿더미를 안겨준 것입니다. 이제 참회할 때입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라는 수치상의 발전이 우리의 현실적인 풍요라고 믿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잘사는 나라의 뒤꽁무니만 허겁지겁 따라다니다 보니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들이 국민의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인양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착각을 한 국민이나 그렇게 수치를 앞세워 치세의 공을 선전한 정부 관료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 경제대란은 누구 한사람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착각과 과욕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발을 땅에 두지 않고 허공에 목표를 매달아 둔채 정신없이 헤매다가 이제서야 국제통화기금(IMF)이라는 철퇴를 한방 맞은 꼴입니다. 아픕니다. 정신이 아뜩합니다. 이제 빨리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 보아 우리의 참모습을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땅에 넘어진 사람은 땅을 딛고 일어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난세야 말로 호시절'이란 말씀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넘어진 땅이 재기의 토대가 되고 마음만 흐트리지 않으면 난세를 빌어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 '죽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며 시절만 탓하다보면 정말 힘들어 죽고맙니다.

나는 청년시절에 일본 경찰에 잡혀 감옥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양서 학교를 다니다가 느닷없이 일본 경찰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죄라야 일본인 학생들을 때려주고 골탕먹이는 정도지요. 그런데 감옥까지 들어가다니 정말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과학에 관심이 많던 내가 당시로선 구하기도 힘들고 일반인이 소지해서는 안되는 부속품들을 좀 모아갖고 있었던 것이 독립군을 돕는 것으로 오해되어 치른 옥고였지만 그곳에서 나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을 실감했던 것이지요. 일본인 형사들은 아예 나를 독립운동하는 학생으로 표적을 정해두고 심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 한마디를 어떻게 받아 넘기느냐에 내 삶의 방향이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쌀 암매상이나 고기 암매상들이 "어떤 걸 물어도 정신을 차리고 곰곰히 생각해보고 대답하라"고 조언을 했기에 나는 내가 어떤 일에 휩쓸려 있고 나의 대답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린 나이에 감옥과 일본 형사라는 환경에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신을 바로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운 셈입니다.

우리의 경제가 어려우면 그 어려워진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 원인을 봐야합니다. 참선 수행법에 관(觀)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경제대란의 원인을 제대로 관해야 합니다. 머리로 계산해서 알아내는 것은 관이 아닙니다. 분석이고 추산일 뿐입니다. 관이란 마음의 잣대, 다시말해 우리의 정신상태까지를 철저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가 받고있는 고통의 근원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섣불리 세계화라는 거창한 구호를 목표로 삼은 과거의 허세를 걷어내야 합니다. 요즘 거품을 뺀다는 말이 유행입니다. 우리 경제가 거품위에 떠 있다가 이제야 땅으로, 우리의 현실로 그 발을 붙이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들 정신 속의 거품도 속속들이 빼내야 합니다. 세계화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나는 세계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국화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경제, 문화, 사상은 급변하는 사회 정치 경제질서 속에서 국적을 잃어 버렸습니다. 우리민족이 태어나 살아온 땅인 이 한국이란 국적을 잃어 버리고 서양식에만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화도 못한채 세계화를 넘보다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한국화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화적 뿌리, 우리의 정신사상적 뿌리를 올바르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다가 현대화의 정치 경제 문화를 접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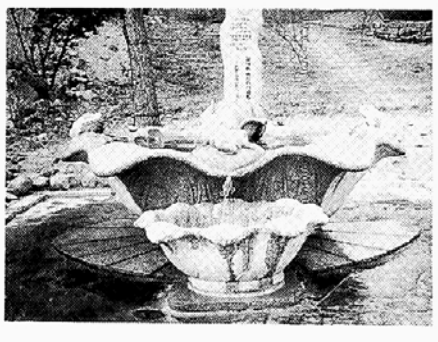
나는 지난 30년간 세계 30여개국에 160여개의 홍법원과 선센터를 세우며 불법의 세계화를 위해 뛰었습니다. 내가 무슨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삼 장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벌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 옥 수 합장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97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예약접수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97년 한해를 총집결한 합본 '97년판을 발간합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예약주문 하시는 분들께는 1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합본집('97년판) : 제109호(1997년. 1 . 1)-제 156호(1997.12.24)
■ 가 격 : 60,000원(발송비 별도) ※할인가격 : 54,000원
■ 예약접수기간 : '98년 1월 24일까지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代) 02)737-8881 팩스 : 02)737-0697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주)현대불교신문사

큰스님 수행한담

번뇌 시작됩니다”

“불교가 무엇입니까” 묻듯 “경제·정치·문화 무엇입니까” 화두풀듯 노력하면 어려움 극복



◇66년 일본 동경에 홍법원을 세우면서 숭산스님의 해외 전법이 시작됐다. 사진은 70년대 초반 일본 정토종 본부에서 한일불교지도자들이 기념 촬영한 모습.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숭산스님.

“근원캐보면 ‘春日鷄聲’에서도 불법만나” “세상일에는 목적·목표가 있어야합니다”

사업가여서 세계에 그렇게 많은 사무소를 설치하고 외화를 벌었으면 참으로 국익에 보탬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수행자로서 돈이 아닌 정신으로 국익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아상을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했던 원인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66년 일본의 수도 동경에 홍법원을 세운 이후 대만과 미국 등 서구 유럽에 차례로 홍법원을 세워 그곳 현지인들에게 선수행을 가르칠 수 있었던 원인. 여러분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한국선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이었거나 스피노자의 철학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과학 기술 분야거나 정치경제를 찾기도 전에 자본주의의 달콤한 맛에 빠져 또 한번 정신을 잃어 버렸던 것 입니다. 그러다보니 한국화, 한국적인 것을 챙기지도 못하고 세계화의 깃발을 달고 높히 날아가는 꿈만 키웠던 것입니다.

세상의 무슨 일에든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앞길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IMF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짧은 견해일 뿐입니다.

아까 땅에 넘어진 사람은 땅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의 목표는 IMF를 빌어서 정말 한국적인 기업, 진실로 한국적인 경제구조를 창출해 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굵고 깊은 뿌리가 있는 경제대국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의 일이 급합니다. 외화를 벌어야 하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목표는 보다 더 멀고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터무니 없이 높게 목표만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첫발을 내디디며 다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데도 먼저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갈길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를 믿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는대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는 이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옛날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如何是佛法)?”

“봄날 닭우는 소리이니라(春日鷄聲).”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교가 무엇이냐고 묻는데 봄날 닭우는 소리라니. 봄날에 닭이 우는 소리가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봄날 닭우는 소리를 알면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했잖습니까. 닭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그 소리를 들었나요. 내가 들었습니다. 무엇으로 들었는가요. 귀로 들었습니다. 그럼 죽은 사람의 귀도 뚫려 있는데 그 죽은 사람도 들을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그럼 나는 무엇으로 봄날 닭의 울음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나는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 이렇게 자기의 근원을 캐 묻고 또 캐 묻는가운데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를 봄날 닭우는 소리라 해서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닭울음 소리에도 불법의 적적대의(的的大義)가 들어 있는 겁니다. 익히 들어 본 것이지만 선문답을 더 들어 봅시다.

어떤 스님이 동산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如何是佛)?” “삼서근이니라(麻三斤).” 또 어떤 스님이 운문스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如何是佛)?” “마른 똥 막대기니라(乾屎橛).” 불교를 묻는데 이런 괴상한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처를 똥막대기에 비유한다는 겁니까. 모를 일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그 말을 한 놈이나 듣는 놈이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르느냐. 그 말한 것, 부처나 똥막대기 마삼근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너와 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또 무엇이냐. 그것은 곧 부처입니다. 마조스님의 유명한 공안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마조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如何是佛)?” “마음이 곧 부처니라(心卽是佛).” “어떤 것이 마음입니까(如何是心)?” “부처가 곧 마음이다(佛是卽心).” 마음과 부처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처이고 부처가 곧 마음이란 것인데 문답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부처냐고 다시 물어 보는데 그 때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非心非佛)라고 합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집착이 없어서 부처에게 의지하지도 않고 마음에 매달리지도 않는 곳에서 부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장난 같기도 하고 도무지 헷갈려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선 공부하는 이들에게 기본이 되는 이 화두들을 들어 설명하는 것은 불교를 쉽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묻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무엇이 부처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대답은 가지각색입니다. 말로 글로 이름지어진 것에 집착해서는 그 도리를 절대 알지 못합니다. 태양을 일본사람은 ‘다이요’라 부르고 미국 사람들은 ‘Sun’이라 부릅니다. 그렇다고 태양의 본질이나 그 빛이 변하는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던 상관없이 태양은 그렇게 떴다 집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인간이라는 ‘나’를 비롯해 모든 사물의 진실, 그 본래의 모습입니다. 진실된 모습,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섣불리 이름을 붙여 버리는데서 우리의 번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목적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면 무엇을 깨달을 것인지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 깨달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장서방이 장에 가니 나도 간다는 식으로 불교를 믿으면 번뇌의 그늘만 더 커지는 겁니다.

요즘의 경제위기도 우리가 우리의 본질, 우리 나라의 현실을 잘 들여다 보지 못하고 다른 나라가 가는 길이 위대하게만 보여서 무작정 그 길을 따라 가다가 만난 막다른 길인 것입니다. 옛 선사들이 끊임없이 “무엇이 불교인가”를 물었듯이 현대인들도 끊임 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대에 맞는 불교의 실체가 보일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구도심이 없는 세상은 경제, 정치, 도덕, 문화도 없습니다. “무엇이 불교입니까?”라고 묻듯 “무엇이 정치입니까?” “무엇이 경제입니까?”라고 물어 봅시다. 오늘의 어려움이 극복될 것입니다.

정리=임연태 기자

나와 경전 38

육방예경



본 각
중앙승가대 교수

학인시절 접했던 많은 경전들 가운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진리이며 스승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깨우쳐준 것이 바로 〈육방예경〉이었다. 산문과 운문이 적절히 융합을 이루며 설해지는 이 경전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적 윤리생활을 가르친 대표적인 불교문헌이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밖 죽림에 계실 때, 젊은 가장인 싱가라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훈을 따라서 여섯 방위에 예배하는 것을 목격하시고 이 젊은이를 향하여 육방에 예를 하는 의미를 규정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를 설하신 것이 바로 〈육방예경〉이다.

이 경은 보다 정확히 〈불설시가라월육방예경〉이라고 한다. 이 경전은 여러 본이 있는데, 먼저 팔리어 원전의 명칭은 〈싱가로바다수탄타(singalovadasuttanta)〉로서 〈교수시가라월경(教授尸迦羅越經)〉이 된다. 한역본으로서는 〈장아함경〉 권 제11에 수록되어 있는 〈선생경(善生經)〉, 〈중아함경〉 권 제33에 수록되어 있는 〈선생경〉 등 여러 이본이 있다. 이 경은 기원 3세기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며, 원시 〈아함경〉에 속하는 경전이다.

부모·처자 등 대하는 자기의무 담아 세상 살아가는 도리 자세히 가르쳐

이 경은 육방을 통하여 예배하고 존중할 대상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동쪽에 대한 예배는 곧 부모님께 대한 예로써 자신의 생명존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에 대한 예배와 공경을 동방으로써 상징하고 있다. 그 다음 서쪽에 대한 예배는 아내와 자식에 대한 예배이다. 더불어 사는 가족에 대한 지고한 사랑과 소중함을 예배로써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 남쪽에 대한 예배는 자신을 향상시켜 준 스승에 대한 예배이다. 스승에는 삶의 전반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스승도 있을 것이며, 지식을 일깨워 준 스승도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어두운 요인들은 어느 의미에서는 스승에 대한 존경을 상실한 데서 오는 불행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가 남쪽을 향하여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스승에 예배할 수 있는 심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건실함을 되찾게 될 것이다.

북쪽은 곧 벗에 대한 예배이다. 일생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선의의 경쟁자로서 우리는 좋은 벗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윗쪽은 정신적인 종교지도자에 대한 예배이다. 현실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정신을 향상시켜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일을 도우는 고용인들에 대한 예배이다. 모든 일의 성취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부처님 당시 2천여년전의 고대사회에서 설해진 경전임에도 처자와 고용인에 대한 감사와 예배를 설하고 있는 점은 놀라우며 불교적인 생명·평등사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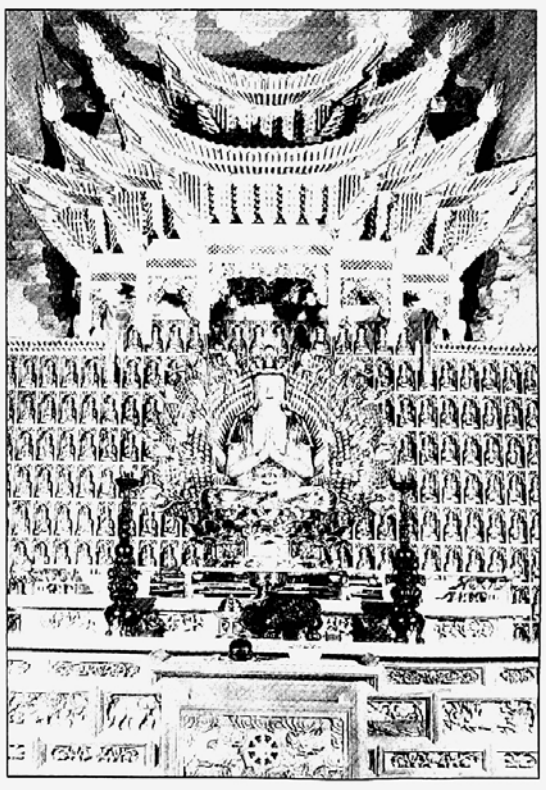
이 경전은 상대방에게 예배하는 의미의 내용으로써 철저하게 각자 자신들의 의무를 설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남편으로서 아내를 예배한다 함은 아내를 마음으로 존경해야 하고, 타인 앞에서 경멸하지 말 것이며, 난잡한 행동을 해서는 안되고, 가사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몸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장신구를 사주는 등 다섯가지의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아내에 대해 예배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등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남녀 노소 상하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반면에 자식은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이다. 맹목적인 종교행위가 아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위에 종교적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조화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점에 이 경전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요즘 우리의 세상살이가 그 어느때보다도 힘겹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흐트러진 우리 생활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육방예경〉을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자.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 서울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TEL. (02)738-8447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807번지 TEL. (042)483-8466
▷ 공방연구실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25-1 TEL. (0416)857-5825

대표 이진형 합장

사랑분별 끊어진 곳에 '무심' 있다

문답으로 풀어본 禪 (中)

문 유소득의 관념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선근공덕을 쌓아나가지 않으면 만덕원만한 부처는 되지 못할 것 아닌기.

답 화문적으로 말하면 일단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근공덕을 쌓아 부처가 되기를 원한다면 삼대아승지겁이라고 하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본래 태어난 그대로가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다. 많은 수행을 하고, 수행공덕을 쌓은 후에 비로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 그러면 좌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선근 공덕을 실어하고 귀찮게 생각해야 하는지.

답 다른 사람과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배가 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재공한다든가, 옷이 없어 추위에 떨고있는 사람을 위해 의복을 보시한다든가, 병든 환자를 간호해 준다든가, 역시 선근 공덕을 쌓아야 하겠지만, 그러한 행위를 결코 공덕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하거나, 어떤 보수를 구한다거나 달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선수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엇이나 구하는 것이 없다. 무소득의 수행이다. 선수행자는 언제라도 무심이기 때문이다.

문 무심에는 원래부터 미혹이나 깨달음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견성했다든가 깨달음을 체득했다든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답 사물에 대한 일체의 대립적인 사고(思考) 방법을 악지악견(惡知惡見)이라고 한다. 그러한 사량분별이 완전히 다 없어진 그 곳을 무심이라고 말한다. 무심은 망심의 번뇌가 없는 근원적인 본래심을 말한다.

원래 수행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부처를 이루리라' 하는 등의 바람도 갖는 일이 없게 된다. 자기가 미혹한 상태에 있다 라고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깨닫고 싶다는 원(願)이나 소원을 갖는 일도 없다. 세간적인 인기를 많이 얻고 싶다는 등의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인기가 있으며, 좋은 평가를 받을지라도 기뻐하는 일도 없다.

한 생각의 번뇌도 일어나지 않기에, 비방의 감정에 끌리는 일없이 무심하며, 선악이나 미추 등의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이 없다. 남을 미워한다거나 귀여워하는 차별심의 감정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기와 타인과의 분별도 차별도 없고,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구별하여 확실히 나누는 일도 없다.

〈육조단경〉에 '一切善惡 都莫思量'이라고 말하고 있다. 善이라든가, 惡이라든가, 혹은 손해다 이익이다 라든가 하는 것을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선악을 한꺼번에 생각하지 않는 것은 결국 선악에 대한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근원적인 본래심의 집으로 되돌아 가는 일이다.

즉 차별심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고, 일체를 한꺼번에 생각(思量)하지 않는 무심의 입장을 말한다.

이러한 사람을 무심 도인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지극한 대도(大道)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립과 분별의 세계에만 살고 있는 범부나,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얻으려고 허둥대며, 번뇌를 끊고 보리를 얻고자, 부질없이 노력하고 있는 소승 수행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문 경전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 만선만행(萬善萬行)의 공덕을 설하고 있다. 그 정도로 무심이라는 것이 소중한 것이라면 왜 좀 더 무심의 공덕을 적극적으로 설하지 않고 있지.

답 태어나면서부터 깨닫고 계시는 보살님들은 설하지 않아도 이미 벌써 불법을 잘 알고 계신다. 또 범부나 성문 연각처럼 알음알이 · 분별에 떨어져 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불법을 설한다고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설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구경〉에도 '無智人中 莫說此經(智慧가 없는 인간들에게 이 경을 설해서는 안된다)'라고 경계하고 있다.

불교의 학문상에서 팔만사천의 법문을 설하고 있는데 그 근원을 자세히 찾아보면, 색과 공의 이법(二法)으로 돌아간다고 하겠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사대(地水火風) 오온(色受想行識)의 가화합인 우리들의 육체인 것이다. 공이란 번뇌 보리가 나오는 본원의 자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즉 마음을 말한다. 육체는 형체가 있고 색깔이 있기 때문에 색이라고 이름 붙이고, 마음은 형체도 색깔도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일체의 인생문제는 이 색과 공, 즉 육체와 정신, 물질과 마음, 객관과 주관 이 두가지 외에 달리 설할 것이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공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무심의 대도인 것이다. 경전에 공이 설해져 있는 것은 무심이 설해져 있는 것이다.

문 마음이 공이라고 한다면, 지수화풍 사대의 가화합인 육체는 미혹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본래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답 육체나 정신이나 모두 본래 미혹항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하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잠정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진실로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그러한 것을 향해서 미혹이다, 깨달음이다, 선이다, 악이다 라는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문 대승의 보살들은 모두 무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가.

답 불교의 학문상으로 말해 볼 때 보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 묘각(十信, 十住, 十行, 十回向, 十地, 等覺, 妙覺)이라는 52位의 단계를 거쳐 일체의 모든 미혹과 업장을 소멸하고 끊어버리고, 비로소 불과(佛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혹은 번뇌장과 소지장의 두 종류가 있는데, 번뇌장을 다 없앤 보살이라 할지라도 또한 소지장이 남아 있는 한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이다. 십지의 수행을 쌓은 보살일지라도 더욱 더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욕망(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분의 불성에는 계합되지 못한 것이다. 50위를 거쳐 51위의 등각의 지위를 얻었을 때 비로소 이 무심이라는 것에 철저하게 되는 것이다.

문 십지의 수행을 성취한 보살들이라고 할지라도 무심의 법을 잘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초보자인 범부들이 그렇게 높은 경지인 무심의 진리를 알 수 있겠는가. 선은 역시 고고한 삼현, 십성 등의 지위를 세워서 단계를 설정한 것은 잠시 둔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영리한 사람이라면 초발심 때에 곧바로 이 무심의 경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불법은 불가사의한 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문 견성을 하고 깨달음을 체득하면 그대로가 부처라고 말하고 있지만,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조금도 부처처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부처님처럼 후광도 비추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신통력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범부와는 좀 다른 어떤 기특한 작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없는 것 같다. 그래도 견성하면 정말로 부처인가.

답 우리들의 이 현실의 육체는 과거의 망념을 원인으로 하고, 양친의 만남의 인연으로 하여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비록 견성을 했을지라도 신통광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진실로 무심의 경지를 알고, 육진의 경계에 있으면서 육진에 물들지 않고, 망상 그 속에 있으면서 망상에 속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신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근본의 큰 지혜에 통달하고 자재를 얻을 것을 발원하지 않고 헛되이 조그마한 지혜와 좁은 소견의 신통을 욕심낸다면 그것은 이미 불제자가 아니며 천마 외도의 무리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여우나 너구리라도 약간의 신통 변화는 할 줄 안다. 그렇다고해서 과연 여우나 너구리가 존귀한 존재일까? 그와같은 눈앞에 보이는 작용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만 무심의 대도를 수행하여 삼대 아승지겁을 한 순간에 불어 날려버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곧바로 견성 성불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는 것이다.

문 그러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법문은 어떠한 지혜를 작용시켜야만 깨달을 수 있나.

답 경론 등에서 많이 배워서 얻은 지혜를 견문각지라고 한다. 보고 듣고 하여 후천적으로 익힌 지혜인 것이다. 이것은 무지문맹의 범부에 대한 상대적인 지혜인 것이지 반야의 참된 지혜는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의식이 외부로 작용되어 추구해 가는 지혜인 것인데, 의식이 내면을 향해서 의식 스스로 그 가운데에 침잠하고 곧 회광반조하여, 그곳에 본래 있는 그대로의 불성을 발견해 가는 지혜, 이러한 지혜를 혜안이라고 말한다. 이 혜안에 의해 견성성불을 할 수 있다.

> 선근공덕 쌓아 부처 이루려면 삼아승지겁 걸려

문 본래있는 그대로의 견성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회광반조, 의식이 의식 스스로 그 가운데서 자기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기.

답 일체중생을 축소시켜서 말하면 인간이지만, 대개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생명의 기반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본성은 불생 불멸인 것이다.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죽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더럽혀지지도 않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다.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즉 상주 불변한 것이다. 때문에 이것을 불성이라고 말한다. 본분의 자성이라고도 이름하고 있다. 그것은 일체의 모든 생명의 기반이기 때문에 본지법신(本地法身)이라고도 불린다. 삼세 제불도 일체중생도, 평등하게 이 본성을 의지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신의 광명은 가로로는 삼세를 관통하고 있고, 옆으로는 시방세계에 가득차고 있으며, 널리 법계에 충만하여 비추어지지 않는 곳이 없다. 일체중생의 심중에 들어가서는 무시 겁래의 무명 번뇌를 스스로 조파(照破)해 버린다. 이것을 회광반조라고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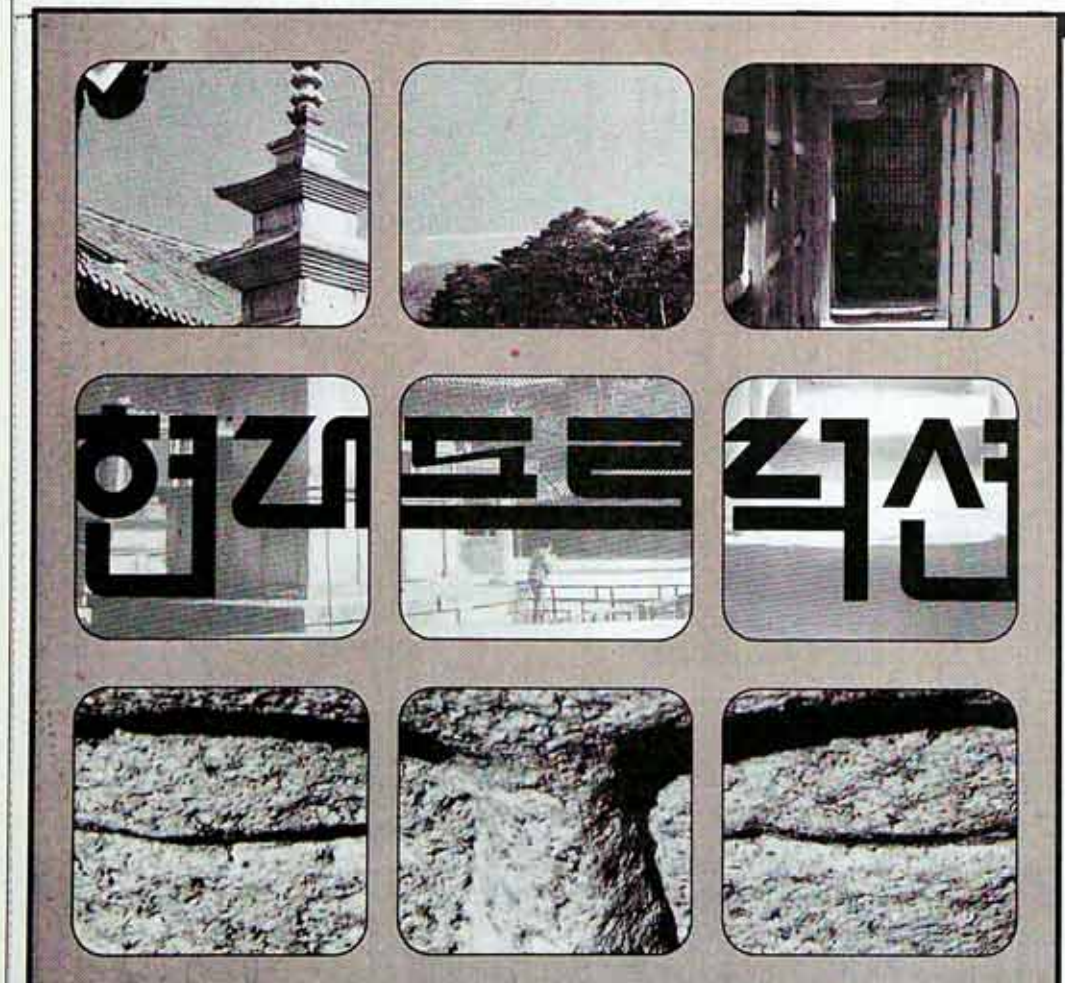
이 반조의 빛이 미치지 않는 곳을 무명의 마구니 경계라고 한다. 이 마구니 경계에 번뇌의 악마 귀신들이 혼잡되어 살고 있어 본래의 불성을 갉아 먹으며 어지럽히고 있다. 이 번뇌의 악귀에 걸리기만 하면 모두 망념을 자신의 본질인 것으로 생각해 버리게 되어 탐욕의 근본인 본능의 만족을 진실한 행복이라고 생각해 버리게 된다. 그리고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 사생, 육도윤회로 끊임없이 미혹의 여행을 계속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한 신세가 되어가지고서 어떻게 생사를 끊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도움말: 성본스님〈동국대 교수〉



◇번뇌 선악 등 차별심에 떨어지지 않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 마음이 공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심의 대도이다.

보살 52위 방편…초발심자도 견성 가능
신통 욕심내면 불제자 아닌 천마외도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트라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 · 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 · 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 · 행사 기획 · 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 · 연출

• 어린이 · 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E PRODUCTION

주소
서울시 용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

"한번 시작한 일 끝까지 포기말라"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14〉

성취동기와 정진

성공한 사람은 남보다 성취동기 강하다
돈·명예 물거품… '팔정도' 정진 생활을

부모의 과보호가 심약한 아이 만든다
어려움 뚫고 나가는 용기와 의지 길러주어야 참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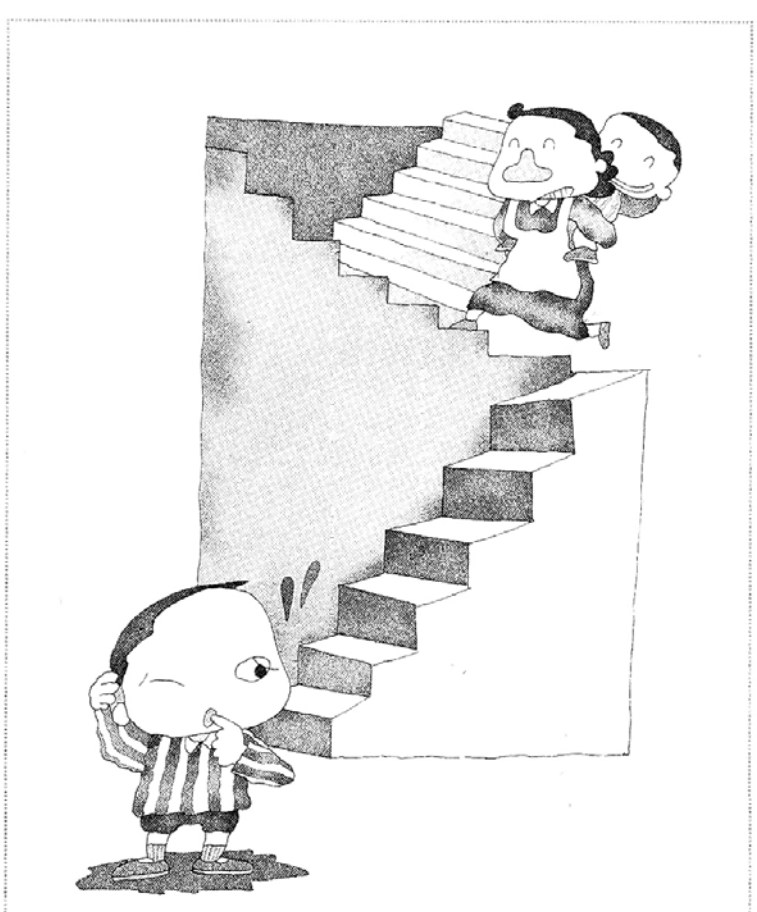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몇 해전에 이색적인 세미나가 교육자와 학부모 공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제목은 "심(心) 약한 어린이 이대로 둘 것인가?"였다. 오늘날의 어린이는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 내지 않고 조금만 힘들면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은 시작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도전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밖에 모르며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을 자기의 고통이나 슬픔으로 여길 줄 모른다. 이렇게 심약(心弱)한 어린이가 된 까닭은 핵가족제도로 인한 부모의 과보호적 현상 때문이 아닌가 한다.

얼마전에 기이한 현상을 보았다.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이 등교하는데 어머니가 책가방을 들고 손을 붙들고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자녀들이 숙제하는 것을 보다 애처로운 나머지 어머니가 공책과 연필을 빼앗으며 "내가 해 줄께"라고 말하며 대행한다. 글씨를 일부러 자녀 글씨답게 쓰며 "네 글씨 같니?"하고 물어 본다. 숙제를 제출한 후 좋은 평점을 받은 어린이는 "엄마 여기 있어"하며 엄마에게 던진다. 내 힘으로 하지 않은 것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이런 말을 들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데리고 문경 새재로 극기훈련을 간 적이 있었다고 한다. 혹시 발병하는 어린이가 있을 것 같아서 차를 따라 오도록 하였는데 배가 아픈 어린이가 2명 있어서 그 아이들을 차에 태웠다. 그런데 5학년 어린이 중 비만인 어린이가 1명 있어서 걷기를 그렇게 힘들어 하였으나 교장선생님이 이 어린이를 도와서 끝까지 걷도록 하였다. 이 어린이는 힘들여서 끝까지 걸어갔으며 성취감에 부풀어서 그렇게 좋아하였다.

학교에 돌아와서 글짓기를 하였는데 교장선생님이 그 어린이의 글에 관심이 있어서 읽어본즉,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하며 "내가 그렇게 고생하기는 처음이지만 끝까지 걸어갔어"라고 말했더니 어머니는 야단을 쳤다고 한다. 야단의 내용은 "너도 배가 아프다고 하였으면 차를 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머리가 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험결과가 있다.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둥근 고리 10개를 주고 이를 던져서 막대기에 들어가도록 요구한다. 거리는 본인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고 거리가 막대기에 가까울수록 낮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이 때 세 유형의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막대기 가까이 가서 10개를 모두 들어 가도록 하는 어린이이며, 다음은 멀리서 던져서, 하나도 안 들어가는 어린이이고, 세 번째는 7개 정도는 들어가고 3개 정도는 실패하는 거리를 선택하는 어린이이다. 이 세 어린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어린이는 세번째 유형의 어린이이다.

성취동기는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욕을 말한다. 요새 어린이에게는 이러한 성취의욕, 성취동기가 결여되어 있다.

오늘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모두 성취동기가 강한 사람들이다. 나는 성취동기가 강한 기업인으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예를 들고 싶다. 그의 자서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있다.

"젊어서 인천에서 노동을 할 때 합숙을 하고 있었는데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것은 빈대 때문이었다. 꾀를 내어 책상을 놓고 그 위에서 자는데 빈대가 기어올라와서 무는 것이었다. 다시 기가 막힌 묘안을 찾아냈다. 그것은 세숫대야 같은 그릇에 물을 넣고 책상다리를 세숫대야에 담그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어찌 된 일인가? 며칠 후 빈대가 또 무는 것이었다. 자세히 관찰을 해 본즉 빈대가 벽을 타고 천장에 기어올라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여기서 나는 크게 깨달은바 있다. 빈대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저렇게 애 쓰는데 인간으로 태어나 빈대만 못할 수 있느냐 하는 깨달음이었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비록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이 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다.

성취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를 향한 꾸준한 노력인데 최근의 청소년에게는 목표의식이 잘못되어 있거나 희박할 뿐 아니라 요행수나 안이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성취동기와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精進)은 다른 개념이다. 성취동기는 목표의 타당성보다 노력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에 중점을 두며, 목표가 있다면 외적인 데 있으며 성취의 시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진은 정정진(正精進)과 같이 올바른 것을 향한 정신세계의 노력을 의미하며 성취의 시점이 없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양자의 공통점은 노력에 있다.

불자의 생활은 정진에 있다. 정진의 생활 없이는 불자라고 말할 수 없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오늘날의 연약한 청소년들에게는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용기와 의지를 길러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무엇을 성취하려는 의욕과 동기이냐가 문제된다. 만일 잘못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동기라면 도리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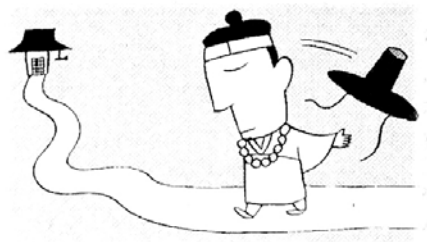
성취동기의 목표를 팔정도(八正道)인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의 씀씀이, 바른 정신통일에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계속 노력 한다면 이는 정진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교육의 문제는 청소년들이 성취의욕이 없는 것도 문제이려니와, 생각하는 목표 자체가 권력, 금전, 명예와 같은 꿈, 그림자, 물거품에 두고 있음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참다운 정진의 생활은 오늘날 청소년 교육의 지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불교에서는 원(願)을 세운다고 한다. 이 원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정진이다. 원은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최고의 원은 사홍서원(四弘誓願)이다. 불자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중생을 제도하고, 번뇌를 끊으며, 한량없는 법문을 배우며, 불도를 이루기' 위한 정진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이관사관이지 뭐." "이관사관 해보는 거야." "이파사관 막다른 길이다."

이처럼 이관사관은 마지막 몰린 궁지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관사관은 이관(理判)과 사관(事判)의 합성어로 불교에서 나온 용어다. 본래 이관은 참선, 경전공부, 포교 등 불교의 교리를 연구하는 스님이고, 사관은 절의 살림(山林)을 하는 스님이다.

이능화씨가 쓴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 하편 〈이관사관사찰내정(理判事判寺刹內情)〉은 다음과 같이 이관승과 사관승을 설명한다.

'조선사찰에 이관승과 사관승의 구별이 있다. 이관이란 창선하고 경전을 강론하고 수행하고 홍법 포교하는 스님이다. 속칭 공부승(工夫僧)이라고도 한다. 사관은 생산에 종사하고 절의 업무를 꾸려나가고 사무행정을 해나가는 스님들이다. 속칭 살림승(山林僧)이라고도 한다. 살림이란 절의 모든 사무와 재산관리를 통틀은 말이다. 이관과 사관은 그 어느 한 쪽이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이관승이 없다면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이어질 수 없다. 사관승이 없으면 가람이 존속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이관사관은 '마지막'을 뜻하는 의미로 바뀌었을까? 조선이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국교로 세우면서 당시 스님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의 신분계층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이관·사관은 끝장이었다.

본격적인 다원종교시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참구해야 할 이관의 책임은 만만치 않다. 또 과학화로 사찰운영이 전산화되고 있으며 사찰재산관리도 현대적 회계 개념이 가미되는 상황에서 사관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할 수 있다.

'이관사관'을 종전의 냉소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사회변화 속에서 한국불교를 이끌어나갈 이관승과 사관승을 일컫는 본래의 의미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참고 안길모著 '이관사관 야단법석'

이판사판

이판승과 사판승의 합성어 '마지막 상황'으로 뜻 변화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삼보사찰
- 불보종찰 통도사
- 법보종찰 해인사
- 승보종찰 송광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 고려대장경 Ⅰ, Ⅱ
- 불국사·석굴암 Ⅰ, Ⅱ

불교전통의식, 의례
- 예불
- 발우공양

불교전통문양
- 한국사찰의 꽃문



▲ 예불
재단음과 중생구제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불교의식 장엄미의 백미인 예불의 전 과정 최초 공개



▲ 고려대장경 Ⅰ, Ⅱ
세계적인 문화유산 고려대장경의 역사적 진실과 신앙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낸 본격 다큐멘터리 제1부 '대결집', 제2부 7백년 보존의 신비'



◀ 석굴암
불교사상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석굴암 조성의 불교적 원형을 추적해 낸 역사추리극 형식의 본격 다큐멘터리

10개 1SET ※카드결제 가능

대하다큐멘터리
티베트 불교



4년의 제작기간, 신비의 스펙타클
- 전 30부작 15개 (출시판매중)

생활속의 모든 정보!
불·자·정·보 에서 만나세요.

함께 나누는

불·자·정·보

불자정보 광고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됩니다.
광고문의 전화 (02) 732-1522(直)
FAX (02) 737-0697

관 건 강 관

◆ 한 방 암 정 보 ◆
02)700-6366

증가 전통의 손맛…
온돌방 전통메주
〔음식조리용 장군죽염〕



마음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 **보리가족**
02)3141-1011/011-786-0817
▶ 재서를 메주에 음식조리용 죽염으로 담근 죽염 된장 간장은 영양가득 약성이 풍부한 무공해식품이 될 것입니다
온돌방 전통메주 소두1말(斗) 5개 값 39,000원
음식조리용 죽염 특별포장 5Kg(1) 값 35,000원

밀교 수행자
연락처 015-8487-3674
당뇨 · 간경화 · 비만관리
※ 3~7일간 치료 지도 ※

신 생 아 작 명
역 학 개 인 지 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硏究所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월 4회 실시· 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까지)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구 직

50대 독신 남자로서 사찰에서 운전기사로 처사겸 일할곳을 찾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 대형 면허이며 지방도 좋습니다.)
0351)41-1152 박성훈
※주간에 전화 안받으면 야간에 전화 주십시오.

구 직

◇ 올해 만50세(男)
◇ 사찰에서 생활가능
사찰내 모든 일 할 수 있음- 수리기능, 미장기능 有(1종 운전면허 소지)
◇ 급료는 스님께서 알아서 지불해 주세요.
053-423-0540
012-479-5922

사찰안내

◇ 위 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 대 지 : 48평
- 임법당 18평, 방 2칸,
- 입실부엌, 목욕탕, 거실
◇ 가 격 : 1억 5천만원, 전세 7천만원 (절충가능)
02)937-3729

포교당 안내

◇ 위 치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 평 수 : 50평
◇ 가 격 : 보증금 3천만원(월 50만)
02)242-6187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초역 100미터, 법원 건너편 3층건물 지하 60평
◇ 현재 사찰 3년째 운영중
◇ 대법당(삼존불 및 지장불)
◇ 방3, 거실, 주방 및 식당 완비
◇ 시설 투자비 2,000만원 소요
◇ 건물 임대 보증금: 3,000만원(월임대료: 120만원)
◇ 뜻있는 분에게 임대 보증금만 받고 무상 양도합니다.
02)583-0014

사찰안내

◇ 위 치 : 서울 중랑구 면목4동
- 4층건물 2층 30평
- 방2개, 주방, 법당1
- 보증금(시설비 포함) 2,700만원 원50만원
※가격절충가능
02)438-2973
0344)64-4827
017)263-6908

사 찰 안 내

포교당 안내

◇ 위 치 : 고양시 토당동 841번지
◇ 평 수 : 실평수 40평
◇ 가 격 : 보증금 3천만, 월세 50만
0344)970-9628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서울시내 6차선도로 인접
◇ 평 수 : 28평(4층건물)
- 법당 1, 방 2, 주방 1, 화장실겸 샤워실 1
◇ 가 격 : 보증금 800만원(월 35만원) 시설비 (최저가)
◆ 입주 즉시 포교활동 가능.
02)867-3803
015)8457-3803

포 교 당 안 내

관 승 복 관

◆ 대 성 승 복 ◆
대표 임 현 호
(단체주문 우대)
견지동 02)739-6287

◆ 가 람 승 복 ◆
견지동 02)739-0080

관 여 행 사 관

◆ 불교성지순례 ◆
(주)성문관광
종로구 청진동
02)722-2233(代)

◆ 스마트여행사 ◆
당산동 02)631-9412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하늘이 무너져도 눈깜짝 않는 믿음"

"내가 먼저 고개 숙이면 상대도 그냥 숙여줍니다" 가정 회사 국가도 같은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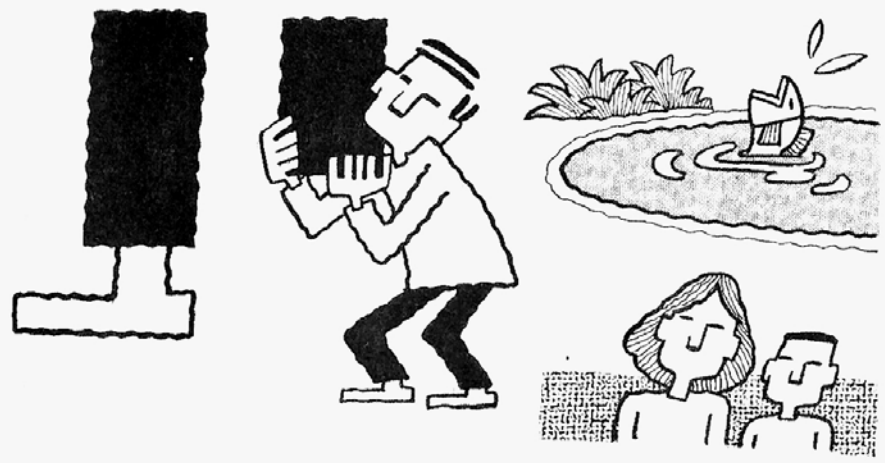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四生, 차원 모습 다를 뿐 불성 윤회 똑같아 "이 몸은 한 철살다 버릴 집 집착할 일 없어"

더우나 추우나 항상 도반으로서 한 도량에 한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겠습니다.

부처님을 가리켜 '사생의 자부' 라고 하는데 오늘은 사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생을 어떤 의미에서 사생이라고 합니까. 사생이라는 뜻을 제대로 아시고, 그 사생의 천차만별로 벌어진 문제들을 지혜롭게 굴려서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생이라는 것은 태로 낳는 것, 알로 낳는 것, 화해서 낳는 것, 습한데서 낳는 것, 이 네가지로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을 말합니다. 습한데서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고, 알로 낳아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고 또 화해서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고, 태로 낳아서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란 말입니다. 그 천차만별 가운데 영혼이 깨끗하고 밝고 정갈하게 사는 생명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영원한 자기의 근본 불성이 바로 자기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불성이 있기 이전 영혼은 그 자체가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육신은 튼튼하고 정상인데 영혼이 불구인 사람이 있고, 몸은 불구이나 영혼이 아주 깨끗하고 정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과거로부터 우리가 불구가 나오게 할 수 있는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불구로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불구가 된 인연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뼈저리게 울면서 자기가 불구라는 걸 자각하면서 살아가고, 자기가 제일 밑에 섰기 때문에 보는 것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위가 됐으면 잘 보지 못할텐데 밑에서 보기 때문에 관단을 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멀쩡한 분들도 이 마음이 불구가 돼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절름발이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모습이 그런 게 아니라 마음자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영혼이 말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육신불구에 영이 불구가 된 사람이 많으냐, 아니면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이 불구가 된 사람들이 많으냐 생각해 볼 때, 몸이 불구된 사람일수록 영혼은 더 깨끗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차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고 복도 주어지고 그러는데, 영혼을 그렇게 불구로 만든다면 몸이 불구로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없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침착하게 생각 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생들이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들도, 육지의 짐승들도, 물에서 사는 고기들도, 또 질척한 땅에서 사는 생명들도 다 그렇죠. 그러니 이게 심각한 것이,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마음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마음을 똑바로 가지고 살아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또 사랑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단, 사랑을 하되 자비로 해라 이겁니다. 자비를 얘기할 때 '비' 자를 무슨 '비' 자를 썼습니까? '슬플 비(悲)' 자를 썼죠? '가엾어서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가엾어서 내가 너를 건지겠노라'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너를 건지는 데는 내가 네가 돼주마'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주지 않는다면 건져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전에도 가끔 얘기했지만 서산대사 얘기를 또 해야겠습니다. 서산대사는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새 한 마리 잡은 걸로 듣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서산대사 마음이 새가 됐단 얘깁니다. 새가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려앉는 거죠. 그것 뿐이 아니죠. 부처님께선 사생자부라고 그랬습니다. 일대사의 인연을, 사생과의 인연을 다 맺었기 때문에 둘이 아닌 까닭에 자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어 우리가 사생들의 사는 모습과 과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생들의 생활은 각각 어떠한가, 또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봅시다. 차원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다 뿐이지 삶의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생명도 둘이 아니요 마음도 둘이 아니요, 부모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어 사는 것도 둘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프면 애통해하고 자기는 껍데기만 남아도 자식을 위해 다 내주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차원이나 모습은 다를지언정 불성이라는 법의 부모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억겁으로부터 진화해서 형성시켜 나온 장본인이니까요. 이 모습이라는 건 한철 살다가 망가지면 그냥 다시 바꾸는 것 뿐입니다. 바꾸는 데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꾸어지죠.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만 잘못돼도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첫단추 잘못 끼는 것과 같아서 대대로 내려가면서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한사람이라도 마음공부를 꼭 하시라 이겁니다. 물론 다하면 더 좋겠지만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까. 부모를 두고 자식이 별안간에 죽는다거나 부모도 자식들을 두고서 별안간에 죽는다거나 하는 일은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들만 그런게 아닙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되면 자식을 못잊어서 그 죽은자리에 몇번이고 가서 울고 그럽니다. 그게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요, 내 몸 이것도 한철 살다가 버릴 집인데 우리가 뭘 그렇게 남의 것을 탐내고 집착하고 욕심낼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는 것 억지로 잡지 말고 나한테 닥치는 거 마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흡수해서 나 아님이 없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아랫사람이 강하고 뻣뻣해도 내가 고개를 먼저 숙여준다면 상대방에서도 그냥 숙여줍니다. 내가 웃사람이라고 숙여주지 않는다면 아랫사람도 전혀, 겉으로는 숙여줄지 모르나 안으로는 숙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의 원 근본이죠. 진리에서 살고 진리에서 죽고 진리에서 배우고 이러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어느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간도 마찬가지로 첫째 융통성있게 내 머리를 숙여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

"내가 너 돼주마" 가엾이 여기는 마음 중생 건집니다

을 해야만 합니다. 내 속에만 넣어두고 상대를 무시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점점 문제가 커집니다. 자식과 부모사이도 그렇고 부부사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뭐가 잘 안풀리면 집에 와서도 얼굴이 찌푸려지고 온갖 짜증을 다 냅니다. 그러면 부인이 걱정이 되어 물을 것 아닙니까?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왜 그럽니까?" 하면 벌컥 화를 내면서 "여자가 알면 뭘해. 몰라도 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 무슨 대화가 되고 마음이 나갑니까? 애길해주면 직접 나가서 뛰어주지는 못해도 '그거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이라도 나갈 것 아닙니까. 마음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안에서는 그런 걸 다 모르고 오해가 생기고 감정만 상하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러니까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 이렇게 해주면 '그렇구나, 저거 어떡하든지 잘 돼야지.' 하고 그 마음으로 항상 그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을 써 주는 것이 한마음이란 말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이렇게 의합하고 자식들한테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54)

렌즈를 잡은 손이 흔들리면 불을 얻을 수 없다.

"마음 깊은 그 곳에 모든 원리가 숨어 있다.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다 맡겨라. 잘 된다 잘될 것이다 라는 기대까지도 다 맡겨라. 믿고 맡기는데 아무런 찌꺼기가 없어야 한다. 여한이 없어야 한다. 사량심 분별심 욕심도 다 맡겨라.

그렇게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 있다면 두뇌를 통해 사대로 통신이 되는데 한 생각이 수십만의 입자로 되어 작용을 한다. 마음 깊은 그 곳의 거대한 에너지 창고가 열리고 빛보다 빠르게 작용을 한다. 그렇게 유심 무심이 작용을 해야만 불이 들어올 수 있다."

걱정 · 불안 · 망념 · 공상 · 번뇌 · 잡념 · 공포 · 분노 · 절망과 같은 감정이나 상념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맞닥드리는 것들이지만 삶에 도움을 주는 요소는 못된다. 실은 그런 감정이나 상념이 모두 삶을 보다 더 살찌게 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욕구와는 달리 오히려 삶의 활력을 잃게 한다.

마치 저 오목렌즈가 빛을 산란시켜 빛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뿐만아니라 그런 상태는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빗나간 언행을 자초하게 만든다.

보다 나은 상태로 진보하고 싶어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결과가 된다. 나아가서는 주변에까지 나쁜 영향을 전파시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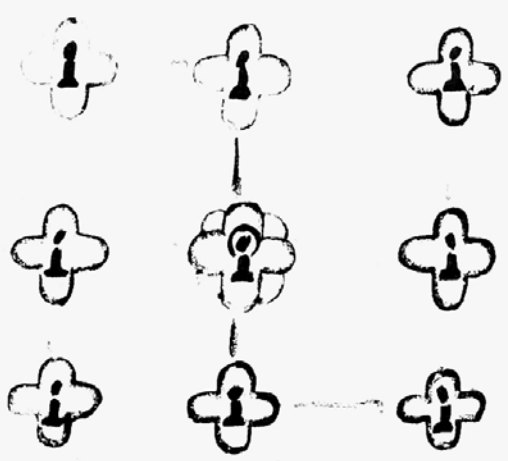
누구나 다 바르게 생각해서 바른 길로 가고 싶어한다. 그리고 모든 일이 생각한대로 잘 되어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바르게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과 바른 길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또 생각을 많이 한다고해서 바른 길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하루종일 사과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해도 사과 밭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는 않는다. 많은 생각은 오히려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자신을 생각의 노예가 되게 한다.

어떤 일에 자신감을 갖고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집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또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인 견해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산란한 생각보다는 그 편이 일의 성취를 위해 더욱 효과적이다.

저 볼록렌즈가 빛을 한 점으로 모아들여 마침내 불을 붙이는 것처럼 마음의 집중은 큰 힘을 발휘한다.

수백을 찾아서 여기 저기 삽질을 해대는 것보다 한 곳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물을 얻기가 쉽다.



마음은 무한량의 에너지 창고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음의 산물이라고 한다. 무한량의 에너지창고가 아니고서야 그로부터 어찌 삼라만상이 벌어졌다고 하겠는가.

고로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되게 하고 싶다면 그 창고의 문을 열어라.

그것만 열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 하랴. 바르지 못함을 염려할 까닭도 없고 잘못될까 걱정할 일도 없다. 이 생각 저 생각에 잠 못이루는 밤이 다 무엇이며 불안과 공포는 다 무엇이랴. 오로지 창조와 진보만이 내 앞에 있을 것인즉.

문을 열려면 깊이 들어가라. 마음의 심연(深淵)으로 깊이 들어가라. 볼록렌즈가 빛을 모아 한 점을 비추듯이 깊이 깊이 수렴하라. 그래서 내 마음에 드리워진 불안 · 걱정 · 두려움 따위의 장막을 태워버려라.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모아 한 점으로 수렴하라. 바깥세계를 향해 흩어지는 생각들을 안으로 거둬들여 내 마음에 한 점 초점을 만들고 그곳을 비춰라. 모아서 비추고 그 곳을 관하라.

생각이 나온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되돌려 비출 자리이다.

비춤은 믿음이요 놓음이다. 렌즈를 잡은 손이 흔들리면 초점이 흔들려 불을 붙일 수없다. 고로 철석같이 믿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온 자리를 비춰라. 일체의 상념들을 그 자리에 되돌려 놓아라. 믿음으로 놓고 맡겨라.

잘 될까,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은 흔들림이다. 분별심도 놓고 사량심도 맡기고 오로지 한 점에 수렴한다는 생각만 하라. 깊이 깊이 수렴하는 것이 관이다.

그러면 영감이 떠 오르고 에너지가 솟구친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소리가 울려나온다. 큰 울림이 있다. 바른 생각 바른 길은 거기에 있다.

협찬 : 김경호 · 최계선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해결사 내안에 있다" 명심하도록

☞ 17면에서 계속

다고 설명을 해준다면 온가족이 한마음이 돼서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달에 서너번은 가족회의를 하면서 가족이 다 모여앉았을 때 어려운 일도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것이 바로 화합할 수 있는 길이며 서로 일하는데 마음이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통로가 됩니다. 서로 일하는데 마음이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면서 뒤를 받들게 되는 겁니다. 꼭 몸으로 뛰고 말로 하고 이래서만이 뒷받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나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식구가 한마음이 돼준다면 이거는

"오로지 자기 근본만 믿어야지 딴데를 믿었다간 맨날 속고 걸리고 치욕적인 일을 당하죠"

100%를 그냥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식도 아버지가 하는 일을 모르고 아버지도 자식 하는 일을 모르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모르고 이러니까 나가서 혼자 뛰고 혼자 근심하고 이러다보면 몸도 마음도 망가지게 됩니다. 안에서는 안대로 오해를 사고 그냥 뛰다가 병이 드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족한게 아니라 자비가 부족해서요. 결혼을 해도 사랑만 가지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조건이 다 맞아서 자비가 돼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문제들을 볼 때 사생에 관한 건이 전부 더불어 이렇게 살고 있으니, 그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다 이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모두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아까우면 남의 생명도 아까운 줄 알아야죠.

그리고 어떤 때 가만히 보면 이 방생이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요즘은 본래 뜻에 어긋나요. 잘 노는 고기를 산 채로 잡아다가 팔면 그걸 사서 물에 넣고, 물에 넣으면 넣는 그 즉시 또 그물을 쳐서 잡아다 놔요. 그건 방생이 아니라 지옥고를 당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방생이 얼마나 할 데가 없어서 그런 방생으로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낫지. 고기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어느 쪽이 진짜 방생이 되겠습니까? 왜 잘 사는 고기를 잡아다가 잡히면서 죽고 바깥 물이 안맞아서 기다리다가 죽고 거듭거듭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고기방생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요, 예전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지렁이나 미꾸라지, 가재, 게 할 것 없이 길바닥에 즐비했습니다. 그럴 때 그것들이 물이 빠지고 나면 길바닥에서 모두 죽을 테니까 그릇에 담아서 강에다 넣어준 그런 이치로 방생이란 게 생겼습니다. 물이 없는 데서 사는 고기를 물 있는데 갖다 넣는 게 방생이지, 어떻게 물 있는 데서 잘 사는 걸 잡아다가 넣고 또 잡아다가 고생을 시키고 그 중간에 죽는 것도 많을 텐데 또 잡아다 놓고 또 건지고, 이게 방생입니까, 어디? 그건 방생이 아니죠. 그건 오히려 죽이는 것만도 못하죠. 그런 것만이 방생이 아니라 이 사람 방생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보이지 않게 방생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자가 인연이 되면 그 사람들 도와주고, 무의탁 노인들이 인연되면 그 노인들을 내 부모처럼 봉양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애들을 도와주고, 그런 게 진짜 방생 아닙니까요. 물론 물없이 사는거 물있는 데다 갖다 넣어주는 것도 방생이구요. 또 옛날에 제비다리 부러진 것 치료 해줬다는 것처럼, 가다가 보면 다리가 부러져서 못 나는 거 감아서 치료해서 날려보내는 것도 방생이고요. 그런 게 진실한 방생이지 어떻게 잘사는 고기 잡아다 물에 넣는 게 방생입니까? 그렇게 방생이 잘못돼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다 요즘 들으니까 뭐 외국 두꺼비를 갖다가 방생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국에도 많은데 왜 외국에서까지 사다가 넣어가지고 그 야단입니까?

하여튼 어느 누구든지 겸손하고 둥글게 너무 욕심차리지 마시구요, 그저 내한테 닥치는 것만 가져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본다 해도 그렇고 그거 뭐 때문에 저렇게 고생들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뭐 때문에 대통령을 하고 왕을 하고 그래서 그 난리가 나고 칼부림이 나고 죽고 이렇게 사느냐는 얘기죠.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 나 같으면 안할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선 있는 걱정, 없는 걱정 또 자기 영혼도 다 더럽히고 자식들대까지도 더럽히고 그냥 대대손손이 그게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성한 이름을 남기진 못해도 그런 이름을 남긴다면 그건 치욕적이죠. 우리가 평범하게 지극하게 참 자비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짐승들이나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 추위를 다 참고 봄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를 가지고 사는데, 우리 사람이 고등동물로서 그런 인내도 없고 질서도 없이 무분별하게 산다면 우리는 사람될 가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마음공부라는 것을 하면서 마음의 근본으로 인해서 육신이 움죽거리고 사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부터 나오고 마음이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내 영원한 나의 근본 때문에 내 육신이 형성됐습니다. 알고 본다면 아주 지극히 쉬운 얘기예요. 내 육신이 하나인 줄 알지만 여럿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부처님께선 육신이 하난데 마음이 다른 육신들한테 들어가서 자기가 돼봤고 그렇게 나투셨거든요, 그분은 구데기가 돼도 상관없고 어떠한게 된다 하더래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전부가 나 아님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자비하게 평등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평등한 것이 똑같아서 평등한 게 아닙니다. 생명의 근본은 평등하지만 이 모습으로서 굴리는 데는 평등치가 않습니다. 천차만별이죠. 그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융통성을 용도에 따라서 다 가지고 계시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생자부가 돼라 해서 사생자부의 과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뼈 한 무더기를 놓고 그렇게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수없는 과정을 억겁, 천겁, 만겁을 거쳐올 때 으리가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또는 형제가 되고 이렇게 했다가 잠깐 또 진화해서 또 다른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해 올라오기를 항차 헤아릴 수 없이 거쳐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랬으니 현재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전체가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전체가 내 자식 아님이 없다는 거죠. 순간 모습을 바꿔서 자식이 돼서 나오고 순간 바꿔서 또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있든 없든 하늘이 무너지든 땅이 솟든 간에 우리는 눈도 깜짝하지 말고 우리는 내 근본을 믿어야 합니다. 주인공이라는 이 자체도 이름이지만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근본 불성을 돕기 때문에, 그 불성만이 내 몸을 움죽거리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보디가드가 돼고, 해결사가 돼주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근본만 믿어야지 딴 데를 믿었다간 맨날 속고, 걸리고, 맞고, 치욕적인 일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깥에는 믿고 빌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내 근본이 나를 이끄는 거지, 누가 대신 살아줍니까, 죽어줍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부처님이 옆에 계셔도 대신 못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진짜 보디가드, 아주 진정한 자기의 보디가드는 자기한테 있다는 거, 진짜 자기의 해결사는 자기한테 있다는 거 그것을 믿으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 최주현

경계를 잘 헤쳐가려면

문 저는 마음공부한지 2년정도 됐는데 스님을 이제 두번째 뵙게 됐습니다. 무한히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속 주인공에 관하면서 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한 3개월 전부터는 일하는 데만 빠져 거의 잠도 못잤습니다.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이거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주인공이 끌고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어떤 경계에 부딪쳤는데 잘 풀리지 않아 '주인공, 너 박살내 버리겠다. 나오너라' 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속에서도 내 자신이 주인공을 찾았다는 그 사실이 저는 기쁘고 마음이 푸근했습니다. 좀더 열심히 정진할 수 있도록 스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박살을 내봤자 박살을 당할 사람은 당신이지 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살내겠다는 생각도 말고 '네 몸뚱이 네가 잘 이끌어 가야잖아. 이렇게 갈팡질팡 끌고 가서야 돼?' 하고 그렇게 좀 인자하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맑고 깨끗하게 또 다복하게 살아요. 열심히 하면 이게 다 일체제불과도 연결이 돼있어요. 이 불성은 일체 만물만생하고도 가설이 돼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자비하게 도와주는 빈 손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해결사는 내안에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사세요.

빚이 많아 감당키 어려워요

문 저의 남편은 공무원인데 생활이 어려워 제가 좀 도움이 될까 하고 가게를 했습니다. 처음에 자본이 없어 빚을 얻어 시작했는데 장사가 안되어 점점 빚이 늘어났습니다. 남편 성격을 아는지라 말도 못하고 업종을 바꾸어도 빚은 더 늘어나고 제가 감당키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빚에 시달리는 중에 한번은 직접 남편에게 전화가 가는 바람에 남편이 알게 되고 저는 그게 무서워 죽으려고 악을 먹었습니다. 친구가 발견해 살아나긴 했지만 아직도 남편한테 말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가르침 주십시오.

답 당신으로 인해서 모든 게 생겼고 욕심으로 인해서 일이 커지는 거니까 먼저 '주인공, 당신만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고 갈 수 있어.' 하고 관하세요.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아무리 남편이 무서워도 남편만이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소리는 질러도 속으로는 애틋한 마음이 있으니 그래도 가족을 살리려면 그 방법밖엔 없죠. 그러니 무서워 말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약 먹는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짐승이나 새들이 추위 참고 봄이 올 때를 기다리듯이 우리 사람들도 인내갖고 살아야"

천도재 지내는 의미

문 저는 기독교 신자로 마음공부를 알게 된 건 얼마되지 않습니다. 시댁의 어려운 일을 계기로 한마음선원 다니던 언니가 인연을 맺어 주었습니다. 어렵풋이 관하는 걸 공부하고 있었는데 집안 일이 계속 터지자 언니가 천도재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응하지 않다가 공부를 좀 더 하면서 조금은 의미를 알게 되어 천도재를 지냈습니다. 다시한번 스님의 가르침 바랍니다.

답 기독교에서는 부모님 제사도 안 지낸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보이는 걸로만 밥 떠놓고 물 떠놓고 반찬해 놓고 그렇게 지내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을 내라는 거죠. 내가 내 부모 감사한 줄 알면 내 자식도 그럴 거 아닙니까? 뭘 바라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근본이 있고 조상이 있는데 부모의 은혜를 생각안한다면 그런 자식들은 길러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자식노릇 할 때 그 은혜를 입은 거를 꼭 갚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건 자동적으로 기일이 되면 부모님을 생각해서 물이라도 한그릇 떠 놓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초, 향, 등그런 떡 세 켜, 그리고 과일 한 서너가지 한그릇에 놓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상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영혼이 없다고 보십니까? 살아가면서 영혼이 있다는 걸 너무나 많이 체험하실텐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종자가 없으면 이 세상에 싹이 나오지 않아요. 영혼의 종자가 있기 때문에 싹이 나오게 돼있어요. 그래야 생명들이 생기죠. 재생이 돼서 세상에 다시 나오게끔 되는 것도 바로 자기의 종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무릎을 끓고 앉아서 '주인공, 이 모든 조상님들의 영령들이 한자리하게 하소서. 밝고 깨끗한 한자리를 하게 하소서.' 하고 관하게 되면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요. 진리는 하나로 돌아가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니 주님이니 했지 주님은 바로 당사자예요. 주처도 당신안에 있고, 모두가 자기로부터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깥에 있는 줄 알고 바깥으로 기도하고 애쓰지 마세요. 안으로 열심히 관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분란 안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다' 고 관하고 살아요. 종교라는 것도 자기가 먼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자기가 없었다면 종교도 없었겠지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주처는 당신 자신한테 있습니다.

처남이 정신분열증 심해

문 제 처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고시 공부를 하다가 2차 시험에서 계속 낙방을 했습니다. 가족들의 기대도 있고 하니 나름대로 고민과 갈등이 많았나 봅니다. 지금은 정신분열증이 심해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저도 많이 관하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스님의 가르침 듣고 싶습니다.

답 당신의 불성이나 내 불성이나 둘이 아니예요. 그런 까닭에 당신의 불성이 있는 이상 다 하나로 가설이 돼 있어요. 자기 주인공을 불성이라고 하는데 불성은 움죽거리지 않고도 에너지를 배출할 수 있는 심봉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수레와 같애요. 그러니 모든 것을 심봉한테 맡겨요. 내안에다 관해야만 에너지가 배출이 되지 그렇잖으면 배출이 될 수 없죠. 부처님이 계신다 해도 그 형상을 믿는다면 안되죠. 그거는 에너지가 배출될 수도 없고 에너지가 공급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 형상도 부처님 형상과 둘이 아니요, 마음도 둘이 아니요, 생명도 둘이 아니라는 걸 아신다면 법당에 들어오나 나가나 항상 같이 한자리 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와 같이 중심을 타고 그 심봉이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들을 다 이끌어 나가요.

그러니까 모든 의식들이 이 생각으로 나오는 거는 다 그냥 거기다 맡겨 놓으세요. 자기 주인공한테다 다 맡겨버리고 '너만이 할 수 있고, 너만이 지켜줄 수 있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고 너만이 가정을 이끌어 줄 수 있다' 하고 부지런히 관하세요. 그러면 자꾸 달라질테니까요. 본인이 우선 관할 줄 아는 게 중요하죠. 옆에서 마음을 낸다 하더라도 본인의 집에 전화기를 놓아야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자기 속의 의식들이 자꾸 자기 마음을 타고 나오는 거니까 본인에게도 관하는 걸 일러주시고 식구들도 다 같이 공부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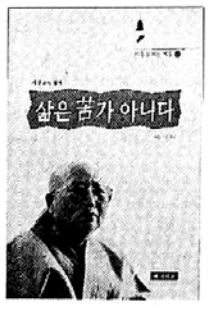
오빠가 녹내장으로 실명

문 스님 법문을 들은 뒤부터는 하루 하루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계가 닥쳤을 때 관할 줄도 알고 마음을 돌려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제 오빠가 작년 9월부터 녹내장으로 한쪽 눈이 실명이 되고 또 한쪽 시력마저 자꾸 약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아무리 관해도 자꾸만 눈물만 나옵니다. 스님, 마음 내주십시오.

답 본인한테도 관하는 걸 일러주고 가족 모두 관하세요. 내가 좋아지면 상대가 좋아지고 상대가 좋아지면 내가 좋아져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안됩니다. '좀 넓게, 둘 아니게 둥글게, 그리고 여유있게,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인데 좀 넓게 웃으며 살자' 하고 말이예요. '사계절을 다 지내도 항상 봄처럼 살자' 하구요. 봄이 와서 봄이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봄이 온다구요. 그러면 속의 의식들도 그걸 따라주게 돼있어요. 그러니 자기 마음속에 진짜 보배가 있다는 걸 아시고 자기 근본 불성을 믿고 열심히 살도록 해요. 사람이 살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좀 당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같이 영원한 도반이 됩시다.

"좀 넓게 둘 아니게 둥글게 여유롭게 삽시다"
"자비로 사랑하면 만물과 하나 될 수 있어요"

협찬 임희석 · 황진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425-5 구룡빌라 A동 402호



삶은 결코 苦가 아니라는 이 통쾌한 역설 !

삶의 모든 고통이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발판임을
중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大行 스님의 육성 법어집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종로구 견지동 110-33
737-8881(편집), 737-0695(영업), 팩스 (02)737-0696

"참선하니 공부도 잘돼요"

개포동 금강선원 '참선반' 중고생에 인기

학생들은 성적에 따라 울고 웃는다. 때로는 생사의 기로에서 망설이기도 한다. 때문에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물론 부모들은 고액의 과외와 학원수강등 '공부 잘하는 방법'을 찾기위해 온갖 묘책을 동원한다. 그렇기에 주목받는 곳이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 5단지 내에 위치한 금강선원(원장 혜거) '참선반'.

집중력 길러 학업성취도 '쑥쑥'
심신안정·자신감 회복에도 한몫

혜거스님의 독특한 참선지도를 받으려고 서울 곳곳에서 몰려든 중·고등학생들이 60여명에 이른다.

혜거스님이 10년전 신도들의 심신수련을 위해 고안해 낸 '생활참선'법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을 주자 학부모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는 것. 또 자녀들을 통한 학부모들의 포교도 한 몫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허리를 꼿꼿히 세우고 가부좌를 튼 채 두줄로 면벽하고 있는 모습은 여느 선방과 다를 바가 없다. 30분 참선하고 크고 작은 점을 이용해 20분간 집중력을 훈련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참선에 든 학생들 누구나가 원안의 작은 점을 크게 또는 작게, 글자와 색깔을 다른 면에 똑같은 영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능력(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금강선원 참선반만의 차별성으로 부각된다.

선원에서 성적이 향상된 학생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정승우군(경기고 1)은 지난해 여름 참선을 시작한 후 학교성적이 5점이상 올랐다. 또 2년째 참선을 하고 있는 오승연양(진선여고 2)의 중학교 때 성적은 전교 20위권. 그러나 지금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다.

오승연양은 "상위권에 갈 수록 성적 1점을 올리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선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있을 수 있게 되었고 자연히 성적이 향상됐죠. 또 짧은 시간의 공부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때때로 풀리지 않는 수학문제를 참선을 통해 풀기도 합니다"고 말한다. 조 "정좌하는 참선의 자세는 학생들의 자세교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참선의 효과는 성적 향상만이 아니다. 마음의 안정을 통한 정신의 성숙도 평가할 만하다.

혜거스님은 "생활속에서 참선 즉 지(번뇌망상을 끊는 것)·관(눈과 마음을 하나로 한곳을 응시)·사(지와 관을 초탈한 자세)를 실천할때 비로소 자신감과 함께 자아를 찾아 심신의 안정을 누릴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필선 기자



◇학생들은 혜거스님이 지도하는 '생활참선'이 성적 향상뿐 아니라 정신적 성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한다.

건강 365일 〈11〉 감잎



이 만 성 〈영재한의원 원장〉

비타민C 연구로 노벨의학상을 탄 라이너스 포올링 박사는 감기 예방으로부터 암 치료에 이르기까지 인체의 면역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비타민C에 있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비타민C가 모자라면 괴혈병, 궤양, 피하출혈의 원인이 되고 모든 질병에 대한 항병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따라 사람들은 약 또는 야채, 과일 등을 통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약제로 먹는 비타민C의 효력은 2~3시간에 불과한 반면 야채, 과일에서 천연으로 섭취하는 비타민C는 24시간 지속된다.

비타민C, 레몬 20배…차로 끓여 복용
동맥경화·고혈압에 좋고 면역 높여

그렇다면 24시간 지속되는 효과를 내면서 값싸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감잎차가 적격이다.

감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당, 타닌 외에도 비타민 A·B1·B2·C 등이 들어있다. 특히 비타민 C는 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타민 A는 종부해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피부를 강하고 탄력있게 해준다.

또 수렴작용이 강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 주며 순환기질환 즉 동맥경화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없는 식품이다.

또한 감잎차는 위를 열어주고 술열독을 식혀주며 간을 보하는데 특효하다고 〈동의보감〉은 소개하고 있다.

간혹 술자리에서 감식초를 술에 타 먹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식초는 인체의 구연산 싸이클을 순환시켜주고 노폐물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 감식초는 특히 혈관의 기능을 강화시켜 간이 약한 태양인 체질과 고혈압, 동맥경화에 특효가 있다.

감보다 비타민C가 더 많은 것이 감잎이다. 그 양이 레몬보다 20배 정도나 된다. 비타민D라는 것도 들어있어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며 피가 탁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또 임파구의 면역력을 높여 저항력을 길러준다.

복용법 감잎 10g 또는 20g을 물에 넣고 20분 정도 끓인 후 약간의 꿀을 섞어 복용한다.

불교청소년 문화전문지
'선재들의 속삭임' 창간

월간 16쪽 문화소식·상담등 실어

불교계 최초 청소년 상담·문화전문지 〈선재들의 속삭임〉이 10일자로 창간됐다. 선재연구모임(회장 덕인스님)이 지난해 3월 창간 준비호를 발행한 이후 1년여만에 선보인 것.

32절지 크기 16쪽 분량의 〈선재들의 속삭임〉 창간호에는 △유명인사들이 말하는 '내가 겪은 푸른 시절' △이런 속삭임이 되기를 바란다 △상담코너 '나는 속삭임' △선재들이 함께 떠나요 △겨울방학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을 조사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산사에서 온 편지 함께하는 문화마당 △선재들의 이바구 △알립니다 △풍경소리 등의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다.



한편, 불자는 물론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보급되고 있는 〈선재들의 속삭임〉은 우표(210원 1년분) 24장 또는 1년 제작비 3만원을 선재연구모임으로 보내면 구독할 수 있다. (02)433-1506~7

"10대 속마음 진솔하게 담을터"

인터뷰 '…속삭임' 만든 유지선 법사



"〈선재들의 속삭임〉은 10대 청소년들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담아 내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가는데 친구, 대변자, 안내자로서 역할을 하는 청소년 상담·문화전문지입니다." 〈속삭임〉을 펴낸 선재연구모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유지선법사(33)의 말이다.

유법사는 〈속삭임〉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을 포교, 선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 만큼 시름도 많다. 청소년들에게 무가로 보급되는 〈속삭임〉의 제작비 및 운영비 마련이 수월치 않기 때문이다.

10주년 기념 특별할인판매

귀의 삼보하옵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불법홍포를 위해 노력하시는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성불불사**에서는 「**창사 10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유명 출품작들을 확보하여 특별 봉사가격에 주문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찰과, 불자님들의 가정과 사무실에 1품씩 소장하셔서 불심을 항상 곁에 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발원하옵니다.

(※ 한정된 작품이오니 선착순 문의 바랍니다.) - **성불불사** 합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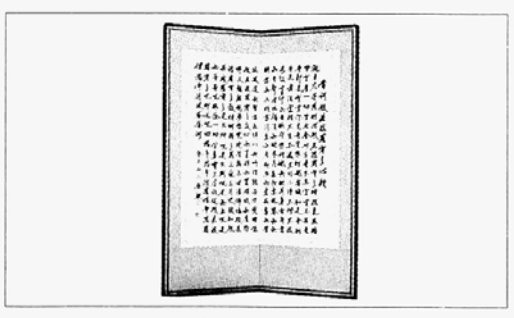
▼ 액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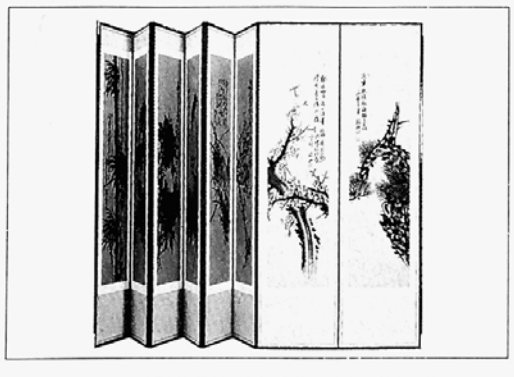
잉 어: 높이 90cm × 14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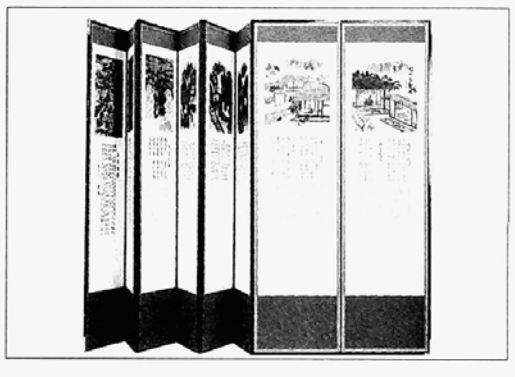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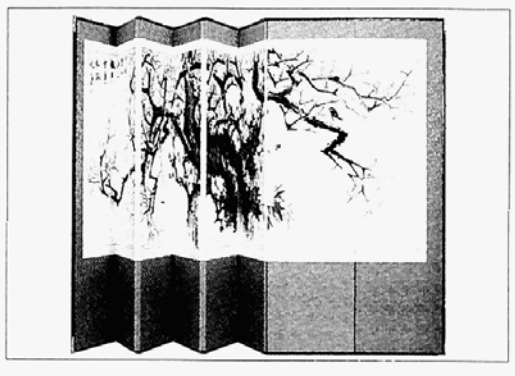
사계절꽃 : 높이 90cm × 14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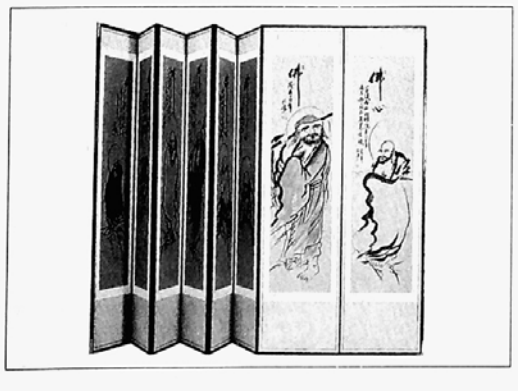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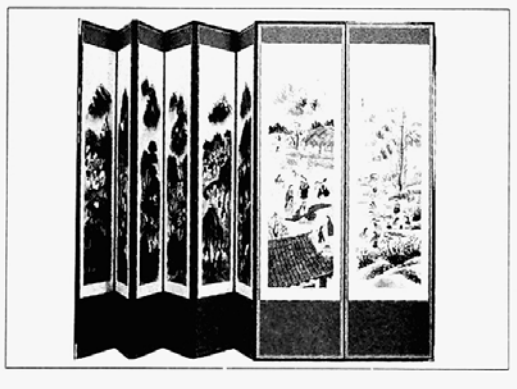
가리개: 높이 155 cm × 12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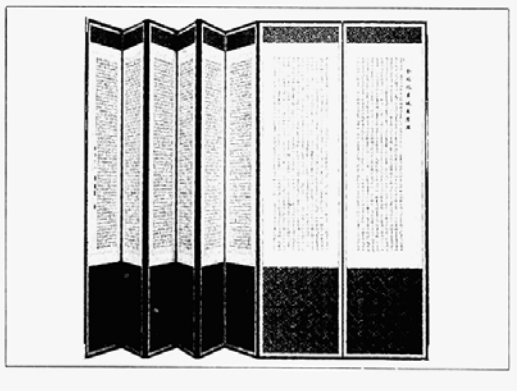














달 마: 높이 90cm × 60cm

◀ 병 풍

(후면-스님께서 직접 쓰신 친필 반야심경)

: 높이 5.5尺 × 8폭(12尺)

● 문 의 처 : 02)831-2848~9
02)831-7075
● 팩 스 : 02)831-2849
● 수신자부담전화 : 080)284-2848
※ 신용카드일 경우 할부가능.

불자 세상보기

재벌개혁

"생존 각오로 실천을"

기업투명성·상호 지급보증 해소등 5개항 '합의'
빚더미 경영·족벌전횡등 악순환 청산해야

김대중 차기대통령과 현대 삼성 LG SK등 4대 재벌회장들이 13일 △결합재무제표 조기도입을 통한 기업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 '기업구조조정 5개항'에 합의했다. 아직 원칙에만 의견을 같이 했을 뿐이지만, 합의 5개항은 한국경제의 기초를 새로 다지는 획기적인 것이라는 평가다.

이같은 조치가 IMF의 요청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의 당면한 과제이기도 했다. 빚더미 경영, 불투명한 회계장부, 족벌체제의 전횡 등이 재벌이 안고 있는 문제였다. 이런 것들은 지나친 사업팽창과 소유 및 의사결정권의 집중을 가져왔다.

차입경영이 그 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키 위해서는 새로운 주주들이 참여하는 증자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 재벌들은 증자보다는 차입을 선호했다. 또 그룹계열사간 상호지급을 보증하며 금융기관의 여신을 끌어들였다. 30대 재벌그룹의 부채비율이 평균 4백%를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그러다보니 자기자본보다 많은 차입금을 가진 비정상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차기대통령과 4대 재벌그룹 회장들이 13일 5개항의 재벌개혁에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외국금융기관이나 신용평기기관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도무지 투명성이 없는 기업에 어떻게 돈을 꾸어주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5개항이 사실상 재벌의 해체를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업종은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전문대기업으로의 변신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집단에다 소유집중이라는 특징이 덧붙여진' 재벌이라는 용어가 우리 경제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정권교체 때마다 재벌개혁은 거론됐고, 그때마다 개혁청사진이 나왔다. 그러나 정치권력과 관료 및 재벌로 얽힌 정치경제구조는 근절되지 않았다. 다행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개항에 대한 실천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키로 결의했다. 지배주주의 재산도 출자키로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렵게 이루어온 그동안의 산업기반이 일시에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말이 단순히 위기를 인식하자는 논리만으로 들리지 않는다.

정성운 기자

금언의 눈 "정진하면 어려움 없다"

이번에야말로 같이 사는 자세로 국난극복의 지혜와 각오를 엮어내야 한다. 개혁은 국민과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제 행함만이 남았다. 경전에서도 이론보다 실천, 정진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네거리 넓은 길에 대중을 모아놓고 온종일 땀흘리며 좋은 일 말하여도 스스로 닦은 수행이 바르지 못하면 소귀에 경 읽기와 다를 바 없는 것을."〈화엄경 보살문명품〉 "만약 부지런히 정진하면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해야 할 것이니, 마치 작은 물도 끊임없이 흐르면 능히 돌을 뚫는 것과 같아서, 끝없는 정진 앞에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유교경〉

이렇게 들었다

온 국민이 참여하는 '장롱속 숲모으기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14일에는 수집된 1억1천만달러 어치의 금이 김포공항을 통해 유럽지역으로 첫 수출됐다. 하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추억이 묻어 있는 기념 반지와 팔찌·목걸이·상패 등을 주저없이 내어 놓고 있는 반면 정녕 달러가 되는 금괴(金塊)는 나오지 않고 있다. '뭇 보배 중의 으뜸인 황금'. 그러나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이제는 가진 이들이 먼저 모범을 보일 때다. 경전상의 황금이 어떻게 설해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황금 필요할때만 그것을 구하라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망에는 짧은 쾌락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
〈법구경〉

▨오늘부터 나무가 필요할 때에만 나무를 구하고, 풀이나 수레나 일꾼이 필요할 때에만 그것들을 구할 지니라. 부디 스스로 금 은 따위의 보물을 받지 말아야 하느니라.
〈잡아함 마니주계경〉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큰 못에 가서, 물 속에 있는 순금의 그림자를 보고는 금이 있다고 외쳤다. 그리고 곧 물에 들어가 진흙을 헤치면서 금을 찾았다. 그러나 찾지 못하고 몹시 피로한 채 도로 나와 앉아 있었다. 조금 있다가 물이 맑아지자 금빛이 다시 나타났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왔다가 거기서 아들을 보고 물었다. "너는 무슨 일을 하였기에 그처럼 지쳐 있느냐?" 아들이 말하였다. "물 속에 순금이 있기에 물에 들어가 진흙을 헤치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금은 얻지 못하고 이처럼 지쳤습니다." 그 아버지는 물 속의 그림자를 보고, 그 금은 나무 위에 있는 금인데 그 그림자가 물 속에 나타난 것임을 아들에게 알려 주었다. 어리석은 저 범부들도 무지하기 그와 같다. '나'가 없는 다섯 가지 쌓임 가운데 제멋대로 '나'가 있다 생각하나니 저 순금 그림자를 본 사람이 부지런히 애써 그것을 찾았으나 한갓 수고하고 소득이 없음과 같아라.
〈백유경〉

▨저 세상 사람들은 복덕이 많으므로 거리나 길, 어디든지 그들이 있는 곳이면 밝은 구슬 기둥이 있어 해처럼 빛을 내는데, 사방 80유순의 거리를 환히 비추어 주느니라. 바람이 때때로 불어와 밝은 구슬기둥을 스치면 보배영락이 비 오듯 쏟아 지는데, 이 영락을 사람들이 걸치면, 3선천과 같은 즐거움을 누리리라. 곳곳마다 금, 은, 구슬 등 온갖 보배가 가득하게 산더미처럼 쌓이고 보배산에서는 광명이 늘 흘러 나와서 성 안을 골고루 비추어 줄 것이다. 사람들은 이 광명을 만나면, 다 기쁨에 넘치고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느니라. 또 발타바라사새가라는 큰 야차신이 있는데, 이 신은 밤낮으로 시두말성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온 땅에 물 뿌리고 쓸어 언제나 깨끗하게 하느니라.
〈미륵대성불경〉

美 시드박사 '인간복제 병원' 설립 선언

비윤리-과학발전 '논란'

지난해 2월 복제양(羊) 돌리로 촉발됐던 '생명복제' 논쟁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이번에는 인간을 복제하겠다고 나섰다. 예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복제 대상이 인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의 과학자 리처드 시드는 6일 "3개월 내에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는 인간복제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불임부부를 돕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미 백악관과 의회는 즉각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우리는 인간복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의회에서도 인간복제 연구에 대한 연방기금 사용금지를 영구화하고 인간복제 과정에서 인체 세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간복제금지법안 채택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인간복제연구 지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인간복제연구가 유용한 방향으로 과학을 진보시킬 수 있다. 새로운 기술과 사물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복제에 대해 기독교는 인간존엄성을 파괴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로마교황청은 8일 생명과학원 부원장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인간을 복제하면 하느님을 닮은 인간은 될 수 없다"는 것.

불교계도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용정박사(동국대 명예교수)는 "인간복제로 인해 자연의 원리가 깨진다면 불교의 중도사상이나 연기법, 생명의 존귀함을 말하는 각종 계명은 한낱 고전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제인간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창조론을 근간으로 하는 기독교에서나 문제될 뿐 모든 인간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하는 불교는 이같은 문제를 초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공무원 쌀농사로 이웃도와

경기시흥시 연성동사무소 직원 13명이 주민들과 함께 휴경지를 경작, 수확한 쌀을 관내 불우이웃에게 나눠줘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지난해 6월 외지인 소유 휴경지 2천2백평에 쌀농사를 지었다. 11월 21가마를 수확, 5가마로 농약대와 비료값을 제하고 나머지를 불우이웃 44가구에 나눠줬다.

재미교포가 '사랑의 장기기증'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재미교포 오명숙씨(55)가 고국의 젊은이에게 신장을 기증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내 작은 희생으로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의 힘은 태평양을 뛰어넘었다. 수술은 14일 한양대병원에서 성공적으로 마쳤다. 신장을 기증받은 이성우씨(32)는 "빨리 나아서 장가부터 가라고 하셨어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해외여행 경비 이웃돕기 기탁

결혼 37년 해외여행 경비를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은 초로의 불자부부. 이들은 지난달 27일 서울신문로 구세군본부를 찾아 1천만원을 기탁했다.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 도저히 여행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자선냄비 성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구세군측은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기탁자의 부탁을 듣고 그동안 공개를 않다가 최근 한 모임에서 이같은 사연을 밝혔다.

음식쓰레기 30%서 25.9%로

음식쓰레기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종이류와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어나는 '선진국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환경부가 96년과 97년에 걸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1만여곳의 쓰레기 발생원을 직접 조사한 결과, 음식쓰레기가 30%에서 25.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재기 유통업자 첫 고발

물가폭등에 따른 차익을 노려 매점매석한 유통업자가 처음으로 고발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커피대리점 S상사 대표 이모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커피를 사들인 뒤 가격폭등을 노려 출고량을 30% 가량 줄인 혐의다.

호텔·백화점 적정온도 초과

고급호텔과 백화점 관공서 대기업 등 대형건물이 실내온도를 적정온도(18~20도)보다 높게 유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13일 오후2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지역 26개 대형건물의 실내온도를 측정한 결과, 프라자호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소공동 롯데호텔, 국회의원회관 등이 23.8~24.6도로 적정온도를 초과했다.

생태보호지에 골프장 '물의'

인천시가 생태계보호 예정지인 중구 무의도에 골프장 허가를 내주려고 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12일 외국인관광객 유치등을 위해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 앞바다의 농약오염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생활정보

아동 정서장애 무료상담

화원교육연구소는 매주 화·목요일 오전10시~오후5시 아동의 정서장애에 관해 무료로 전화상담을 해준다. (02)501-2366.

장시간 주차 배터리 방전

자동차를 오래 세워두면 엔진오일이 밑으로 흘러내려 유막이 얇아져 시동을 걸 때 엔진 마모가 심해진다. 1주일 이상 장시간 주차하면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다.

엔진 마모와 배터리 방전 방지를 위해 1주일 2회 정도 시동을 걸어주거나 운행한다. 시동시간은 10~20분.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1388'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5일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 성인용 만화·잡지의 판매·대여한 업소의 신고·고발전화를 개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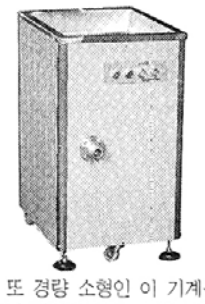
국번없이 1388로 전화하면 즉시 경찰에 통보돼 처리된다.

새상품

"음식물 처리기"

사찰을 비롯 식당과 가정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맷돌식 음식물전용 처리기 '하이크린 써보레'가 출시됐다.

맷돌형태로 뼈,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도 갈아 분쇄하는 이 제품은 시간당 100kg~150kg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 처리된 잔반은 분쇄 과정에서 얻은 물 및 기름성분이 감소돼 가축 사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 경량 소형인 이 기계는 퀴가 달려있어 쓰레기의 위치에 따라 이동할 수 있으므로 설비 부담이 없고 조작하기 쉽다. (주)대보산업. 가격은 2백30만원. (0343)56-8468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관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300,000⇒₩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걸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의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걸어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 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안녕하십니까.
戊寅年 새해 인사올립니다.

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땀과 희망으로 엮어
1998년을 찬란한 여명으로 피어내길
모든 불자님과 함께 발원합니다.

사업은 번창하시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웃음으로
온 세상이 부처님 향기와
자비로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성원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원장 이 영숙(본명)

大卒, 초·재혼 신원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시 론 IMF 극복의 지혜 ②

과소비는 살생이다

IMF시대라는 난국을 맞으면서 오히려 이 난국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위기가 그냥 기회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불교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불교계에 만연되어 왔던 현실의 문제와는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불사, 돈으로 신앙심을 과시하는 허영에 찬 기복불사 등 이 난국을 계기르 과감하게 청산하여야 한다.

불자들의 계율 준수 국가위기 해소 도움

불자의 의식 전환에 고리가 될 것은 바로 불자들이라면 모두 기본적으로 지켜 나가야 할 계율의 준수이다. 계율이 우리 사회와 온 인류가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참된 삶을 이끌어 나가는 실천적인 원리가 되도록, 그 본래적인 위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성 태 용
〈건국대교수 · 본지 논설위원〉

우선 계율 가운데 가장 강조가 되는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꼭 내가 닭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야만 살생인가? "바퀴벌레를 죽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는 물음이 불자들이 갖는 '불살생'의 계율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물음이어야 하는 것인가?

위와 같은 좁은 차원의 해석에 매달려 있으면 그 근본정신은 제대로 드러날 수 없으며, 현실문제로 이어지는 힘찬 신행으로도 나아갈 수 없다. 계율의 근본 정신은 바로 '모든 생명에 대한 크나큰 자비'일 것이요, '불살생'의 계율은 그러한 정신을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 현실 생활 속에서 직접 생명을 죽이는 일과 연관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불자들은 "나야 생명을 직접 죽인 일이 별로 없지…" 하는 안이한 의식에 머물러 있기 십상인 것이다.

그러한 불자들에게는 "'과소비'는 바로 '살생'이다"라는 말이 전혀 납득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과소비는 살생이다. 그리고 현대의 모든 사람들이 상업광고에 휘말리고, 무반성적으로 욕망의 충족을 위해 달려나가는 상황에서는 온 인류가 모두 무자비한 살생자들이다.

왜 그러한가? 내가 나의 삶에 필요한 이상을 자연으로부터 취하는 것은 바로 다른 생명의 몫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과소비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율까지 범하는 것이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냉엄한 자연의 생존경쟁 속에서, 자신의 것을 인간에게 도둑맞은 생명들은 비참하게 죽어가게 된다. 인류가 자행하는 과소비는 무차별적인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그것은 각각 제 자리를 누리고 살아야 할 생명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것이다. 자신이 무반성적으로, 타성적으로 행하고 있는 과소비가 수많은 생명들을 알게 모르게 죽이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래도 "나는 별로 산 목숨 죽인 일 없다"고 태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다른 생명의 몫을 도둑질하고, 그리하여 다른 생명을 죽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는 삶은 가장 불행한 삶일 것이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참된 생명을 실현하는 길과는 완전히 상반된 삶이다. 그러하기에 불자들에게 있어서 과소비를 삼가고 절약하는 것은 단순히 눈 앞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보여주신 참된 생명을 자신 속에 실현하고, 모든 생명이 어우러져 사는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어 나가야 할 불자들의 영광된 의무이다.

절약하며 사는 것 참다운 신행운동

눈 앞의 이익을 위한 절약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억지로 참는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다. 또 어려운 상황이 지나면 금방 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불자들은 이러한 삶을 부처님의 삶을 본받는 가장 자랑스런 삶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펼쳐가야 한다. 남들이 버린 가장 더러운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으셨던 부처님의 삶, 그것을 자랑스럽게 본받아 나가는 불자들의 참다운 신행운동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올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를 올바로 세우는 힘으로 힘차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열린마당

포교사의 법복착용

지난해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열렸던 포교사 간담회 때마다 참석한 포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법복 통일'을 포교원에 건의했다. 군포교를 하고 있는 한 포교사는 평상복을 입고 사병들에게 설법할 때와 법복을 입었을 때 병사들의 반응이 다르다며 법복의 통일을 제기했다. 포교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종단의 입장은 포교사들과는 조금 다르다. 포교사 법복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포교효과 극대화를 위해 포교사 법복 착용을 보장하고 법복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과 포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사진은 한 불교대학 의식교육반 입학식 모습.

포교사 지위·역할 논의 선행돼야

성수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먼저 포교사 법복 착용에 대해 종단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다. 포교사들의 종단에 대한 불신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승-재가 사이의 예민한 사안인 법복착용 가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종단과 포교사들의 거리를 더욱 멀게 하는 소지도 있다. 따라서 포교사의 법복착용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관단이다.

포교사 법복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종단내에서의 포교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구분을 ㅇ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스님의 보조자로서의 위치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스님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의식집전의 경우 예불과 각종법회 등 기본의식에 한정할 것인가, 49재와 불공 등 전문의식까지 가능케 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통일된 논의는 없다. 아울러 포교원이 계율근본주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종단전통 고려 제도적보장 신중"

임동현 〈포교사단 사무국장〉

포교사들의 법복 착용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군법당의 경우, 평상복보다 법복이 병사들의 주목을 모은다. 일단 법상에 오르면 종교적 권위의 담지자가 되며, 법복은 권위를 더해 준다. 이런 점에서 법복 착용을 원하고 있고, 포교현장에서는 법복을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종단은 재가포교사의 포교당운영을 사실상 허용치 않고 있다. 포교당의 종단등록시 반드시 조계종단 소속 스님들이 개설할 때만 등록을 받아들인다. 이는 재가수행자의 포교당 개설은 물론 의식집전을 허용치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실과 종단의 전통과 규정의 합리적인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권위만 덧씌우는 꼴…부작용 우려

최일산 〈월곡청소년센터 관장〉

포교사의 법복 착용에 대해 먼저 반대라는 입장을 밝힌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포교사는 타인을 제도하고 설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신행의 모범을 보임으로서도 가능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설로서 펼칠 수도 있다. 또 생활인으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수많은 포교사 중에서 비불교인이나 불교입문자로부터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먼저 생각하게 한다.

법복은 말그대로 법의 권위를 상징한다. 자칫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포교사들이 외형으로만 권위를 지닌다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포교사의 법복착용에 대해 재고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다.

스님 법복과 구별 통일화시켜야

권지홍 〈동국불교연수원장〉

그동안 재가법사들은 통일된 모델이 없이 다양한 법복을 입어 왔다. 군법사들은 군법사대로, 재가법사들은 단체별로 나름의 법복을 입어 왔다. 심지어는 같은 종단 안에서도 10여종의 법복이 각양각색의 디자인으로 사용되었다.

같은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불제자들이 사상적인 통일은 힘들지라도 외형적으로 나마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소한 의전집과 함께 법복은 통일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율장의 가르침에 따라 여법하게 법복을 제정하되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가칭)법의제정위원회 등을 통해 역사성과 보편타당성을 따져 공정한 평가와 심사를 거쳐 모델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통일된 법복의 제정은 재가법사 위주로 추진하되, 최종적으로는 종단측의 동의를 얻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경건과 위엄 상징…예복으로 착용

김재일 〈동산반야회 회장〉

깊고 오묘한 진리인 불법을 전달하는 법사 및 포교사들은 외형적으로도 위엄이 있어야 신망받을 수 있다.

의복은 때와 장소에 따라 구별돼야 한다. 평상시에는 사복을 입고 예식을 치를 때는 예복을 입는 것처럼 전법을 수행할 경우 법복은 필수 불가결하다.

법복은 또한 포교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도 한다. 무책임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복을 통해 신중하게 만들어 준다. 실제로 이같은 사실은 법사 모임에서 현장 실습을 통해 검증된 바 있다. 단 무분별한 법복 착용은 오히려 본래 의미를 해칠 수 있다. 의식교육과 영가천도, 설법, 포교시에만 허용하고 현직 승려와는 복식 형태가 구분돼야 재가불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 수 있다.

자부심 갖게해 포교극대화 일조

이형탁 〈석왕사 신도회 총무〉

통일된 포교사의 법복은 먼저 깨끗하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포교활동에 매우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 포교사의 법복이 통일, 제정된다면 법복은 그 자체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의 정결한 의상은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의 시작인 점을 생각한다면 법복제정은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현재 개인적으로는 동산불교대학 의식반을 졸업하면서 받은 법복을 입고 있으나 그 법복에 대한 일반불자들의 인식이 없다보니 사실상 법복을 입지 않을때와 큰 차이가 없다. 통일된 법복의 제정은 자부심과 함께 포교사의 활동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생각한다.

재가불자들이 최초로 법복을 입은 것은 50년대 말, 청담스님이 천주교 노기남주교의 조언에 따라 당시 전국을 다니며 불교강좌를 펼쳤던 박완일 권지홍 두 사람에게 입도록 했다.

포교사들은 이미 포교현장에서 법복을 착용하고 있으니, 종단에서 통일된 법복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에는 포교사들의 의식집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뜻도 들어 있다.

종단의 입장은 포교사들과는 조금 다르다. 조계종총무원 총무부의 한 관계자는 "스님이라고 해서 모두 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복을 통일 제정, 착용토록 한다면, 포교사들의 법문 및 각종 의식집전을 종단에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쉽게 관단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아직까지 법문이나 의식집전은 승가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것도 현실이다.

50년대말 처음 입어 재가역할 '민감사안' 승-재가 입장차 뚜렷

또 종단에서는 포교사들의 포교당 개설을 명문화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단등록시 반드시 조계종단 소속스님이어야 등록을 받아준다. 포교사의 포교당 개설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들 앞에 서는 기회가 많은 포교사들은 대부분 법복을 착용하고 있다. 불교교양대학들도 졸업과 함께 법복을 맞춰 입도록 하고 있다. 일부 스님들도 사찰에서 개설한 각종 강좌에서 강의하는 포교사들에게 법복을 입도록 권유하고 있다. 사찰 또는 출신 불교대학별로 법복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이다.

포교현장에서의 법복착용은 일반화되어 있다. 현실이 그렇다고해서 승-재가의 구분, 계율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실과 제도 사이의 바람직한 조화를 논의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정성운 기자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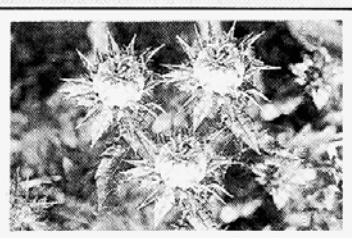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 질 공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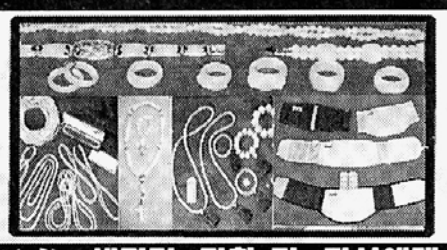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 화 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춘천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 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파장이 활발하다
연옥 사용전 1.5㎷ 연옥사용후 3.0㎷로 체내전압 상승

알파파(α) 현상으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20여종의 뇌내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정혈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두통, 불면증, 심장병, 귀울림, 치매, 신장병,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홧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만을 꼭찜이시 사이만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호 슴章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가)

한마음 전통메주
청농식품



천등산 한마음 메주의 특징

충북 충주시 산척면민이 재배한 순수 메주콩(백태)를 천둥산 맑은 청정수로 씻고 삶아 황토방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연 발효시킨 옛날 우리 할머니들께서 손수장을 담그시던 그 맛을 그대로 재현한, 우리 메주입니다.

천등산 한마음 메주는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울고 넘는 박달재를 소재한 천등산 자락의 광동부락에서 부락민이 직접 정성들여 씨뿌리고 재배하여 수확한 햇콩만을 사용합니다.
· 천등산 자락의 맥반석 단지의 청정 지하수를 이용하여 콩을 씻고 삶아 만듭니다.
· 신비의 원적외선을 방출한다는 황토 온돌방에서 볏짚을 이용 순수하게 자연발효시켜 전통적인 맛과 향이 나는 메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농식품이란?

본 청농식품은 1996년 농림부가 전통식품 제조업체(메주)로 지정한 확실한 우리농민의 업체입니다.
본 청농식품은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부락민 5인이 모여 만든 곳입니다.
본 청농식품은 신토불이의 정신과 국민건강증진을 최대목표로 한겨울 내내 열심히 우리의 멋과 향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 주 소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15-1
● 전 화 : 0441)853-9982
● 핸드폰 : 011)467-9982

종단소식

조계종

백양사 박물관등 신축



장성 백양사(주지 지선·사진)는 12일 중화당에서 운영위원 및 본말사주지 연석회의를 갖고 박물관과 강당을 신축키로 결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98년 예산 및 97년 결산보고 △97년 불사실적및 98년 불사계획보고 △97참사람 수행결사운동 추진실적 및 98추진 계획보고등이 있었다.

관음사 학생회 동계수련

청주 관음사(주지 이두)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원주 법응사에서 동계수련회를 실시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관음사 불교학생회와 혜능보육원 원생을 비롯 원주지역 청소년불자등 1백여명이 참석, 불교강의, 염불및 참선과 1080배 정진, 목탁습의, 찬불가 배우기, 삼보일배, 수련일기 작성, 자자와 포살, 사찰참배 등이 진행됐다.

태고종

제주종무원장에 수암스님



제주교구종무원장 수암스님(제주 금붕사 주지·사진) 취임법회가 11일 종무원사 법당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총무원장 인곡스님과 종단간부, 제주교구종무원 산하 각 사암 주지, 김승석 제주정무부지사, 김태환 대하적십자 제주지사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대구·경북 의식교육 확대

대구경북교구지방종회(종회의장 중산)는 12일 종무원 회의실에서 정기종회를 열었다. 이날 종회에서는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올해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불교의식 교육과 신도 연합합창단을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천태종

삼광사 1백세대에 성금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14일 오후 2시 법화당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실시했다.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1백세대를 초청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법회에 이어 각 세대당 10만원씩의 성금을 전달하고 다과회가 베풀어졌다.

진각종

전국심인당 새해 49일 불공

통리원을 비롯한 전국 각 심인당은 19일부터 시작해 3월8일까지 새해 49일 불공을 봉행한다. 조상추복을 위해 열리는 이번 불공에는 종단간부를 비롯해 전국 스승, 교도 등이 동참한다.

통리원 남녀 종무원 모집

통리원(원장 성초)은 고졸이상의 남녀종무원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말까지이며, 합격자에게는 사택 또는 기숙사가 제공되며, 소정의 교육이수후 종단 교역자로 임용된다. (02)913-0753

대한법화종

중앙종회 올해사업 심의

중앙종회(의장 회범)는 20일 오전 10시 총무원에서 98정기종회를 개최한다. 이날 종회에서는 97년도 결산과 올해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총지종

소비자보호위 지부설치

통리원(원장 총지화)은 부산, 대구, 대전에 지부를 설치하고 타 소비자단체와 연대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위원회 활동을 강화키로 하는 등의 올해 사업계획을 12일 확정 발표했다.

이밖에 전당건설, 종조유품및 사진전시회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법화종

위기극복 협조문 발송

총무원(원장 김광태)은 10일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문을 각 사찰에 시달했다. 총무원은 협조문에서 "IMF위기 극복을 위해 현재 벌이고 있는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각종 물자를 아껴쓰는 한편 형편이 어려울수록 불우한 이웃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심야전기 활용

'IMF한파 녹이자' 사찰 절약 묘책

기름난방보다 유지비 66% 절감
직지사·한마음선원등 설치 '바람'

난방시설을 기름보일러에서 심야전기로 대체한 사찰이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최근 치솟는 유가상승으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동화사 직지사 고운사 해인사등 본사를 비롯 운문사 한마음선원 부인사 청암사 은해사기기암 등 많은 사찰이 심야전기로 난방을 해 기름값을 절약하고 있다.

심야전기는 유지비가 기름보일러의 1/3정도 수준인데다 연료보충의 번거로움이 없다. 또 조작이 간편하고 매연이 없으며 소음이 적고 청결하며 폭발이나 유독가스 중독의 위험이 없는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밤10시부터 오전8시까지 축열하여 사용하므로 낮시간 동안은 열효율이 약간 떨어지며 설치비가 비싼게 흠이다. 물론 낮시간동안에도 가동할 수 있으나 전기료가 비싸진다. 산사의 경우 지붕이 높고 단열이 잘안돼 평소에 비해 용량이 커야한다.

난방방식은 온수를 데워서 순환시키는 전기보일러식과 열선과 자갈돌을 이용하는 전기온돌식이 주종을 이루며 전기온풍기식도 있다. 온돌식은 우리나라의 전통구들 방식과 유사해 건강에도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치가격은 35평기준 3백만원대이며 3백리터 용량의 온수기 설치에 1백만원 가량 더 든다. 심야전기를 사용하면 밤동안 낭비되는 전력을 환용할 수 있을뿐 아니라 석유를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요즈음은 일반가정에서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

이양길관장(직지사박물관)은 "2년정도 가동하니 설치비가 빠졌다"면서 "IMF파고를 넘는데 심야전기 난방은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해인사로 오세요"

88고속도로 해인사 IC 출구에 해인사전경을 담은 홍보입간판이 등장했다.합천군은 관광객유치와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구립12월 1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로4.8m, 세로2.4m크기의 중형 관광안내 입간판을 설치한 것.
〈대구=이윤호 기자〉



◇현재 99% 공정을 보이고 있는 천태종의 수도권 포교거점사찰 관문사. 금강불교대 등 주요단체들이 5월까지 입주하며, 낙성식은 올 10월이나 11월쯤 있을 예정이다.

천태종 관문사 준공검사 마쳐

금강불교대등 입주…10~11월께 낙성식

천태종 수도권 포교거점사찰이될 관문사가 1월초 준공검사를 마친데 이어 18일 금강불교대가 첫입주를 완료,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총무원(원장 운덕)은 14일 관문사 공정도는 현재 99%로 거의 공사를 마친 상태며, 단청을 모두 끝낸 10~11월쯤 낙성식을 봉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문사에 입주키로 한 종단 주요단체들은 금강불교대에 이어 천태종보사가 내달 16일 입주하는 등 5월까지 모두 입주할 예정이다.

서초구 우면동에 자리잡고 있는 관문사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포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분황사 '원효성지' 새단장

9층 모전석탑·법당·담장 등 복원정비
원효전에 영정·유물 봉안 '연구소 역할'

원효대사의 주석지인 경주 분황사가 신라시대의 품(品)자형 가람으로 원형복원돼 원효성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분황사(주지 종수)는 문화재관리국과의 협의를 거쳐 '분황사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 석탑 및 법당·담장 등 기타시설물을 복원정비하고 원효전 등을 신축해 원효성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최근까지 진행된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전석탑은 완전해체 발굴조사시 출토된 석재를 이용해 9층의 원형으로 복원된다.

건물은 중금당(1백24평), 동·서금당(1백10평) 규모로 건립되며 동·서·남회랑 및 담장 등은 최종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또 원효전은 30평 규모로 영정과 유물을 봉안, 원효학연구원의 역할을 겸하게 된다.

분황사는 재원마련을 위해 최근 서울은행에 '분황사복원 통장'을 개설, 은행측 수익의 25~30%를 복원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또 정부와 시로부터 지원받은 3억원을 들여 발굴조사 및 보고서 발간, 우물 및 법당정비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종수스님은 "분황사 복원은 원효대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교육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 파라미타 발대
기념법회·예술제 등 행사

파라미타 부천지회(지회장 영담스님)는 19일 부천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제1회 발대식 기념행사를 가졌다.

'맑은 세상, 청소년 세상, 부처님 세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기념법회에 이어 2부 청소년 예술제로 진행됐다.

승가거림회 장학금 전달

스님들이 매월 낸 회비를 재원으로 설립한 장학회에서 6일 성도절을 맞아 장학금전달식을 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승가거림회(회장 종학·주례 불광사 주지)는 3년전부터 무불스님 문하 도반들이 인재양성을 위해 매년 2백40만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다. 올해도 중학생 8명에게 각 30만원씩 전달됐다. 同회는 재단법인 설립을 계획중이다.

대전불교신도회 창립

기존 사암연합회 개편…회장 한만우씨



대전지역 불교신도들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게 될 대전불교신도회가 창립됐다.

대전불교신도회는 9일 대전불교사암연합회 사무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회장에 한만우씨(한국신약 회장·사진)를 선출하는 한편 각 임원진을 선임했다.

이날 한만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전은 국토의 중심지로서 불교포교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금명간 사업계획을 수립해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창립된 대전불교신도회는 92년 조직된 대전불교사암연합회 산하 신도회를 모태로 재구성됐다. 이와관련 대전사암연합회측은 "그동안 신도회가 유명무실했을 뿐만 아니라 연합회장이 바뀔 때마다 신도회장도 교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이러한 폐단을 막고 대전지역 불교활성화를 위해 재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불교TV 33명 감원 '눈물의 긴축'

재정악화로 조직도 축소…방송운영위 신설

불교TV(사장 정우스님)는 15일자로 조직개편 및 직원 감원을 단행했다.

재정 악화로 감량경영체제에 돌입한 불교TV는 기존의 2국7부21팀 1지사 체제에서 4부9팀으로 전환했다. 이번 개편은 경영진이 조직의 단순화와 결재과정의 신속성을 통한 전문방송으로 거듭나는데 따른 것.

또 별도기구인 방송운영위원회를 두어 방송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조직이 개편되면서 직원수도 대폭 줄여 각 부서별로 총 33명을 감원 조치했다.

사장 정우스님은 퇴직자들에 대하여 5차 주식공모에서 개인적으로 매입한 주식(약1억원)을 퇴직금과는 별도로 균등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여성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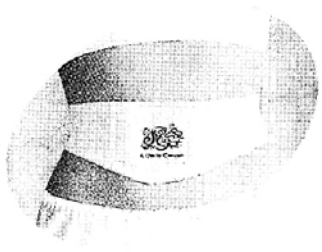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 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옅아지고 혈색이 좋아진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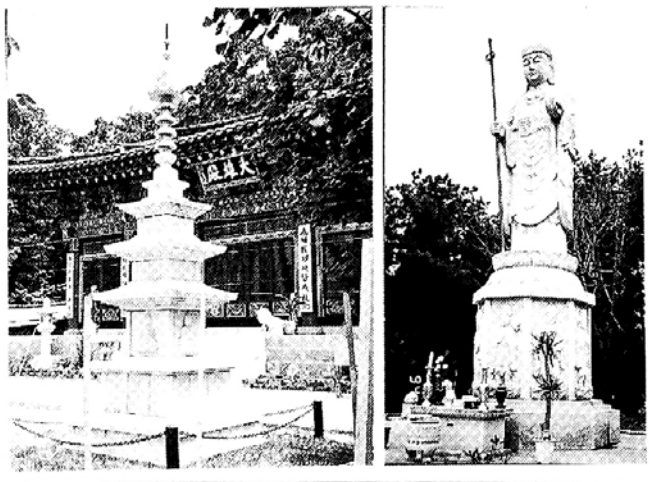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부처님조성·석탑·석등·석비·부도·불사건축·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삼보하옵고,
석물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물러주시기 바라옵니다

김 인 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 불 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 성 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장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사찰화재보험 '인식 확산'

잇단 화재로 목조건물 전소…해동화재에 50여 사찰 가입

문경 김용사(주지 자광)에 지 12월 30일 밤 원인불명의 화가 발생, 설선당등 목조건물 3동 214평이 전소됐다. 3개동의 물을 복구하는데는 20억 이상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화보험을 전혀 들지 않았으므로 사금의 조달이 상당한 어려움로 남았다.

작년 11월21일 원인 모를 화재 목조 2층건물인 요사채 2백여이 전소된 논산 관촉사(주지 석)의 경우는 요사채에 대해 화재보험을 들어 월 26만원 가량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해동화재보험에서는 최근 2억8천여만의 보험금을 관촉사에 지급했다. 관촉사는 이 보험금을 토대 요사채 신축불사를 계획하고 다.

전국에서 사찰화재가 잇따르고 는 가운데 예고 없는 사찰화재 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인이 확산되고 있다. 사찰 건물 대부분이 목조인데다 카페트 인화성 물질과 인등과 촛불등 사용하므로 상당한 화재위험을 안고 있다.

또 사찰이 산지등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전소로 이어지는 약점이 있어 화재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실제 방화로 피해를 입은 서울의 삼성암과 성남 만경암등은 화재직후 보험에 가입했다. "화재를 당하고 보니 중창불사금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화재보험을 드는 것도 불사의 한 방편일 수 있다"는 것이 피해사찰 주지스님들의 전언.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찰은 아직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한번도 불이 안났는데 설마…' 하는 마음과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내는 보험금이 만만찮아서'라는 현실적 타산 때문이다. 또 '불이 나면 전소된다'는 사찰화재의 특성상 보험회사가 사찰의 화재가입을 탐탁치 않게 여기거나 일반건축물로 계약하는 경우도 사찰의 화재보험 가입을 막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화재보험 상품을 잘 선택하면 적은 부담으로 화마에 대비할 수 있다. 국내 11개 화재보험회사 중 유일하게 '사찰화재보험'을 상품으로 내놓은 해동화재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50여 사찰의 가입을 받았다.

해동화재의 사찰화재보험은 단청된 50평 법당건물을 계약액 5억원으로 일반화재보험(소멸성)으로 가입할 경우 1년간 1백97만원(월 16만4천원)의 보험금을 내면된다. 같은 법당을 계약액 5억원으로 장기화재보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 월 1백54만원씩 3년간 5천5백44만원을 불입하고 화재없이 만기가 되었을 경우 계약액의 1할인 5천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사찰보험 상품을 개발한 가용우 지점장은 "사찰이 화재보험 상품을 잘 따져보고 건물의 일부나 불상 탱화등에 대해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함으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유했다.

〈임연태 기자〉

진관스님 석방 탄원서 제출

실천승가회등 18개단체, 김대중 차기대통령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동국대 석림회, 중앙승가대학생회 등 교계 18개 단체는 15일 진관스님(조계종 종회의원) 석방탄원서를 내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진관스님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 제단체는 "전·노 前 대통령이 국민화합 차원에서 사면·복권됐다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인권운동을 펼쳐온 진관스님의 사면은 당연하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석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로 조계종 종회의원인 진관스님은 지난 96년 10월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죄)으로 구속,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경주시민 55% '부적절'

경주 황성공원에 건립중인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한 최근 여론조사결과 현재의 부지가 적절치 않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소장 임배근)가 작년 11월13일부터 18일까지 경주시민 8백1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황성공원이 체육관 부지로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5%를, 적절하다는 응답은 27%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12일 경제살리기 금모으기운동에 동참하며 1냥짜리 행운의 열쇠를 전달했다.

"황금불심으로 경제위기 극복"

전국사찰 · 단체등 금모으기 확산

종단협-조계종 총무원 22일 조계사 모금법회

경제 살리기 금모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불자들의 황금불심이 빛을 발하고 있다. 〈금 관련 경전내용 20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YWCA회관에서 열린 '외채상환 금모으기 범국민운동 발대식'에 참석 1냥짜리 행운의 열쇠를 내놓았다.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은 6일 박사학위 취득 기념으로 받은 두돈 반의 금반지를 내놓아 신도들의 금모으기 동참에 불을 당겼다.

동학사신도 박보리심보살(37 대전시 중구)도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힘이 된다는 것이 기쁘다"며 남편과 상의해 결혼패물 일체를 은행에 맡기고 주변 주부들에게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서울 구룡사(주지 정우)는 4일부터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능인선원(주지 지광)도 11일부터 금모으기 행사를 시작해 하루 2백여명씩 동참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종무원과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14일 금모으기 행사를 벌였다.

한편 종단협과 조계종 총무원은 22일 오후1시 조계사(주지 현근)에서 금모으기 대법회를 열어 불자들의 동참을 확산시킨다. 또 같은날 정오에는 도선사(주지 동광)에서, 2월 4일 오전 10시 봉은사(주지 무상)에서 금모으기 법회가 열린다.

조계종을 비롯 태고·천태·진각·관음종 등도 각 사찰별 금모으기 법회를 열것을 독려하는 공문을 전국 사찰에 발송했다.

동산반야회 '108가지 실천운동' 전개

경제한파를 극복하기 위한 근검절약 운동이 불교계에도 확산되고 있다.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18일 동산법당에서 'IMF 시대 108가지 시민 실천운동'을 발표하고 전단 5천여부를 제작 전국 사찰 및 시민단체에 발송하는 등 범시민 운동으로 펼치고 있다.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선정된 108가지 실천과제에는 △과속 운전 안하기 △중고생 삐삐 반납하기 △실내온도 낮추기 등 소비절약 운동에서 △경조사비 줄이기 등 생활의식 개혁 운동까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돼 있다.

뉴스 & 뉴스

교계, 복지관 6곳 수탁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과천사회복지관(관장 자승·연주암주지)을 비롯하여 서울시내에 성내삼어린이집(원장 박태인) 서초어린이집(원장 이재희) 마포행화어린이집(원장 임아화)등 4곳을 연이어 수탁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은 구랍 6일 분당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청광·성남 무심정사 주지)을 위탁받아 저소득주민을 중심으로 지역복지사업을 전개한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도 구랍 12일 인천동구노인복지회관을 수탁했다.

어린이집 종사자 직무교육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불교보육프로그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불교어린이집 종사자 직무교육을 20일 오후 2시부터 사회복지교양대학 강의실에서 갖는다.

1백여명의 불교어린이집 원장및 주임교사가 참가하게될 이번 종사자 직무교육은 불교와 유아교육을 접목한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불교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할 예정이다.

불교 기초교리 무료강좌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교계 위탁 복지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불교기초교리 강좌를 연다. 3월 첫째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종교성향을 배제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마련한 청소년 복지 정규프로그램.

법사들이 자원봉사 강사로 나서 부처님의 생애, 육바라밀, 12연기 등 불교기초교리를 교육할 예정이다. (02)852-0525

박종철열사 11주기 추모

故박종철 추모 11주기 기념법회가 13일 통도사 성전암(주지 도성)에서 박종철씨의 부친 박정기씨, 부산민가협 회원, 대우정밀 노조와 1백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엄숙히 치러졌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3월 개원

'우리말 대장경' '한국불교전서' 등 전산화…정보 검색엔진도 개발

한국불교의 모든 정보를 전자문서화해 국내외에 제공하는 전자불전연구소(가칭)가 동국대에 설립된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해 말 교육부에 연구소설치 인가를 신청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에 연구소장을 선임해 오는 3월 개원키로 했다.

불교학중심의 한국학 연구와 정보·통신시대를 주도한다는 동국대 특성화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불전연구소는 미래 첨단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포교기지를 건설한다는 의미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불교학부와 어문학부 정보산업학부 교수진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할 전자불전연구소는 1차 사업으로 동국역경원이 올해 완역할 '우리말 한글대장경'과 '한국불교전서'를 전산화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도록 하는 검색엔진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산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체 인터페이스 개발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2006년 동국대 1백주년에 맞춰 연구성과를 낼 계획으로 있는 전자불전연구소는 유관단체인 고려대장경연구소와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신장기증 '자비행'

염정스님 · 김여찬씨 생명나눔회 통해 동참

생명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장기를 기증한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회원 염정스님(前동화사, 29세)과 독실한 불자 김여찬씨(포항 대잠초등교, 37세)는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함께 요양하며 나누어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8일 문윤정씨(34세, 석왕사신도)에게 장기를 기증한 염정스님은 신장기증자가 없어서 생명을 잃는 환자가 많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다.

"나한테 장기가 2개 있는데 필요한 사람 있어서 1개 떼어준 것 뿐입니다. 저로인해 한 생명을 살릴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쁩니다." 스님은 수술하기전과 몸과 마음에 별다를 바가 없다며 퇴원과 함께 수행자의 위치로 돌아가 정진하겠다고.



◇동시에 신장을 기증한 염정스님(사진 왼쪽)과 김여찬씨.

또 13년의 투병기간을 거치며 한쪽 눈이 실명돼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던 박영남씨(42세)에게 15일 장기를 기증한 김여찬씨는 "기분이 좋다. 장기를 기증받으신 분이 평생 건강하고 잘살았으면 합니다"라며 오히려 수혜자를 걱정했다.

목탁소리

이 와중에 재산싸움(?)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지난 6일 소유권을 가진 조계종과 점유권을 가진 태고종간의 분규사찰인 선암사 말사 순천 향림사에 작년 9월 이 사찰 주지에서 해임된 금암스님이 자신이 진짜 주지라며 현 주지 경성스님측과 마찰을 빚는 소동이 일어났다.

내용인즉 본래 태고종 승려였으나 태고총림 선암사 무력점령 등 해종행위를 해왔다는 종단의 판단에 따라 주지에서 해임된 금암스님이 조계종에 귀화를 요청하고 조계종으로부터 주지직을 임명받아 향림사를 점유하려 한 것이다.

태고종은 즉각 '불법사찰침탈행위를 규탄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조계종에 공식항의했다. 자기종단 승려에게 주지임명장을 준 조계종의 처사에 유감의 뜻을 전한 것이다.

반면 조계종은 금암스님이 귀화와 함께 주지직을 요청해 와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분규사찰이긴 하지만 법률상 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지 임명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어렵다. 이는 단순히 향림사만의 문제가 아닌 5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조계-태고종간의 사찰분규의 한 단면이고, 또 성급히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나라 전체가 IMF한파로 열병을 앓고 있는 지금 국민의 정신적 힘이 돼주어야 할 불교계가 재산싸움이나 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고물가와 실직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황량하고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남고자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회분위기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두 종단 모두 문제를 밖으로 표출시켜 불교전체에 먹칠을 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에는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합리적 절차라는 가장 중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향림사가 어느 종단의 사찰인가는 언젠가는 결정이 나겠지만 적어도 나라가 어려운 이 때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고의든 아니든 적절치 못했다는 여론을 두 종단 지도자들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8학년도 동산불교 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2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강사

1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무진장 스님(본대학학장) · 권기종(동국대교수) · 혜원스님(동국대교수) · 윤열수(동국대교수) · 증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 박사(상락향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 방종(인성개발연구원장)
2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반야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불교 사회 복지론	· 암도스님(교육원장) · 정승석(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김영태(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정휘옥(전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97년 12월 20일~ 98년 1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6시 불교회관 및 동산법당	동산반은 지방 거주자나 출석 수강이 어려운자만 가능

4. 입학일시 1998년 2월 7일(토) 오후 6시(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웅전갤러리 4층)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733-0333) ⊙부산 : 불서 보급사(246-4321)
⊙대구 : 삼영불교서림(425-4097) ⊙대전 : 보 문 서 점(257-0161)
⊙광주 : 불 일 서 점(232-7542)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55-2203)

※ 특전사항 : ❶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❷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묘관음사 도로불사」에
동참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의 삼보 하옵고
IMF의 한파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시는 불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근세의 대선지식인 운봉, 향곡 두분의 큰 스님께서 주석하셨던 전법도량 묘관음사 입구의 철도 건널목 공사가 약 15년만에 그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건널목 공사를 꼭 완성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뛰어다닌 결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구랍 30일 회향식을 봉행하였습니다. 약 1억원이 소요된 본 공사를 위해 특히 수고하신 철도청장님과 부산지방철도청장님, 공사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1만여묘관음사 사부대중의 이름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선행을 해 주신 여러분들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묘관음사 사부대중은 내핍과 청렴을 근간으로 제불자님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애써주신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나무석가모니불 -

불기 2542년 1월 좋은 날



대한불교 조계종 선학원 묘관음사 주지 성문 · 신도일동 합장

■주소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산1번지 ☎ : 051)727-2035

'원이삼점' 우주·삼위일체 상징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①

해인사-성프란체스코성당 외벽화



◇해인사 법당. 용마루 밑의 삼각부분에 '원이삼점'이 그려져 있다. '원이삼점'의 큰 원은 우주법계를, 작은 세개의 원은 각각 법신 해탈 반야를 의미한다.

절이나 성당은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림으로 장엄한다. 사찰의 벽화로는 부처님일대기, 전생도, 심우도, 설화 등이 그려져 있으며 성당과 교회에도 성인, 천사 등을 주 소재로 한 벽화를 그린다.

사진 왼쪽은 해인사이고 오른쪽은 이탈리아의 성 프란체스코 성당의 모습이다.

벽화로 장엄된 건물 양쪽 다 삼각지붕 아랫부분에 동그란 큰 원(圓)안에 세개의 작은 원이 있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불교진리의 본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원이삼점(圓伊三點)'으로 큰 원은 우주법계를, 작은 세 개의 원은 각각 법신 해탈 반야를 의미한다. 성당의 원 역시 우주와 성부 성자 성령의 3위1체를 상징하고 있다.



◇성 프란체스코 성당(1290년). 삼각지붕 부분의 큰 원은 우주를, 가운데 세개의 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3위1체를 상징하고 있다.

"'東西 하나' 깨닫는 성화감상"

프롤로그

학림 (예천 법화암 주지)



연례행사처럼 일부 공신도에 의해 우리민족의 귀중한 성보들이 불에 타고 파손되는 등 훼손이 잇따르고 있는 점은 안타깝기 그지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만행은 상대방의 종교는 물론 자기 종교의 본질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나온 소행이다. 우리나라 같이 종교의 영향력이 큰 다종교사회에서는 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화합하고 모범을 보여 이 사회를 정법과 진리로써 바르게 이끌어야 함은 종교의 몫이기 때문이다.

종교화(聖畵)는 종교심을 최대로 고양시켜 빚어낸 조형작품으로 표출한, 종교예술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불화와 기독교의 사상을 묘사한 서양의 유명 성화중 공통점을 지닌 33 장면을 가려뽑아 소개한다. 한 방울의 바닷물로써 대해(大海)의 맛을 알 수 있듯이 단편적이나마 소개하는 불교와 기독교의 성화를 비교감상하며 그 공통점을 살펴보는 일은 상대방 종교를 이해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될 것이다.

어둠이 진할수록 빛은 더욱 밝듯이 이 세상이 혼란할수록 부처님과 예수님같은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은 더욱 간절해진다.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징화하고 조형화시킨 인류의 성보, 불화와 성화를 통해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진리는 하나이며 이 지구촌의 뿌리 역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일조를 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조용필



◇김병조



◇이주희



◇김성녀



◇송나영



◇유하영

조용필 "해외공연 외화 벌겠어요"

범띠 인기인 새해포부

무인년을 맞아 범띠 불자 스타들이 방송가를 휘어잡으며 어느 때보다 왕성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탤런트 유하영(24) 이주희(24) 송나영(24) 등을 비롯해 김세진(24·배구) 채지훈(24·쇼트트랙) 선수, 탤런트 김청(36), 개그맨 최양락(36), 가수 조용필(48) 최백호(48), 개그맨 김병조(48), MC 임성훈(48), 국악인 김성녀(48), 탤런트 남일우(60) 박규채(60)씨 등이 모두 범띠.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유하영씨는 연기도 연기지만 MC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 불교TV의 '불교백과 그건 이렇습니다'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교육방송의 '인터넷 정보사냥'을 맡아 컴맹 탈피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개인적인 희망보다는 경제위기 등을 이겨내기 위해 공인으로서 불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한해 소망을 피력한다. 호랑이 꿈을 꾸어 새해가 더욱 기대된다는 탤런트 이주희씨는 "현재 출연 중인 MBC 일일드라마 '방울이'에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보다 폭넓은 배역을 소화해 연기의 감칠맛을 체득하고 싶다"고 밝힌다. 나가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쇼트트랙의 채지훈선수도 "반드시 승리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오겠다"는 굳은 결의를 안고 일본으로 떠났다.

김병조 대학서 '명심보감' 강의

유하영 "컴맹탈출 · IMF 극복 동참"

채지훈 "나가노 오륜 금메달 기대"

배추머리 김병조씨는 조선대 사회교육원에서 후학들에게 〈명심보감〉을 강의하게 돼 범띠해를 맞는 소감이 남다르다. 노래인생 30년을 결산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가수 조용필씨는 1월 2장의 베스트 앨범을 시작으로 총 6장의 결산앨범을 냄과 동시에 5월에는 17집 앨범도 출시할 예정이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외순회공연도 자주 가져 외화벌이에도 나설 예정"이라며 일본 및 미국 순회공연 계획도 밝히기도.

"올해를 생애 최고의 해로 만들겠다"며 각오를 펴는 이들 범띠 스타들에 불자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연〉

신행수기 당선작

〈대 상〉

자등명 법등명 ②

친지들이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하는 동안 나는 미용실에서 하루종일 일을 했다. 서툰 미용실력에 어느새 자신감이 붙어 일이 훨씬 수월해지긴 했지만 여간 고단한 일이 아니었다. 어깨가 결려 힘줘 버티고 서 있을수 조차 없었지만 미용실 셔터문을 내리고 나면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병원으로 갔다. 그리고선 새벽녘에야 집으로 돌아와 밥을 해 아이들을 등교시켰다.

미용실, 병원, 집을 오가며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발바닥과 입이 부르텄다. 그러면 그럴수록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나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가끔 나자신도 알 수없는 눈물이 쏟아졌다. 어리석음을 후회하는 눈물, 참회의 눈물, 부처님 품에 되돌아간 환희심의 눈물이었다.

남편은 퇴원한 후 택시회사에 다시 입사했다. 덕분에 나는 미용실 운영과 가정 살림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생활은 차츰 호전되어 갔다.

너무 무리하게 버텨왔던 탓일까. 건강이 좋지 않았다. 숨이 차고 눈두덩이 부었다. 갑자기 침침해진 시력은 사물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고, 30분이 멀다 하고 화장실을 가야 했다.

종합병원으로 가보라는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삶의 행복을 맛볼 찰나에 청천벽력의 절망가 되어 다가왔고, 두려움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무엇보다 사춘기에 접어든 남매가 걱정되었다.

나 대신 미용실을 운영해 줄 미용사를 들인 나는 관세음보살님에 매달리며 한가닥 희망을 갖고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녔다. 병원에서 내린 선고는 갑상선 항병증. 시력이 더욱 나빠져 한달에 몇번씩 안경을 바꿨고, 몸 구석구석이 으스러지듯 아팠다.

몸이 아프자 신앙이고 뭐고 다 귀찮았다. 나는 무력한 무종교인으로 자포자기하는 삶을 선택했다. 다시 술을 입에 댔다. 병든 몸과 정신적 고통을 잊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다.

형제·친지들과의 다툼, 이웃과의 다툼.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자 부처님에 대한 원망이 커져만 갔다.

"왜 제가 이런 고통에 시달려야 합니까? 아직 죽을 순 없습니다."

목숨에 대한 강한 집착과 현실을 거부하려는 강한 반항심이 내 모습을 흉하게 만들었다. 그럴수록 아들 딸의 얼굴을 대할 면목은 더욱 없어져 갔다. 사춘기인 남매에게 그저 "너무나 아파서, 고통을 이길 수 없어 술을 마신다"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엇나갈까봐 "엄마와 너희 자신을 위해 절에 가 기도해 달라"고 매달렸다.

그 와중에 텔리비전을 통해 사후 시신기증에 대한 뉴스를 들었다. 시신을 기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남기고 삶을 숭고하게 마감한 어떤 이의 감동적인 미담이었다.

언제 쓰러져 한줌의 먼지로 변할 지 모르는 내 몸뚱아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또한 공덕이려니 생각하고 사후 장기기증을 신청했다. 그 증서는 흐트러진 나를 바로 잡는 채찍이 되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내가 뇌사 상태가 되면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과 의학 연구진에 장기와 시신을 기증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삶을 마감하는 길이 바로 이것임을 알아주길 바랄 뿐이었다. 유언을 하고나니 비로소 나 자신과 남을 바로 볼 수 있었다.

숨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로 인해 태어난 저 남매에게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가자'는 마음이 생겼다. 엄마로서 책임을 다 해야겠다는 결심이 서자 숨을 끊지 않을 수 없었다. 숨을 입에 대지 않자 원망심이 차츰 사라졌다. 병의 고통까지 가슴에 안아버렸다.

그러자 근래에 느낄 수 없었던 너그러움이 일었다. 신기하게도 힘들게만 느껴지던 호흡이 훨씬 수월해졌고 시력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해 안경도 벗게 되었다.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얼굴이 맑아졌다.

문득 부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느꼈다. 다시 하루도 잊지 않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드렸다.

남편은 개인 택시를 매입해 운행하게 되었고, 불교방송을 들으며 정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절에 다니는 나를 말린 적은 없었지만 그동안 종교에 대해 얼마나 무심했던 남편이었던가. 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작은 보시를 하며 보시행의 공덕도 알게 되었다. 아이들에게도 동참을 시켰다. 온 가족이 불교방송과 불교TV를 청취하고 시청하면서 나날이 달라져 갔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가정 살림을 꾸리느라 엄두도 못 냈던 불교공부가 어찌나 재미있던지 눈 뜰새 없이 96년 9월에는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의 동국불교TV아카데미에 등록해 본격적으로 불교공부를 했다.

생활이 예전보다 더욱 바빠지긴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저절로 미소가 나왔고, 삶에도 여유가 생겼다.

이태순 〈서울시 양천구 신월6동〉

사후 장기기증 신청후 원망심 점차 사라지고… "이젠 엄마책임 다하자"



그림 · 이준석

다이옥신 공포를 해결한 경이의 소형 소각로

■ 영우 소각로 특징 ■

◆ 세라믹 필터 장착! 매연해결
연돌 하단부에 설치된 특수 세라믹 필터는 다이옥신의 독성을 제거하는 영우소각로 특유의 기술입니다.

◆ 대형 소각로보다 월등한 기능
포항공대 - 英 sal사 측정 · 허용기준치 이하 …0.3 나노그램

◆ 초고온 하향식 연소방식
국내유일 특허획득 125893호

◆ 각급학교, 관청, 기업체, 사찰, 교회등에 2년간 400대 납품

◆ 상시 A/S반 대기

◆ 저렴한 가격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였으나 100% 자체기술이므로 성능에 비해 가격이 쌉니다.

매립지 방식의 쓰레기 처리는 매립지 부족, 침출수 발생때문에 한계에 봉착
이제는 태울 수 밖에 없습니다.
관광지 사찰 쓰레기 고민을 매연없이 완전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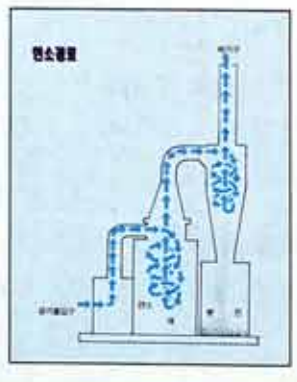


■ 대표모델 : 시간당 소각능력 50Kg

■ 소각대상물
폐지, 폐목, 폐섬유, 폐합성수지(PE, PP), 생활쓰레기, 기타 산업폐기물등
※ 수분 30% 이상의 젖은 폐기물이나 프라스틱 및 폐고무가 많이 섞여 있을 경우 소각초기에 연기가 비칠수 도 있습니다.

■ 설치하면 좋은 곳
관광사찰, 각급학교, 관공서, 군부대, 산업체, 국·도립공원, 고속도로 휴게소, 호텔, APT 단지, 병원 및 농어촌, 자연 부락단위등





소각로 세계선두
영우실업주식회사

본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 267-1
TEL. (0344)64-7236, 62-3488, 62-2470 FAX. 62-7012

공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 267-2
TEL. (0344)62-9351